2021年度
韓國中語中文學會 春季學術大會

중어중문학
신진연구자
논문 발표회

2021.4.17.(토)
12:00~17:30 (ZOOM)

主催 韓國中語中文學會

主管 韓國中語中文學會

2021年度 韓國中語中文學會 春季學術大會

主 題

“중어중문학 신진연구자 논문 발표회”

日 時

2021年 4月 17日(土)

12:00-17:30 (ZOOM)

■ 主催 : 韓國中語中文學會

■ 主管 : 韓國中語中文學會

2021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춘계학술대회

“중어중문학 신진연구자 논문 발표회”

- 일시 : 2021년 4월 17일(토) 12:00-17:30
- 방식 : 줌(ZOOM)을 통한 온라인 발표
- 주최 : 한국중어중문학회
- 주관 : 한국중어중문학회

개회식 (12:00-12:10) 사회: 이현서(경인여대)

개회사 : 나민구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한국외대)

‖ 발표일정 및 내용 ‖

1부	12:10 - 13:10	당대 문학과 문화
2부	13:20 - 14:40	어학(1) 분과
	14:50 - 16:10	어학(2) 분과
3부	16:20 - 17:20	고전 문학과 문화

폐회식 (17:20-17:30) 사회: 이현서(경인여대)

폐회사 : 이현정

(한국중어중문학회 학술위원장, 서울시립대)

분과별 발표

현당대문학 분과		당대문학과 문화	
시간	발표자	발표논문	사회
12:10 -13:10	우취영 (전북대)	중국 1990년대 문단의 '異聲'	이욱연 (서강대)
	유은하 (서울대)	鐵凝 소설에 나타난 아동기 트라우마	
	류호현 (고려대)	중국시트콤의 문화정치 — 『閑人馬大姐』 시리즈를 중심으로	

어학(1) 분과		언어학	
13:20 -14:40	조태련 (한양대)	<서유견문>에 보이는 중국어 수용 양상	변지원 (방송대)
	장준익 (南京大學)	한국 한자음을 통해 보는 중고음 3, 4등 개음의 차이	
	안영희 (雲南民族大學)	『五大眞言』(1485)의 梵-中-韓 음운 대응 연구	
	김시현 (北京師範大學)	한중 가열조리동사 의미분석 비교연구 — '삶다(煮)류' 어휘장을 중심으로	

어학(2) 분과		어법	
14:50 -16:10	박혁재 (한국외대)	현대중국어 방향보어의 粒子語性	김현철 (연세대)
	서진현 (전북대)	'把'자문의 절대적 정보지위 고찰	
	김미금 (黑龍江大學)	漢韓零句對比研究	
	밍양양 (상지대)	"V+在+NL"句式研究 — 以語義場景和意象圖式分析爲中心	

고전문학 분과		고전문학과 문화	
16:20 -17:20	고지영 (제주대)	《莊子》 글쓰기와 그 활용 연구	김보경 (명지대)
	오상금 (北京大學)	《文選》李善注引《尙書》考論	
	김하늬 (서울대)	명말청초 雲間 지역 宋氏 일가 詞에 대한 소고 — 宋徵璧, 宋徵輿의 비애 표현을 중심으로	

∥자료집 목차∥

개회사 ······ 나민구 ▪ iv

현당대문학 분과 _ 당대문학과 문화

- 중국 1990년대 문단의 '異聲' ······ 우취영 ▪ 3
- 鐵凝 소설에 나타난 아동기 트라우마 ······ 유은하 ▪ 7
- 중국시트콤의 문화정치
  — 『閑人馬大姐』 시리즈를 중심으로 ······ 류호현 ▪ 13

어학(1) 분과 _ 언어학

- ≪서유견문≫에 보이는 중국어 수용 양상 ······ 조태련 ▪ 23
- 한국 한자음을 통해 보는 중고음 3, 4등 개음의 차이 ······ 장준익 ▪ 29
- 『五大眞言』(1485)의 梵-中-韓 음운 대응 연구 ······ 안영희 ▪ 35
- 한중 가열조리동사 의미분석 비교연구
  — '삶다(煮)류' 어휘장을 중심으로 ······ 김시현 ▪ 41

어학(2) 분과 _ 어법

- 현대중국어 방향보어의 粒子語性 ······ 박혁재 ▪ 53
- '把'자문의 절대적 정보지위 고찰 ······ 서진현 ▪ 61
- 漢韓零句對比研究 ······ 김미금 ▪ 67
- "V+在+NL"句式研究
  — 以語義場景和意象圖式分析爲中心 ······ 밍양양 ▪ 75

고전문학 분과 _ 고전문학과 문화

- 『莊子』 글쓰기와 그 활용 연구 ······ 고지영 ▪ 85
- ≪文選≫李善注引≪尚書≫考論 ······ 오상금 ▪ 91
- 명말청초 雲間 지역 宋氏 일가 詞에 대한 소고
  — 宋徵璧·宋徵輿의 비애 표현을 중심으로 ······ 김하늬 ▪ 97

개 / 회 / 사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원 여러분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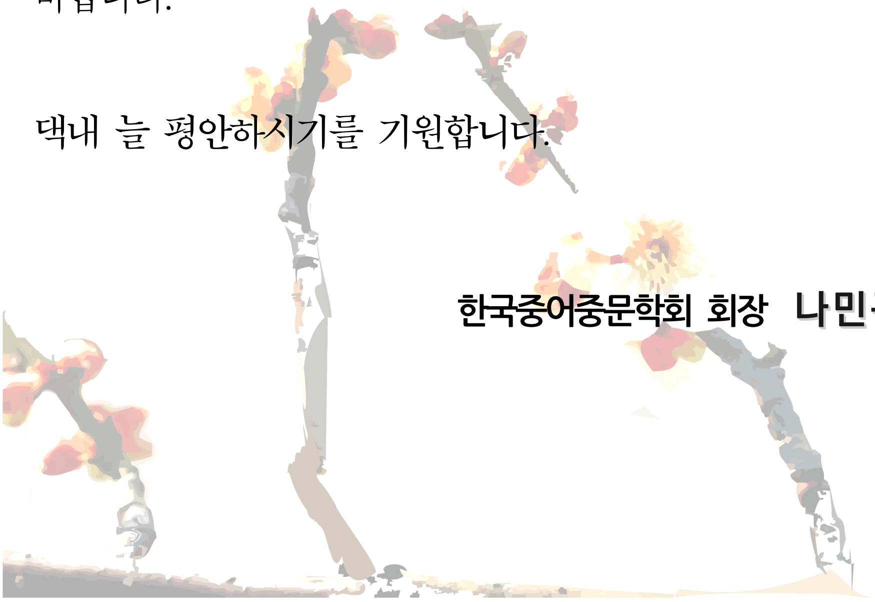
안녕하셨습니까?

파란만장한 2020년도를 보내고 2021년 봄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학회는 2021년 4월 17일(土) 춘계학술대회를 신진학자들을 모시고 Zoom으로 개최합니다. 현・당대문학, 고전문학 그리고 어학 1, 2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한창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중어중문학계에서 앞으로 힘차게 활약할 젊은 학자들의 연구내용을 경청해주시고 격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댁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나민구 드림



2021年度 韓國中語中文學會 春季學術大會

4月 17日(土) 12:10~13:10

현당대문학 분과

❖ 당대문학과 문화

우취영(전북대) 중국 1990년대 문단의 '異聲'

유은하(서울대) 鐵凝 소설에 나타난 아동기 트라우마

류호현(고려대) 중국시트콤의 문화정치
—『閑人馬大姐』 시리즈를 중심으로

중국 1990년대 문단의 '異聲'

우취영*

<目　次>

1. 연구목적
2. 기존연구정리
3. 연구대상
4. 연구방법

1. 연구목적

중국문학발전사에서 특정한 시기에는 언제나 특별한 문인과 문학풍격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竹林七賢이 바로 그 대표이다. 魏末晉初라는 혼란한 시대에 그들의 문학에는 위기감과 환멸감이 보편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당시의 시화정치상황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매 시기의 문학작품은 모두 당시의 역사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학작품에는 한 시대의 흐름이 투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국문단의 작가들도 선배작가들처럼 시대의 자취를 지닌 채 그들의 작품을 남겼다. 그렇다면 "중국 90년대 문단 양상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은 當代文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 보았을 것이다.

2000년, 上海作家協會에서는 중국 평론가 백 명을 대상으로 90년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와 작품을 추천하고자 하는 활동을 개최하였다. 최종결과가 발표되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당선자와 당선작이 과연 90년대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최소한 '신생대작가(新生代作家)'가 선정 리스트 속에 한 자리는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생대작가라는 것은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리고 90년대 사회전환기에 있는 신생대작가의 심미양상 및 서사특색은 또한 어떤 새로운 면을 보여주었는가?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90년대 문학이 80년대 문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양상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改革開放과 경제발전에 따라 인간정신의 빛과 그림자는 동시에 출현하였다. 평범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인간의 삶의 질도 제고되어야 되는데, 일부 예민한 감지력의 소유자, 즉 본문의 연구대상인 90년대 신생대작가들은 오히려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결국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곤란과 곤혹을 표현하며, 자아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었다. 그간 중국사회의 자아는 주류 이데올로기에 억눌린 것에 대한 반등으로 인해 1980년대에 '反思文學'이나 '尋根文學'처럼 이미 한바탕 떠들썩한 국면을 맞이했었다. 이후 90년대에 들어와서 문학은 급진주의와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평범한 개개인의 삶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소소함과 자질구레한 것에 대한 고민이 웅장하고 숭고한 비장감과 사명감을 대신하여 문화적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변잡기적이며 소외된 삶을 표현하고자 한 신생대서사가 바로 이 시대의 대표적인 글이 되었다. 그들은 '반전통(反传统)', '개인화(個人化)'를 자신들의 기치로 내세우고, 거대 담론의 단일모델에서 벗어나 생활자체에 근접한

* 전북대학교

개인적 서사를 돌아보았으며, 이러한 풍조는 세기말의 중국 문학에 있어서 가장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

사실 '신생대'라는 말은 지질학 용어였고, 1990년대 신진 청년 작가를 규정하는 데 처음 사용한 학자는 李師東이었다. 신생대작가들은 대체로 6,70년대에 태어나 文化大革命 이후에 성장하여 1990년대 중반 중국 문단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세대였다. 그중의 대다수는 정규 고등교육을 이수하였고, 선배작가들에 비해 서양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신생대작가들의 서사는 90년대 사회변혁이 당대 중국인들에게 가져다준 사상과 생활에 생긴 분열과 고통을 담고 있으며, '평면화', '개인화', '욕망화'적인 서사특색을 보이며 90년대의 독특한 사회현상과 정신적 모습을 다원적으로 그려내었다. 이로 인해 등단 초기부터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谢冕은 일찍이 그들을 '희망의 세대'라고 높이 평가하였고, 張鈞은 신생대작가의 작품을 '순수한' 문학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적과 오해도 이들의 서사와 함께 했다. 그렇다면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신생대작가에 대한 찬반양론은 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가? 필자는 이러한 의론이 신생대작가의 심미나 서사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1998년 신생대작가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단절(斷裂)'사건 역시 이런 비판적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人文精神論爭'과 1998년의 '斷裂'사건은 90년대 문단을 뒤흔들 만한 양대 사건으로서, 90년대 중국 문단의 정신적 면모를 차례로 상호 보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국문단을 떠올리면 90년대 말 일어난 '斷裂'사건보다 90년대 초의 '人文精神論爭'이 더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人文精神論爭'에 영향을 받아 등단한 신인 작가들이 일으킨 '斷裂'사건은 1990년대 문단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통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문단에 등장한 신생대작가들의 작품과 그들의 행동은 90년대 중국 문단의 유기적 구성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학공간에 대한 재인식과 해석은 20세기 90년대 중국문학의 현상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인식할 수 있는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하겠다. 즉 당대 문학사 특히 90년대 문학사연구에 있어 신생대작가 및 그들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회피할 수 없는 당연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위와 같은 과제들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고찰을 통해 90년대 신생대작가 및 작품에 대한 전면적이며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정리

선행연구정리는 우선 학술논문과 전문 연구 저서에 주목하였다. 신생대작가의 창작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의 문학도 점차 주류비평담론의 대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먼저 찾아온 것은 젊은 신진 작가군에 대한 이름붙이기 열풍으로 '新状态', '晚生代', '六十年代出生', '新生代', '地平线', '新锐', '边缘' 등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하였다. 이처럼 상호 간 모순되고 뜻이 상이한 이름붙이기만 보더라도 신생대작가와 그들의 창작에서 드러나는 다원적인 면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이름붙이기 과정에서 우리는 陳曉明, 洪治綱, 葛紅兵, 李潔非, 陳思和, 吳義勤, 張鈞 등[1] 신생대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거의 모든 대가들을 대면하게 된다. 심미와 서사에 관한 그들의 신생대 문학에 대한 해석은 신생대문학 연구의 기초를 다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의 소논문들은 대부분 선배 비평가들의 관점을 인용하거나

1) 陈晓明, ＜晚生代与九十年代的文学流向＞, ≪山花≫, 1995, 01期；
洪治綱, ＜敍事的掙扎--晚生代作家論之四＞, ≪文藝評論≫, 1996, 06期；
陳思和, ＜碎片中的世界--新生代作家小說創作散論＞, ≪花城≫, 1996, 06期；
李潔非, ＜新生代小說(1994--)＞, ≪當代作家評論≫, 1997, 01期；
葛紅兵, ＜晚生代的意義--晚生代作家論寫作札記＞, ≪山花≫, 1997, 08期；
吳義勤, ＜九十年代的小說格局＞, ≪社會科學戰綫≫, 1998, 06期；
張　鈞, ＜斷裂：精神立場與寫作姿態＞, ≪黃河≫, 1999, 04期 등.

확대 서술하였으며 어떤 논문들은 심지어 자신의 주장이나 새로운 견해도 없이 똑같은 말을 상당히 반복한 것들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만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뒤이어 벌어진 '단절'사건은 학계와 신생대작가들의 소통을 거의 단절시켰다. 이들이 사건에서 보여준 기존의 문학적 질서와 체제에 대한 반대, 권위와 전통에 대한 반대, 그리고 기존의 문학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반대하는 문학관과 세계관은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무원의 곤경에 빠뜨렸다. 바로 그때 두 젊은 연구자가 신생대작가들에게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두 연구자는 신생대작가와의 오랜 교제와 추적 끝에 두 편의 초석이라 일컬을 만한 대작을 탄생시켜, 후배 연구자들에게 신생대문학 연구의 귀한 자료를 남겨주었다. 이 두 작품은 각각 汪繼芳이 2000년에 출판한 『"斷裂" : 世紀末的文學事故——自由作家訪談錄』(江蘇文藝出版社)과 张钧의 유작인 『小说的立场——新生代作家访谈錄』(廣西师大出版社, 2002년)이다.

이 밖에도 이 영역의 연구에 있어서 또 다른 상황이 존재하는데, 바로 연구의 주제가 '신생대'가 아니거나, 또는 '신생대'라고 다루는 범위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신생대연구에 있어서 그 같은 연구 구조는 빼놓을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60년대 출생 작가'나 '90년대 문학'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연구가 바로 이러한 예이다. 비교적 대표적인 저작은 洪治纲의 『中國六十年代出生作家群研究』, 吴义勤의 『自由与局限--中國當代新生代小说家论』, 樊星의 『新生代作家与中國传统文化』 등이 있다. 이로써 신생대작가와 그들의 작품은 중국 당대문학사에 있어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신생대라는 문학적 현상이 출현한지 10년 만에, 학계에는 신생대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첫 박사논문이 나왔다.[2] 뒤이어 2018년까지 박사 논문 10편, 석사 논문 38편이 나왔다.[3] 연구저서에 나타난 연구대상의 혼란은 학위논문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필자는 구동존이(求同存異)하면서 넓은 의미에서의 신생대 연구를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정리 결과로 보면 상기 학위논문의 연구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 개별 신생대작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2) 비슷한 서사 유형의 신생대작가 몇 명을 묶어서 진행한 연구, 3) '단절'사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 4) 신생대소설을 하나로 묶어, 여러 각도로 신생대 문학을 분석하고 구축하는 연구이다. 바로 이 네 번째 연구 관점이 필자가 가장 관심을 둔 부분이며, 또한 필자의 연구범주에 부합되어 이와 관련된 논문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한국학계에서 신생대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다. 그중에 덕성여자대학교의 김형남은 한국학계 신생대소설관련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그가 2007년에 쓴 「신생대작가와 1990년대의 중국 소설」[4]이란 글을 통해 신생대가 나타난 사회적 배경과 당시 문단의 흐름을 설명하고 신생대라는 개념과 서사특색을 소개하였으며, 이러한 개론적인 소개를 통해 한국학계의 신생대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한국학계의 신생대작가와 그들의 작품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별 작가나 작품들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고, 그 시기 신생대작가군 전반에 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생대작가라는 연구대상의 불확실성, 텍스트 주제의 다양성 및 연구 전에 읽어야 할 텍스트 수량의 방대함과 무관하지 않다.

선행연구의 정리를 통해 신생대작가 및 작품에 관한 연구가 그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2) 2005년 管宁의 ＜消费文化语境中的文学叙事＞(福建师范大学, 博士論文) 및 刘永春의 ＜在后现代性的地平线上＞(山东大学, 博士論文).

3) 翟文铖의 ≪生活世界的喧嚣≫(2007, 山东师范大学, 博士論文) 및 常世举의 ≪新生代小说家的历史叙事≫(2013, 南开大学, 博士論文)은 그중에 학술적 가치가 비교적 높은 논문이다.

4) 이에 앞서 김형남선생님은 90년대 신진 작가의 창작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가져왔다. 관련 학술논문은 다음과 같다.
＜陳染: 對女性欲望的自我透視及對女性存在觀念的覺悟＞,≪중국현대문학≫, 1998, 14輯;
＜현대도시 속의 에뜨랑제＞, ≪중국현대문학≫, 1998, 15輯;
＜우울한 영혼의 욕망체험—주문(朱文)소설론＞, ≪중국현대문학≫, 2000, 18輯;
＜試論徐小斌小說特色＞, ≪인문과학연구≫, 2003, 8輯;
＜린바이(林白)소설론＞, ≪중국학연구≫, 2005, 31輯 등등.

첫째, 신생대라는 연구대상의 범위에 대한 규정문제이다. '신생대'문학이란 용어는 20세기 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문학연구 대상으로서의 '신생대'문학의 개념은 불명확하고 엄격하지 못하였다.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선정한 연구대상은 상호 간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어, 소통과 교류에 적잖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와 같은 혼잡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신생대'문학에 대한 엄격한 개념정의의 기준은 과연 불필요한 것인가?

둘째, 대부분의 연구가 현상의 귀납과 특징을 총괄하는 데 머물러있고 종합적인 통섭과 깊이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주의 시각으로 신생대소설을 연구했을 때, 남성 작가의 필체로 그려낸 여성 이미지와 효과적인 수평 비교를 진행하지 못하고, 단지 여성작가의 작품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셋째, '자아구축(自我建構)'적 측면에서 신생대작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발견되지 못한 점은, 필자에게 신생대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한다'는 데카르트의 말처럼 자아에 대한 추구는 줄곧 인간이 벗어나기 어려운 명제이다. 게다가 1990년대 중국의 사회 전형이 민중들로 하여금 자아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으며, 지식인들은 자신의 문화적 입장에 대해 곤혹스러워 했다. 서술자가 이 정신적 곤경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에 대한 심리적 갈등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주목은 텍스트 표면의 서사적 특징을 뚫고 텍스트 저변에 깔려있는 진실한 내용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3. 연구대상

따라서 필자는 우선 신생대라는 연구대상의 범주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문학사의 분류와 보존에 있어 '시간개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작가의 글쓰기가 90년대의 정신과 서로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90년대의 개인화된 글쓰기인지의 여부가 비로소 이 작가가 '신생대'작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소위 '신생대'라는 이름은 오직 '시장화', '세계화', '상품화', '물욕화' 등 90년대의 키워드, 즉 90년대의 변화된 사회 환경과 같이 놓여야만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필자는 '90년대 신생대'라는 이름을 선택하여 1990년대 청년작가들의 공시성과 동질성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밖에 洪子誠이 쓴 『中國當代文學史』란 책에 수록된 '만생대(晚生代)' 작가 명단 및 신생대 관련 작품집에 수록된 작가·작품목록을 참고하여, 추화둥(邱華棟)·리펑(李馮)·장민(张旻)·한둥(韓東)·둥시(東西)·주원(朱文)·쉬쿤(徐坤)·천란(陳染)·린바이(林白)·루양(魯羊)·비페이위(畢飛宇)·허둔(何顿) 작가의 90년대 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연구방법

본문은 텍스트 정독이라는 기본 연구방법에 입각하여 '자아해체-자아반성-자아구축'의 각도에서 신생대작품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아'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평면화'·'개인화'·'욕망화' 밑에 가려진 진실을 추구하고, 헤테로글로시아(衆聲喧嘩, Heteroglossia)로 인해 가려진 진의를 읽어내며, 신생대작가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鐵凝 소설에 나타난 아동기 트라우마*

유은하**

<目 次>

1. 들어가며
2. 아동기 文革 체험 세대로서의 文革 모티프
3. 아동기 트라우마의 형성과 표출
4. 트라우마에 대한 합리화와 현실 대응
5. 성년기의 태도 전환에 관한 고찰

1. 들어가며

鐵凝의 소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의 생존이나 욕망, 섹슈얼리티 등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으나, 다수 작품에서 주인공이 아동기에 겪은 文革 경험과 상처, 가정 내 갈등이 재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천착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고는 ≪玫瑰门≫(1988), ≪午后悬崖≫(1997), ≪大浴女≫(2000) 등 주요작품을 주인공의 아동기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文革을 포함한 어두운 과거사 및 개인의 상처를 대하는 작품 이면의 심리를 탐지해보고자 하였다. 鐵凝에 대한 한국 내 학술계 연구는 저조한 현황으로, 본 연구는 이를 보충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있다.

鐵凝은 중국 當代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명으로 문단과 시장・공직에서 높은 위상을 확보해왔다. 2006년 鐵凝은 57년의 전통을 가진 中國作家協會의 주석으로 선출되어 2021년 현재까지 연임해오고 있으며, 中国文学艺术界联合会 주석 및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도 겸직하여 활동 중이다.[1] 초기 단편소설 <哦, 香雪>(1982), 중편소설 ≪没有纽扣的红衬衫≫(1983)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백 편 이상의 단편소설, 중・장편소설 및 산문을 발표하며 魯迅문학상과 老舍문학상 등 사십 여개의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다수 작품이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로 개작되는 등 꾸준히 대중적 인기를 얻어왔다.[2] 특히, 장편소설 ≪玫瑰门≫은 1988년에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수없이 再版을 거듭하면서 많은 독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어왔고, 1994년 발표된 장편소설 ≪無雨之城≫과 2000년 발표된 ≪大浴女≫는 중국에서 백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였다.[3] 2005년 郑州大学出版社에서는 당대를 대표하는 네 명의 작가로 金庸, 贾平凹, 铁

* 본고는 유은하(2020)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작성되었음.

** 서울대학교

1) 鐵凝은 2006년 11월 中國作家協會(Chinese Writers Association) 주석으로 당선된 이후 15년째 연임해오고 있으며, 또한 2016년 이후 中国文学艺术界联合会(Chinese Federation of Literary and Art Circles) 주석 역시 겸직하고 있다. 作協의 주석은 1949년부터 1981년까지 茅盾이, 1984년부터 2005년까지 巴金이 맡았다.

2) <哦, 香雪>는 1983년 전국 우수단편소설상을 수상 후, 1990년 영화로 각색되어 베를린 영화제 청춘영화최고상을 수상하였으며, ≪沒有紐扣的紅襯衫≫는 1985년 제3회 전국 우수중단편소설상을 수상하였고, 각색된 영화 ≪红衣少女≫는 中国电影金鸡奖最佳故事片奖 및 大众电影百花奖最佳故事片奖 등을 수상하였다. <六月的话题>는 전국우수단편소설상을, 산문집 ≪女人的白夜≫는 魯迅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永远有多远≫는 제2회 魯迅문학상, 小說月報百花奖, 老舍문학상, 北京시 문학창작상을 비롯하여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수필집 ≪遥远的完美≫는 제2회 冰心산문상을 수상하였다. 중국에서 영화화 되거나 드라마로 개작된 鐵凝의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 陸小雅 导演, ≪红衣少女≫(1985), 楊亞洲 导演, ≪大浴女≫(2007), 王好为 导演, ≪哦, 香雪≫(1989), 王好为 导演, ≪村路带我回家≫(1988), 陈国星 导演, ≪安德烈的晚上≫(2002), 陳偉明 导演, ≪永远有多远≫(2001).

凝, 余华를 선정하여 ≪中国當代作家评传丛书≫네 권을 출간하였는데, 편찬자이자 저명 작가인 贺绍俊은, 작가는 곧 하나의 넓은 세계이며 한 명의 작가가 곧 간단한 문학사라 말하며 당대 문학의 변천에 깊이 관여된 작가 중 한명으로 鐵凝을 손꼽고 높이 평가하였다.4)

鐵凝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논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鐵凝 문학 존재의 독특성과 복잡성이다. 鐵凝은 순문학 창작을 고수하는 작가로 인정받는 동시에 대중문화의 환영을 받으면서 주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贺绍俊은 鐵凝이 세 가지 신분 - 정치적 신분, 작가적 신분, 여성적 신분 - 을 가지면서 문학적 개성으로 조화롭게 승화시키고 있으며, 문학사 속에서 孫犁와 대등한 위치로서 재평가되고 주목받아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Laifong Leung 역시 鐵凝에 대하여, '향촌과 도시에 관한 감각적 이야기를 자유자재로 쓰는 다재다능한 작가로서, 글쓰기와 관료집단에서 동시에 성공적 커리어를 가지고 있으며, 다작을 해오면서도 그 어떤 유행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특기한다.5)

2. 아동기 文革 체험 세대로서의 文革 모티프

본고에서는 鐵凝이 아동기에 文革을 체험한 세대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그의 소설에 나타난 文革 모티프를 살펴보고자 한다. 1957년생인 鐵凝은 아홉 살이 되는 1966년 文革이 시작되어 아동청소년기에 오롯이 文革 10년을 겪었으며 부모와 떨어져 외가에서 고립된 세월을 보내기도 했는데, 소설에서는 그와 유사한 처지의 인물들이 자주 그려진다. 文革이 종료된 후 문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傷痕·反思 문학이 대부분 '지식인'들의 수난사를 위주로 한 文革 재현 서사였던데 비해, 鐵凝은 그 지식인들의 '자녀'이자 아동기에 文革을 겪은 세대로서 아동의 고통과 상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진공에 따르면, 흔히 傷痕문학의 작가는 세 부류 - 50년대에 정치적 비판을 받고 밀려났던 이른바 '우파' 작가들, 知靑 출신 작가들, 文革이 끝난 후 중년의 나이로 창작을 시작한 작가들 - 로 요약될 수 있는데, "모두가 지식인의 시각으로 文革을 바라보고 경험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6) 성근제 또한 文革의 실행 주체가 紅衛兵으로 단순화되고, 文革의 '대상' 혹은 '피해자'는 "지식인과 간부"로 규정되어 왔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戴厚英의 ≪人啊, 人!≫를 예로 들며 "1980년대 이후 집중적으로 생산된 문화대혁명에 대한 재현 서사들의 서사 주체가 대부분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을 특기한 바 있다.7)

1980년대 이후 文革 재현 서사들이 지식인 수난사 위주였다는 관점에서 볼 때, 鐵凝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文革 기억의 주체는 그 지식인이나 간부가 아닌 그들의 '아이들', 정확히는 '딸들'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전지적 시점의 화자는 지식인 부모가 겪는 일들을 서술하기는 하나, 아이들 - 대개 자매 - 의 고통과 외로움에 주목한다. 鐵凝과 동세대 작가인 余華(1960年生)의 경우에도 유년기에 겪은 文革 경험이 작품 곳곳에서 극화되어 나타나는데, 작중인물들이 학살당하거나 자살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고 처참하게 묘사된다면, 이에 비해 鐵凝의 소설에서는 가정 내의 갈등과 어린 자매의 심리가 상세히 나타나고 있다.

---

3) 국내에 ≪無雨之城≫은 '비가 오지 않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大浴女≫는 '목욕하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원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고에서 참고한 원전은≪玫瑰门≫, 人民文學出版社, 2006, ≪午后悬崖≫, 人民文學出版社, 2006, ≪大浴女≫, 作家出版社, 2013이며, 한국어 번역판은 ≪비가 오지 않는 도시 1, 2≫, 김태성 역, 실천문학사, 2007, ≪목욕하는 여인들≫, 김태성 역, 실천문학사, 2008을 참고하였다.

4) 贺绍俊, ≪铁凝评传 - 中国當代作家评传丛书≫, 郑州大学出版社, 2005.

5) Laifong Leung, ≪Contemporary Chinese Fiction Writers: Biography, Bibliography, and Critical≫, Routledge, 2016.

6) 김진공, <현대 중국의 傷痕文學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중국현대문학≫, 2008, 47호, pp. 97-114.

7) 성근제, <문화대혁명은 어떻게 재현되는가>, ≪중어중문학≫, 2014, 57호, pp. 61-89.

3. 아동기 트라우마의 형성과 표출

鐵凝은 주로 액자 구조를 통해 소설 내화(內話)에서는 주인공의 아동기를, 외화(外話)에서는 성인이 된 주인공의 현실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소설의 초반부에서는 주로 文革이라는 시대적 특수성과 관련되어 주인공이 경험하는 빅 트라우마가 재현된다.[8] ≪玫瑰门≫, ≪午后悬崖≫, ≪大浴女≫의 주인공은 文革 시기 신체적·성적(性的) 폭력이 동반된 잔혹 행위나, 타인을 악의적으로 모함하여 紅衛兵의 습격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큰 충격을 받는다. 주인공은 이 같은 행위를 보고 공포를 느낄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음을 목도하며 극도의 경멸감을 느끼게 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

≪玫瑰门≫의 眉眉가 겪은 가장 큰 트라우마 중 하나는 姑爸가 紅衛兵 小將들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眉眉가 姑爸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발가벗겨져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로 음부에 쇠꼬챙이가 찔린 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빠진 眉眉는 즉시 경련과 호흡곤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고, 그날 밤에는 고열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기까지 하는 등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증상은 眉眉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단 하루도 악몽을 꾸지 않고 잔 날이 없을 정도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준다. ≪無雨之城≫에서는 文革 시기 동네의 어른들이 모두 반혁명분자 수용소에 갇히고 남은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며 일탈 행위를 하는 과정이 묘사되는데,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을 돌아가며 강간하고 丘曄 역시 무리의 대장 아이에게 강간을 당해 성인이 되어서도 이 트라우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

한편 소설에서는 文革이라는 시대적 상황뿐 아니라 가정 내의 특성으로 인한 주인공의 심리·정서적 스몰 트라우마가 집중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동일한 시대에 아동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가족구성원의 성격 및 가정 내 분위기에 따라 아동들에게는 상이한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鐵凝 소설에 나타난 부모 또는 조부모는 자녀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제공하지 않으며,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이 억압되고 회피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余華의 ≪兄弟≫에서는 文革의 광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희생적이고 자상한 아버지 宋凡平과 어머니 李兰이 등장하며, 가족 구성원들끼리는 매우 친밀하여 서로에게 괴로움을 털어놓고 의지한다면, 鐵凝 소설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가족들이 서로의 비밀을 묵인하고, 과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주인공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공감 받을 수 없음에 극도로 괴로워한다. 주인공은 아동기에 직접 다른 아이를 해치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어 불안에 시달린다. 소설에서는 不通의 메타포로서 딸꾹질이나 변비, 잠꼬대와 같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이 재현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정신분열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 같은 증상들은 소통의 욕구를 억압받아 생긴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鐵凝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아동기에 文革을 경험하면서 부모와의 분리나 가정 안팎에서 충격적 사건을 겪은 일차적인 괴로움뿐 아니라, 그 고통을 가족 사이에서 언어화할 수조차 없는 이차적인 괴로움이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다.

4. 성년기의 합리화와 ‘默認’에의 가담

그렇다면 鐵凝 소설의 외화 또는 결말에 나타나는 공통된 패턴에 주목하여, 성년이 된 주인공이 어떻게 과거사를 재인식하고 현실에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술한 바와 같이, 소설의 내화에

8) 트라우마는 원인에 따라 빅 트라우마와 스몰 트라우마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불의의 사고나 가족 상실, 성폭행, 전쟁, 재해 등 일상을 넘어서는 커다란 사건으로 인한 극적인 영향을 빅 트라우마로, 개인의 삶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영혼에 상처를 입는 경험을 스몰 트라우마로 지칭한다. 김춘경, ≪상담학 사전≫, 학지사, 2016.

서는 문혁시기 아동기를 보낸 주인공이 경험한 잔혹 행위들과 가정 내 억압된 소통으로 인한 고통이 표출되고 있으나, 소설의 외화 또는 후반부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현실은 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년이 된 주인공은 (조)부모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들고 초라해진 그들에게 점차 연민을 느끼며 포용하게 되고, 고통스럽던 자신의 아동기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며,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 역시 합리화하며 지난 일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태도는 주인공이 아동기에 겪은 트라우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으로 볼 때,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동들은 방어기제의 여러 유형 가운데 '억압', '부인(否認)', '동일시(同一視)', '합리화' 등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여러 작품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합리화'의 경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9] 주요 인물들은 가족 또는 자신이 저지른 文革 시기의 과오를 정당화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치부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고 위안을 얻으려한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요 인물들이 아동기에 직접 가담한 타인의 살해 또는 타인에 대한 가해의 경험을 이삼십년이 지나 성인이 된 후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며, 또한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文革이 종료된 후 현재 시점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관점 및 감정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김창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 있어서 문혁은 가급적이면 빨리 그리고 영원히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만, 망각은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지 못하며 文革의 지속적인 기억과 규명, 되물음이 필요하다고 논한다.[10] 과거의 상처 극복을 위해서는 '진실규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생소한 것이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적 트라우마의 치료를 위해서는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진실규명은 인간의 본능이자 남은 이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불안과 무력감을 떨쳐내게 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鐵凝 소설에서 작중인물들은 부정적인 과거를 규명하거나 되물음하고 지속적인 기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결국엔 부정적인 과거를 없었던 것으로 '否認'하거나, 진실 규명을 포기하고 '默認'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午后悬崖≫는 소설의 대부분이 韩桂心이 '나'에게 죄를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후반에 이르면 韩桂心은 어머니와 자신이 은폐했던 陈非의 사고 경위에 대한 고백을 포기한다. 심지어 韩桂心의 고백 내용이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남편이 진단을 내린 대로 韩桂心은 정신병 때문에 헛소리를 한 것인지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게 된다. 韩桂心은 '나'에게 자신이 陈非를 죽인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이 상상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둘러댄다. 과거 고백으로 인해 남편의 사업을 그르쳐 자신이 버림받게 될 것 같으니 진상을 否認해버린 것이다. 소설 전반에 걸친 韩桂心의 고백 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일관적이며 당시 사건 상황에서의 개연성 또한 풍부하다는 점을 볼 때, 거짓 자백이라고 볼 여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정확한 眞相은 모호한 채로 묻혀 버린다.

≪大浴女≫에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더욱 적극적으로 포기된다. 이 작품에서는 ≪午后悬崖≫보다 더 강하게 '진실을 규명한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자포자기의 심리가 엿보인다. 이 소설에서는 많은 진실들이 끝까지 은폐되고 묵인되는데, 章妩가 唐医生과의 불륜관계에서 小荃을 출산한 일, 세 살배기 小荃이 맨홀에 빠지는 것을 小跳와 小帆 자매가 보고도 방관하여 죽게 한 일 등 불편한 진실들은 결국 밝혀지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唐菲의 친부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唐菲가 굳게 바라고 있는 것처럼 俞大声이 맞는지 아닌지, 독자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는 없다. 작품 속 화자는 때론 지나치게 상세하게 작중인물의 내면을 설명하는 반면, 정작 궁금한 사건의 진상은 확언해주지 않음으로써 독자의 답답함과 괴로움을 자아내는데, 특히 唐菲 문제에 있어서는 俞大声이

9) Arthur J. Clark에 따르면, '합리화'는 여러 문헌에서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어기제 중 하나로 사람들이 '그럴듯한 합리성의 연결 고리'를 통해 수용될 수 없는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Arthur J. Clark, ≪방어기제를 다루는 상담기법≫, 김영애 외 역,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p. 11, pp. 161-182 참고.

10) 김창규, <문화대혁명, 그 기억과 망각>, ≪민주주의와 인권≫10(2), 2010. p. 337.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암시가 소설 곳곳에 희미하게 흩뿌려져 있을 뿐이다. 친부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지 못한 채 唐菲는 죽을 때까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괴로워한다.

鐵凝 소설 속 인물들은 진상 규명을 중단하거나 또는 포기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잘못한 이가 처벌을 받거나 보상을 하지도 않는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끝까지 남겨둔다. 이로써 과거는 극복되기보다는 묵인되어버린다. 余華의 ≪兄弟≫의 경우, 李光头는 천하의 몹쓸 짓을 다 하는 불량배로 형제까지 배신하였지만, 소설의 결말에서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후회하며, 이미 죽어버린 宋钢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한다.[11] 이러한 다소 상투적이지만 안정감 있는 결론인 '사과'나 '화해', '처벌'이나 '보상' 또는 '반성' 등은 鐵凝 소설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궁극적 화해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거의 진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서로의 감정을 고백하는 소통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鐵凝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아동기 경험에서 강하게 표출된 소통의 욕망을 성인이 되어서 충족시키거나 해소하기보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부끄럽고 불편한 과거를 덮어둠으로써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5. 성년기의 태도 전환에 대한 고찰

소설의 내화와 외화의 괴리를 고찰한 결과, 주인공이 아동기에 겪은 트라우마와 상처는 성년기에 망각되어 가고, 과거 이야기에서 강렬하게 표출되었던 과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의 의지 역시 흐려지며, 결국 주인공이 과거를 합리화하고 묵인하는 태도로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鐵凝 소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당대 중국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위주로 고려한다면, 작품들을 과거의 문제와 상처들을 외면하고 망각하려는 현 중국사회에 대한 정치사회적 알레고리로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文革이라는 역사적 사건 및 작품이 창작된 80년대말-90년대의 사회적 배경이나 분위기를 관련짓는다면, 성년이 된 주인공이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규명하려 하지 않고 덮어두려는 태도는, 文革 종결 이후 중국 당국이 대약진운동이나 文革과 같은 국가적 과오에 관한 논의를 금기시하며 '망각을 강제'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12] 또한, 소설에 나타난 주인공의 가정은 중국사회의 축소판이며, 주인공의 가정 내에서 소통이 억압되고 회피되는 양상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중국 사회 전체의 성격을 함축하여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不通의 메타포로서 등장인물 개개인에게서 발현된 딸꾹질, 잠꼬대나 정신분열 등의 증상들은, 집단적 不通으로 인한 사회의 부작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大浴女≫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가정의 치부를 언급하지 않는 尹亦寻이나, 자신의 과거 모습을 지워버리고자 성형수술을 일삼는 章妩는, 국가적 체면을 지키고자 치부를 묻어둔 채 외적 성장에 치중해온 중국 당국을 표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尹亦寻과 章妩에게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尹小跳 자매 역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거나 반성하지 못한다. 마치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적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이 부모가 됐을 때 자신의 아이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이

---

11) 李光头는 宋钢의 유서를 "한 번 읽을 때마다 자신의 뺨을 한 대씩 후려치며 통곡했다. 宋钢이 죽고 나서 李光头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위화, ≪형제≫, 최용만 역, 휴머니스트, 2007, p. 856.

12) 錢理群은 <망각을 거부하라>에서, "중국인과 중국의 지식인에게 20세기의 중국적 경험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기억이기도 하지만, '반우파투쟁'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89년 대학살' 등처럼 차마 돌이켜볼 수 없는 고통과 굴욕의 기억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錢理群은 특히 1981년 <關于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이 채택된 이후,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당국이 "망각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사의 피냄새는 일상 속에서 점점 묽어져 소멸되게" 됨을 경각시키고, 1990년대 이후 시대적 분위기에 대하여 엄중히 비판을 가한다. - 錢理群, <망각을 거부하라>, ≪고뇌하는 중국≫, 장영석·안치영 역, 길, 2006.

는 것과 마찬가지로, 鐵凝 소설 속 주인공의 부모 세대에서 문제시되었던 ‘반성의 부재’와 ‘소통의 부재’는 주인공의 세대로 대물림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작품들은 작가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상처와 아픔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성장소설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화자의 서술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玫瑰门≫이나 ≪大浴女≫에서 화자가 아동기의 주인공을 관찰하고 서술할 때와, 어른이 된 현재의 주인공을 관찰하고 서술할 때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화자는 어린 시절의 주인공이 선량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에피소드를 내화 곳곳에서 피력해주며, 그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성년이 된 주인공을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에서는 우호적 기색을 느끼기 어렵다. 화자는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부정적 시선까지 섬세하게 관찰하고 서술함으로써, 현재의 주인공을 결코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주인공의 개인사는 정치사회적 알레고리로서의 거창한 의미를 갖지는 않더라도,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鐵凝은 文革 기간 외가에서 거주하였는데 이 경험들이 작품들 속에 다량 반영되어 있다. 苏眉가 어린 나이에 외조모 司猗纹으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수모를 당한 것이 실제 鐵凝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같이 치욕적이고 괴로운 기억을 소설로 풀어낸 것은 그 자체로 용기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午后悬崖≫나 ≪大浴女≫에서는 대약진운동과 文革 시기에 어린 아이였던 주인공들을 순진무구한 피해자로서만이 아닌, 또 다른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로서 그리고 있는데, 흔히 아동을 전쟁이나 재난 상황의 피해자로만 인식하고, 가해자로 바라보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소신 있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午后悬崖≫에서 화자 ‘나’는 韩桂心을 보고 생각한다. ‘참회는 용기가 필요하고 시간은 부차적인 문제며, 30년, 40년, 100년, 1000년이 걸리더라도 참회를 시도하는 것이 바로 용기이다’라고.[13] 鐵凝 작품에서 중년의 나이에 이른 주인공들은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이 훗날 노년기에 이르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이후 鐵凝의 작가로서의 활동은 80-90년대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간간이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 연륜이 더 쌓인 鐵凝이 문학 안에서 과거 트라우마와 상처, 역사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고 처리해나갈지 귀추를 주목하고자 한다.

13) “是忏悔就需要勇气, 时间是次要的, 无论事隔30年, 40年, 100年, 1000年, 敢于忏悔本身就是勇气。” 鐵凝, ≪午后悬崖≫, 人民文學出版社, 2006. p. 49.

중국시트콤의 문화정치*

―『閑人馬大姐』시리즈를 중심으로

류호현**

<目　次>

1. 들어가며
2. 1990년대 이후 중국사회의 성별 분화 현실과 담론환경
3.『闲人马大姐』로 보는 시트콤 속의 성별문제
4. 나오며

1.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중국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사회계층의 분화는 다양한 기제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이 시기 계층분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의 분화에 있어 개인의 능력과 사회구조 및 제도 등의 요소가 가장 주요하고 결정적인 기제로 꼽혔지만, 성별기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관련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1) 남녀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균형 현상이 확대되고 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성별 간의 차이성, 성별의식, 성별평등, 성별공정(性别公正) 등의 주제를 둘러싸고 새롭게 성별 문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화적·담론적 맥락 속에서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였으며, 성별 차이성과 그에 기인한 성별의식을 주제로 한 여러 문예 작품들이 등장하는 등,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인식 및 문화적 상상은 전에 없이 풍성해졌다.2)

이 시기 시트콤 역시 당대 중국 사회의 성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적극 반영하여 이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특히 여성이 가정과 일터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갖가지 인식적 현실적 곤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그 해결책에 관한 토론을 제기했다. 시청자들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의 곤경을 인식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웃음 속에서 성별 간의 상호 이해와 화합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였다.

본문에서는 전환기 중국의 사회구조적 변형 과정 속에서 확대된 남녀 성별 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균형 문제가 시트콤에서 다루어지는 구체적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시트콤의 성별문제 반영 이면에 존재한 당시의 담론배경을 개괄적으로 논술한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0년대 중후기의 성별 담론 발전 경향과 그 현실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현대 중국의 가정과 사회에서 성별문제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시트콤에서 표현되고 처리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여러 시트콤들 중 ≪한가한 마따제(闲人马大姐)≫ 시리즈의 에피소드에 표현된 가정 내 경제권력 문제, 가사노동의 경제가치와 분배 문제, 성별역할 문제 등에 대한 편단을 다루면서, 시트콤이 성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중적 인식을 인도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

* 고려대학교

1) 张宛丽,「现阶段中国社会分化与性别分层」,『浙江学刊』2004年 06期, 206쪽 참조.

2) 王宇,「90年代性别差异性文化想像的尴尬及其原因」,『文艺评论』, 2002年 第2期, 42-43쪽 참조.

2. 1990년대 이후 중국사회의 성별 분화 현실과 담론환경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전체 사회의 계층분화라는 맥락 속에서, 남녀 성별 사이의 사회경제적 지위 분화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기존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이론적, 제도적으로 실현되었던 정치적 사회적 평등, 무엇보다도 취업과 노동 등 경제생활 상의 남녀평등 체계는 시장경제담론 하에 사실상 중단되었다.3) 여성은 격화된 노동시장의 경쟁구도 속에서 상대적 약자가 되었으며, 이는 남녀 성별 간의 사회경제 지위의 불균형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전환기 중국의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성별은 중요한 계층분화기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렇다면 전환기 중국의 사회계층 구조 내에서 성별분화의 구체적인 양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2002년 발표된 『当代中国社会阶层研究报告』4)에서는 직업분화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자본의 소유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개혁개방이후 당대 중국의 사회 계층 구조를 10대 계층으로 분류하였다. 张宛丽는 이러한 10대 계층 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성별 분포 구조를 분석하여, 남녀 성별 간 계층 지위 상의 분포가 비대칭적이며 그 격차 역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사회경제적 우세계층일수록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사회경제적 약소계층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가정주부와 실업, 반 실업, 대업(待业), 미취업 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약세집단에 속하는 여성들의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 약화라는 현상이 이전처럼 특정 연령대(주로 중노년) 여성에 한정되지 않고 여성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5)

이와 같은 여성 지위의 전체적 주변화와 약세화 현상은 우선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바가 크다. 즉 노동의 시장화와 경쟁화라는 맥락 속에서 형성된 성별 간 취업기회의 불균형에 의한 것이다. 개혁개방 이래로 전통적 계획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대체되면서, 공업화와 산업구조조정, 생산요소의 재배치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동 역시 시장 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노동적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문혁시기 하방했던 약 1,700만 명의 지식청년들이 속속 복귀함에 따라, 노동시장은 곧 심각한 공급과잉 현상에 직면했다. 이러한 형세는 노동시장의 경쟁을 더욱 극렬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노동력의 선택과 사용에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해 주었다. 이는 채용의 성별 분포에 있어 남성 노동력에 대한 선호와 여성 노동력에 대한 차별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성의 취업과 노동 기회는 채용광고 단계에서부터 채용과정, 그리고 재취업 등에 이르는 매 단계마다 남성에 비해 적거나 심지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했다. 그리고 일단 샤강(下岗)된 여성들의 재취업 난이도는 첫 번째 취업에 비할 수 없이 높아져, 재취업률 역시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기회 불균등, 특히 샤강 이후 경력 중단의 원인은 임신과 생육과 관련된 여성의 생리적 특징이 회사의 이익극대화 목표와 충돌을 일으킨다는 인식으로 인해 취업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남성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6)

---

3) 李春玲은 남성과 여성이 소유한 경제자원, 문화자원, 정치자원을 비교하여, 이러한 자원 소유와 획득기회에 있어 남녀 성별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차이와 불균형은 경제자원과 정치자원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李春玲, 「城镇的社会阶层分化与性别」, 中国社会科学院院报』 2002年 第4期 참조.

4) 陆学艺 주편, 『当代中国社会阶层研究报告』,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2年 참조.

5) 张宛丽, 「现阶段中国社会分化与性别分层」, 『浙江学刊』, 2004年 06期, 204-205쪽 참조.

6) 여러 기업들은 채용광고 단계에서 아예 여성을 채용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혹여 여성을 채용하더라도 연령과 혼인 여부 등의 조건을 통해 채용범위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취업 선발 과정에서 역시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여성보다 평균적 능력의 남성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단행 될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우선적으로 '조정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체제변화 과정에 따른 중

여성의 약세화에는 당시의 담론적 경향도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자연적 생리적 특징 특히 생육과 관련된 특수성을 핑계로 이른바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라(妇女回家)'는 담론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담론의 제기는 성별 간의 '차이성'에 대한 편협하고 본질주의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상 여성을 취업경쟁 대열에서 축출하여 노동력 공급 과잉 현상의 사회적 압력을 완화하려는 미봉책이었다.7)

이처럼 노동력 시장의 고도 경쟁은 여성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적, 담론적 경향을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취업기회의 성별 분화를 야기하였다.8) 불공평한 경쟁구조로 인하여 여성은 점차 사회경제활동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가정 회귀(回归家庭, 妇女回家)' 현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결국 전환기 중국의 사회구조 변화의 영향 속에서 여성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하게 되었다.

이상의 논술에서, 우리는 이미 성별이 전환기 중국의 사회구조 속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요한 계층분화기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사회적 상황은 여성이 '차별'적 현실로부터 '차이'를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개혁개방이후 특히 1990년대 중후반기에 들어 여성주의 운동과 이론적 탐색이 더욱 흥기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성별 간 '차이성'의 인식은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한 관점은 상술한 것처럼 본질주의적 시각에서 여성의 생육에 관한 생리적 차이성을 인식함으로써 여성에게 제한된 성별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한 '여성의 귀가(妇女回家)' 요구는 여성의 활동 영역을 가정으로 한정지음으로써 여성을 사회경제적 영역으로부터 주변화 시키는 담론 환경을 조성하였다. 반면 1990년 중반 이후 서구의 젠더이론의 유입과 중국내 여성주의 운동 및 이론의 발전, 국가의 성별의식에 대한 관심 제고 등 담론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성별 '차이성'에 대한 인식은 '성별공정'의 제기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담론 경향을 형성하게 된다.

'남녀평등'과 '성별공정' 개념에 대한 정의와 논쟁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술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9) 본문이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지점은 이러한 이론적 담론적 변화가 내포하는 사회적 의미이다. '공정'으로 '평등'을 대체하거나, '공정'의 기준에서 '평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는, 기존에 계급정체성에 수렴함으로써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성별정체성이 전환기 중국의 사회구조적 변화라는 내부적 요인과 서구 이론의 유입이라는 외부적 영향 속에서 주목받고 부상하여 다시금 분화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3.『闲人马大姐』로 보는 시트콤 속의 성별문제

시트콤은 다양한 신분을 가진 여성들의 현실을 주로 가정과 사회 두 영역의 무대로 다루었는데, 전자는 가정류 시트콤에서, 후자는 직장류 시트콤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가정류 시트콤 중『闲人马

대형국유기업개조(国有大中型企业改造)과정 속에서, 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샤강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여성 노동자의 퇴직 연령이 45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사실상 육아와 가정경제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년 여성이 잠재실업인구가 되었다.『闲人马大姐』의 주인공 马大姐가 극 중에서 "조기퇴직(提前退休)"한 연령이 정확히 만 45세인 극중 설정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戴锦华(배연희 역),『性别中国 성별중국—중국 영화와 젠더수사학』, 서울:여이연, 2009, 27쪽 참조.

7) 闵冬潮,「平等的中断——反思20世纪90年代以来的男女平等与性别公正问题」,『南开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3年04期, 32쪽 참조.

8) 李斌,「性别意识的缺席与在场——改革时期"妇女回家"论争透视」,『山西师大学报(社会科学版)』2006年 06期, 112-115쪽 참조.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陈慕华(1996), 郭志鹏(2003), 白玫(2006), 杨丹(2008, 2009) 등의 연구 성과를 참조.

大姐』 시리즈에서 성별문제 특히 여성의 현실을 표현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다. 가정시트콤에서 가정 내의 성별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두 가지 주제는 가정의 경제적 수입에 대한 것과 가사노동에 대한 것이다. 이 두 주제는 서로 별개의 영역이면서도, 결국 가정 내 구성원의 지위와 권력의 균형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가정시트콤은 이 주제들을 다룸에 있어 다음 세 가지의 방식을 사용한다. 1) 여성인물 자신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빌려 문제를 제기한다. 2) 남녀의 입장이 역전된 상황설정을 통해 역지사지의 사고를 유도한다. 3) 여성의 가정 내 역할과 지위를 중요한 것으로 묘사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처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불공평한 성별의식과 관념의 재조정을 시도한다.

시트콤에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주로 보모(保姆) 혹은 가사도우미와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 조명된다. 『闲人马大姐』 제 257편 「劳力互换」 편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여성의 노동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어 사회적 함의가 풍부하다. 이 편에서, 马大姐와 그 이웃인 刘奶奶는 서로 가사노동의 고됨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당시 유행하는 '보모 고용(雇保姆)' 열기에 대한 주제로 옮겨간다. 두 사람 모두 보모를 고용함으로써 가사노동의 고됨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다 두 사람은 돈을 쓰지 않고 보모 고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노동력 교환(劳力互换)'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들은 격일로 돌아가며 상대방 가정의 가사노동을 해주고 서로 동일한 보수를 지불하는 노동력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에서 刘奶奶와 马大姐가 서로 평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의 각 조항을 검토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의미심장하다.

马大姐 : 第二, 每天的工作要是主人满意后方可收工, 时间定为早八点到晚八点。
刘奶奶 : 停！那不是工作十二个小时了吗？现在政府可颁布了劳动法了, 啊？全国都是八小时工作时间。咱可不能违法呀。
马大姐 : 谁说不是？那就改！那就, 时间定为早十点至晚七点。

이 단락에서 두 사람은 정식 계약을 통해 서로의 의무와 책임 및 권리를 규정한다. 그 중에 특히 두 부분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첫 번째는 이들이 '갑방을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사노동의 고용-피고용인 사이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평등한 계약관계임을 명시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는 각자의 노동 시간을 국가가 규정한 노동법에 의거하여 8시간으로 정하고, 일요일 하루만큼은 휴일로 보장하는 대목이다.

'노동법'에 의거한 보모 계약 체결이 암시하는 것은 평소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주부들의 노동이 사실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부(주로 여성)의 가사노동은 보통 맨 처음 马大姐가 제기한 것처럼 하루 종일 규정된 시간 없이 이어지는 노동이다. 게다가 당연한 역할로 인식되기 때문에 고용된 보모처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가정주부의 처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용된 보모보다 못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대목은 가사노동 역시 사회에서의 노동과 동등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경제적 가치의 인정,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의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여성들의 관점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居委会 장면에서는 马大姐와 刘奶奶의 이 실험적인 劳力互换 실천에 대한 주민사회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보통 중국시트콤에 등장하는 居委会장면은 각종 의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유분방한 토론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사회 공공영역의 모습을 보여준다. 단, 여기에서 전·현임 주민위원회 주임(居委主任)들의 발언은 보통 '바람직하고 정확한'가치 지향을 대변하는데, 이 편에서도 현임 주임 小梁과 전임 주임 孟大马의 대사는 '정확한' 가치 평가와 방향 설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小梁은 마따제의 실천이 창의성이 충만한 "가정 정치 개혁의 새로운 조치(家政改革的新举措)"라고 평가한다. 한편 孟大马의 대사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 '실험'의 본질적 의미를 지적하며, 이 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孟大马：小马的事迹很有代表性。现在的家庭主妇在家里受轻视的现象很严重。大家觉得家庭主妇在家里做家务事是天经地义。我们应该让大家都明白我们的劳动也是有价值的！
艾　嘉：我就支持我妈这么做。您看她从刘奶奶家干完活回来, 多高兴啊？工钱数了一遍又一遍, 嘴里还念叨着, “这钱要是不换回去多好呀？”

孟大马는 가정주부를 경시하는 사회풍조와 여성의 가사노동을 당연시하는 관념에 엄중한 비판을 가하면서, 주부를 대변하여 “우리의 노동 역시 가치 있다(我们的劳动也是有价值的)”라는 선언적 발언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孟大马의 말을 이어 马大姐를 지지하는 딸 艾嘉의 대사 역시 인상 깊다. 艾嘉가 묘사하는 “품삯을 세고 또 세는(工钱数了一遍又一遍)” 马大姐의 모습은, 희극적이면서도 애잔함을 불러일으킨다. 艾嘉의 이 대사는 노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행위가 여성의 자기규정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암시하는 한편, 가사노동 역시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함을 표명하고 있다.

이후 에피소드가 전개됨에 따라 두 사람은 계약에 의거하여 하루씩 돌아가며 상대방 가정의 온갖 가사노동을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이왕 상대를 ‘고용’한 바에야 최대한 상대의 노동력을 이용하겠다고 마음먹는 데서 발생한다.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업무 날짜를 기다려 이틀 분량의 온갖 가사노동을 전가한다. 심지어 상대의 업무 날짜를 노려 이웃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준비작업부터 사후처리에 이르는 대량의 가사노동을 전가하기도 한다. 양자 간의 보복성 노동착취행위는 점입가경의 국면으로 접어들다가 결국 한 쪽이 과로로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면서 이 계약 관계는 끝이 나고 만다.

이러한 극단적인 보복과 재보복의 연출은 단순히 희극적 효과만을 위한 안배는 아니다. 이는 가사노동을 주부의 당연한 의무로 여기게 될 경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엄중한 노동 착취 행위가 될 수 있음을 희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劳力互换」편은 생활 속에 은폐되고 비 가시화된 주부의 노동을 가시화하고, 무보수노동을 유보수노동으로 재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을 사회적 정규 노동의 영역으로 편입시킨다. 이로써 사회적 영역에서 축출되고 주변화된 가정주부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바로잡고, 가정주부의 사회적 위치를 제고하길 촉구한다.

여기까지 시트콤이 주부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歧视를 해소하는 문화작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주부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승인’하고 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타파하는 것만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는데 부족했다. 왜냐하면, 이는 오히려 가사노동과 여성 사이의 연결 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기존의 성별역할관념을 합리화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더욱 근본적인 과제는 소위 ‘남자가 외조, 여자가 내조(男主外, 女主内)’, ‘남자는 사회, 여자는 가정(男社会, 女家庭)’,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집으로(男工作, 女回家)’ 등 전통적 성별역할의 고정관념을 수정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성별관념과 문화를 재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중국의 가족시트콤에는 상술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토론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토론은 대체로 신-구 가치관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통해 진행된다. 그리고 보다 진보적인 인식을 가진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통해 기존의 관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관념이 제창된다. 그런 의미에서 『闲人马大姐』 제 244, 245편「家务劳动」 에피소드에서 벌어지는 刘勇, 艾嘉과 刘奶奶 사이의 토론은 전형적이다.

刘奶奶：什么？她--看电视让你刷碗？！ 你怎么就那么窝囊啊？你还是个男人吗？
刘　勇：我怎么就不是男人哪？哎哟喂, 奶奶您看, 您这旧观念。艾嘉在外头辛辛苦苦工作一天累了, 该多歇会儿啊, 是吧？我越是男人, 越得多照顾她。

（略）
刘　勇：我跟艾嘉，我们不是黄世仁和喜儿，我们是新新人类！

연인 사이인 刘勇과 艾嘉는 “여성이 외조하고, 남성이 내조(女主外、男主内)”하는 역할분담 모델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를 보는 刘奶奶는 내심 불만이 가득하다. 하지만 刘勇은 성별역할에 대한 刘奶奶의 ‘구식관념(旧观念)’에 반박한다. 여기에서 그가 『白毛女』의 주인공 “황스런과 싱얼(黄世仁和喜儿)”와 “신신인류(新新人类)” 를 대비시키는 부분은 희극성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성별역할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이 사실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봉건적 착취 관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희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刘勇의 논리에 막혀 분통이 터진 刘奶奶는 이번에는 艾嘉를 훈육하려고 하지만, 艾嘉 역시 만만치 않다.

刘奶奶：让自个儿家男人刷碗干活做家务，这错还小呀？
艾　嘉：男的刷碗怎么了？刘奶奶，都解放这么长时间了，您怎么还这么封建？
刘奶奶：哎呀，甭管怎么解，甭管怎么放，男女呀，不能也全一样！要不怎么男人不生孩子呢？
男主外，女主内。这规矩到什么时候也不能变。

여기에서 柳奶奶의 대사는 여성의 생리적 차이성을 핑계 삼아 여성을 가사노동과 연결시키는 고정관념을 대변하고 있다. 艾嘉는 刘勇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념을 봉건적이라고 비판하며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가사노동을 담당할 수 있고 담당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艾嘉와 刘勇이 제시하는 ‘건강한’ 성벽역할 관념은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제시된다. 두 사람은 남녀 중 어느 한쪽이 가사를 전담하는 모델에서 벗어난 ‘공평’한 역할분담 모델을 탐색한다. 첫 번째 모델은 ‘순번제(轮流制)’로 이틀씩 번갈아 가며 담당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 모델은 ‘수량할당제(数量制)’로, 씻은 그릇 수를 세어 공평을 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두 시도 역시 제도적 불완전성이 드러나자, 이들은 ‘제 3의 노선’을 선택 하게 된다. 즉 완전히 공편한 운에 맡기는 ‘가위바위보(淬钉壳)’에 의한 당번 결정이다. 하지만 매번 艾嘉가 승부에 이기면서 刘勇에게 가사가 몰리자 이 역시 ‘공정’할 수는 있지만 완벽한 분담 방식은 아님이 드러난다.

이 에피소드는 가사노동의 분담을 주제로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성공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젊은 남녀의 탐색은 평등의식에서 출발하여 전체 사회가 함께 건강하고 합리적인 역할분담 모델을 모색해야 함을 보여준다. 가위바위보에 진 刘勇이 설거지를 하러 가며 남기는 대사는 관중과 사회를 향해 이 주제에 대한 후속적 토론과 사유를 요청한다 : “哎呀，还是得想个根本解决的方法。”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시트콤에서 刘勇과 艾嘉같은 젊은 인물형상은 종종 진보적인 성별관념의 전파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의 ‘대화상대’는 이전 세대의 대변자 刘奶奶나 남성우월주의의 대변자 같은 남성 인물이다. 두 진영 사이의 토론은 성별 역할에 대한 신-구 관념을 충돌시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는 변증법적 과정이다. 이는 웃음이라는 안전장치 속에서 벌어지는 신-구의 관념 사이의 투쟁이다. 이 좌충우돌의 투쟁이 선사하는 웃음과 웃음이 지나간 뒤의 여운 속에서, 관중들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별의식에 대해 돌아보게 된다.

4. 나오며

전환기 중국의 체제변혁 과정에서 부상한 성별문화와 성별담론의 사회배경 속에서, 시트콤은 이 시기 여성이 직면한 여러 곤경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관련문제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문제의식을 제

고했다. 시트콤은 가정과 사회라는 두 배경 속에서 여성의 곤경을 희극적으로 묘사하면서, 변화하는 중국 사회가 성별문제와 관련된 인식을 건강한 방향으로 갱신해 나아가기위한 토론을 제기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현실 속에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 입장과 의견을 극중 인물의 직접적인 대사를 통해 의제화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감내하고 있는 여러 불공정한 대우와 인식들을 교정하도록 촉구한다. 이를 통해 주변화 되고 약세집단화 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한편, 다시금 사회의 중요한 갈등요소로 부상한 성별문제를 돌파하고 사회적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문화를 모색한다.

2021年度 韓國中語中文學會 春季學術大會

4月 17日(土) 13:20~14:40

어학(1) 분과

❖ 언어학

조태련(한양대) <서유견문>에 보이는 중국어 수용 양상

장준익(南京大學) 한국 한자음을 통해 보는 중고음 3, 4등 개음의 차이

안영희(雲南民族大學) 『五大眞言』(1485)의 梵-中-韓 음운 대응 연구

김시현(北京師範大學) 한중 가열조리동사 의미분석 비교연구
— ‘삶다(煮)류’ 어휘장을 중심으로

≪서유견문≫에 보이는 중국어 수용 양상

조태련*

<目　次>

1. 서론
2. 유길준의 언어자본
3. ≪서유견문≫의 중국어 수용
4. 결론

1. 서론

≪서유견문(西遊見聞)≫은 계몽기라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동・서양 각국의 지리・역사・정치・법률・행정・교육・군사・과학기술・학문・풍속 등 사회 제반요소를 국한문혼용체로 작성한 책이다. 저자인 유길준(兪吉濬)은 조선 최초의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과 미국에서 외국의 실정과 사상을 몸소 체험한 개화 사상가이자 한국어, 한문, 일본어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한 멀티 링규얼 인재였다. 유길준은 스스로의 객체화된 문화자본인 ≪서유견문≫을 통하여 한국어학사 내지는 국한문혼용체 사용의 역사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유견문≫의 문체는 근대계몽기 국한문혼용체의 출현에 촉매작용을 하였으며, 근대 계몽기의 언어사 발전과 언어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분석대상이다.

지금까지 근대계몽기의 국한문혼용체의 유형과 의미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1]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유견문≫의 국한문혼용체의 특징은 통사론적으로는 한국어가 바탕이 된 國文의 성격을 띠고 형태론적으로는 중국어가 바탕이 된 한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류하였다. 또한 한영균은 ≪서유견문≫에 사용된 용언구에는 한문 문법의 간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2] 그럼에도 중국어 측면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언어는 인간의 활동 및 사유체계를 외부로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작품은 생산자인 작가의 체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볼 때 ≪서유견문≫의 국한문혼용체 특징에 대한 분석은 유길준의 언어 자본(linguistic capital)[3]에서 출발하여야 함을 명시해준다.

≪서유견문≫이 출간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된 데에는 유길준의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문화 자본은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4]가 개념화한 것으로, 문자 능력, 교육에의 접근권, 문화 예술 생산물의 향유 능력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5] 또한 '언어자본'은 문화자본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6] 이렇듯 ≪서유견문≫의 언어적 측면의 분석을 통

---

* 한양대학교

1) 임상석(2008), 김주필(2007), 김흥수(2004), 한영균(2013), 김영민(2009; 2012), 이병근(2000), 허경진(2004) 등.

2) 한영균, <近代啓蒙期 國漢混用文의 類型・文體特性・使用樣相>, ≪口訣硏究≫ 第30輯, 2013.

3) 피에르 부르디외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및 문화비평가이다. 부르디외 사상의 핵심이며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자본(capital)', '장(field)', '하비투스(habitus)'가 되겠다.

4) 부르디외는 사회학을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 기술하는 학문으로 파악하였다.

5) 한국문학평론가협회 著,『문학비평용어사전・하』, 국학자료원, 2006.

해 체화된 유길준의 언어자본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주요 분석도구인 하비투스(habitus)와 언어의 장 개념은 부르디외의 이론인데, 하비투스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개인이 획득한 영구적인 하나의 성향체계이다. 성향은 각자의 객관적인 생존조건에 의해 개인에게 내면화된 태도, 지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경향으로서 행동과 지각・사고의 무의식적 원칙으로 기능한다. [7] 장(field)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특정 이념이나 사물을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적 공간이다. 언어의 장은 바로 유길준이 언어를 통하여 맺어진 일련의 사회적 공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회학적 이론과 사회언어학적 이론의 접목을 통해 ≪서유견문≫에 나타난 유길준의 언어자본과 그에게 체화된 언어 하비투스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서유견문≫에 실린 어휘나 문장을 통해 중국어의 특징에 해당된 점을 귀납・정리하여 가시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유길준의 언어자본

부르디외는 하비투스를 사회구조(장, field)와 개인의 행위(실천)사이의 인식론적 단절을 극복하는 매개적 메커니즘으로 개념화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이 장 내에서 통용되는 규범과 규칙, 즉 객관적 질서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체화되는 전 성찰적인 인지・이해의 도식이다. 예를 들면 언어 하비투스는 가족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 공간 안에서 반복적인 훈련과정을 거쳐 행위자들의 신체에 각인된다.

≪兪吉濬年譜≫를 기준으로 한문 습득시기와 언어의 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길준의 본관은 杞溪이며, 조선조 중기 이래 老論系의 명문후예로 학문을 숭상하는 사대부 집안 출신이다. 1800년대 이후 유씨 집안은 그의 조부 兪致弘이 醴泉郡守와 淸松府使職을 역임한 이래 官界로의 진출보다는 유학자의 배출에 힘썼다.

유길준은 8세(1863년)부터 조부에게서 한학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14세 때(1869년)에는 외조부 李敬植으로부터 四書五經 등 과거를 위한 본격적인 漢學수업을 받았다. 16세 때(1871년) 조부의 소개로 朴珪壽(1807~1877)[8]를 만나게 되었고 17세에는 유학자 白渠 兪萬柱의 洛山書齋에서 柳定秀・閔泳翊과 함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漢學에 깊이를 더하였다. 18세 때(1873년)는 박규수와 다시 만나 魏源의 ≪海國圖志≫를 건네받고 숙독하여 세계 지리・역사와 해외지식을 접하면서 견문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유길준의 언어 자본은 조선시대의 기득권층인 양반의 자제로서 經書・史書・詩作 등 이른바 과거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축적되었고, 과거에도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춘 인재였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과거를 포기하고 신지식의 수용에 힘썼다.

그는 조선사회의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그를 둘러싼 '장' 또한 엘리트 집단이었으며, 박규수를 통해 金玉均, 朴泳孝, 朴泳敎, 徐光範, 洪英植, 金允植 등 당시 젊은 양반자제들과 개화 지식을 공유하였다.

2. 유길준이 읽은 책을 보면 과거준비를 위한 四書三經뿐만 아니라 ≪海國圖志≫ 등을 비롯하여 중국에서 간행된 근대개화사상의 新書들과 박규수가 燕行史시절 중국을 왕래하며 전해 준 한문으로 번역된 서적들도 있었다. 10년 이상 한학을 공부한 그는 박규수를 만나고부터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사정에 눈을 떴지만, 한자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

6) 심성재, <언어와 상징폭력 - 피에르 부르디외의 언어이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

7) Patrice Bonnewitz 著, 문경자 옮김, ≪부르디외 사회학 입문≫, 현대신서 26, 동문선, 2000.

8) 朴珪壽는 燕巖 朴趾源의 손자로 영・정조 시대의 실학을 계승한 인물로 개화의 선구자이다. 그는 두 번의 중국 燕行史를 통해 중국 문인들과의 교류에 큰 공을 세웠고 중국 및 서구 등 여러 나라의 동향을 견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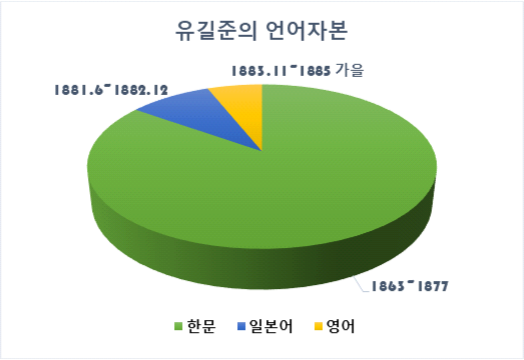
다음의 年譜는 유길준의 일본 유학 전 그의 언어생활과 사회관계자본을 잘 나타내준다.

<표 1> 일본 유학 전의 〈兪吉濬年譜〉

연도	주요사건
1863년 (哲宗14년 癸亥, 8세)	醴泉郡守・淸松府史등을 역임한 祖父 로부터 漢學을 배우기 시작하다.
1867년 (高宗4년 丁卯, 12세)	丙寅洋擾로 이웃고을의 書堂에 입학하여 글을 배우다. 당시 글재주가 뛰어나 그 소문이 광주 인근에 두루 퍼졌다 한다.
1869년 (高宗6년 己巳, 14세)	서울로 이사 후 都正을 지낸 外祖父에게 漢學수업을 받다.
1871년 (高宗8년 辛未, 16세)	외조부가 朴珪壽를 소개하여 해외에 관한 서적을 탐독하다.
1872년 (高宗9년 壬申, 17세)	傳統儒學者 兪萬柱의 洛山書齊에서 柳正秀・閔泳翊등과 漢學을 受學
1873년 (高宗10년 癸酉, 18세)	朴珪壽에게서 魏源이 지은 ≪海國圖志≫를 건네받다.
1875년 (高宗12년 乙亥, 20세)	과거준비를 위한 공부를 포기하고 時務學과 新學問에 전념하게 된다.
1876년 (高宗13년 丙子, 21세)	江華島條約締結시 譯官 吳慶錫을 따라 협상현장 江華島 다녀오다. 오경석을 통해 중국에서 간행된 新書를 빌려보다.
1877년 (高宗14년 丁丑, 22세)	과거의 폐단을 지적한 <科文弊論>을 저술하다.

한편, ≪兪吉濬全書≫[9]에 실린 그의 작품 중 上疏文・矩堂詩稿・墓誌銘・書・傳・雜著 등은 순한문으로만 작성된 것이며, 정치와 경제에 관련된 글들은 순한문과 국한문혼용체로 작성되었다. 이로 보아 유길준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한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언어 하비투스의 체현이기도 하다.

또한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언어적 실천은 언어의 하비투스와 언어 시장 간의 관계로 설명된다. 하비투스 이론에 의하면, 유길준은 모스와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는 언어 시장 속에서 모스의 문화자본과 언어자본을 암묵적으로 전수받게 된다.



<兪吉濬年譜>를 기준으로 그는 외국어를 약 3년 7월 가량 배웠으며(일본에서의 1년 7개월과 미국에서의 2년 남짓한 기간), 한문 受學기간과 비교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이 말은 그에게 있어 한문을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이 가장 쉬웠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언어 하비투스 + 언어시장 = 언어적 표현 혹은 담론'[10]이라는 부르디외의 언어적 표현의 공식에 부합된다.

이는 또한 유길준이 국한문으로 ≪서유견문≫을 기술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고백한 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9) 兪吉濬 著; 兪吉濬編纂委員會編, ≪西遊見聞≫, 一潮閣, 1971.
10) Pierre Bourdieu著, 신미경 옮김, ≪사회학의 문제들≫, 동문선, 2004.

둘째 나 자신이 책을 많이 읽지 못하여 작문하는 법에 미숙한 까닭으로 기록의 편이한 방법을 택하기 위함이요[11)]

"二눈余가書룰讀홈이少ᄒᆞ야作文ᄒᆞ눈法에未熟ᄒᆞᆫ故로記寫의便易홈을爲홈이오"

<서유견문・序> 6.1~6.2

종합해보면 유길준의 언어 시장은 한문, 일본어, 영어의 장으로 볼 수 있으며, 1차적 언어 하비투스는 한문이고 2차적 언어 하비투스는 일본어와 영어가 된다.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체험에 따라 1차적 하비투스의 틀에서 2차적 하비투스가 접목되는데, 두 하비투스는 새로운 상황에 내재된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적응하고 조정되며 새로운 하비투스에 통합된다.[12)] 그 가운데 1차적 하비투스는 처음에 습득하여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성향들로 이루어지는데, 유길준이 가족 집단을 비롯한 사회화 과정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된 1차적 하비투스는 바로 한문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비투스는 그의 문화자본인 ≪서유견문≫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서유견문≫의 중국어 수용

근대 계몽기는 국한문혼용체가 가장 많이 쓰였던 시대였다. 그런데 똑같은 국한문혼용체라고 하더라도 한문 문장 구조에서 벗어난 정도가 모두 제각각이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 유형들 가운데 ≪서유견문≫의 국한문혼용체의 특징은 통사적 구조는 한국어를 바탕으로 한 국문의 성격을 띠었으나 형태론적 구조는 중국어를 바탕으로 한 한문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유견문≫을 살펴보면 한글 어휘가 극히 제한적이고 어미나 조사를 제외하면 어간에 한글 어휘가 사용된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임상석이 ≪서유견문≫의 국한문혼용체를 「한문 단어체」 유형으로 분류하였듯, [13)] 기존의 연구는 한국어의 측면에 입각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14)] 유길준은 한국어 통사구조에 입각한 글쓰기를 하면서 한글 전용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자 노력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유견문≫의 주요 독자층이 한문에 익숙한 지배계층이었다는 점, 입말과 글말의 일치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점, 유길준의 언어 하비투스에서 한문이 주된 작용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서유견문≫은 분명히 한문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국한문혼용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중국어 수용 양상을 귀납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유견문≫에 보이는 중국어 품사

≪서유견문・어휘색인≫의 어휘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총 16,890개 어휘로 간주된다. 이 가운데 인명, 지명, 사물명 등과 관련된 고유명사는 총 1,068개 이며, 나머지 15,616의 어휘를 대상으로 한자형태소로 결합된 어휘가 총 8,415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조사한 결과 중국어 어휘에 해당된 것이 4,449개로 집계되었다.[15)]

---

11) 兪吉濬 著; 蔡壎 譯註, ≪西遊見聞≫, 明文堂, 2003.

12) Patrice Bonnewitz 著, 문경자 옮김, ≪부르디외 사회학 입문≫, 현대신서 26, 동문선, 2000, 89～90.

13) 임상석, ≪20세기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12.

14) 심재기(1992), 임상석(2000), 한영균(2011), (2013), (2014)

15) 중국어어휘의 수용은 중국 국내 출판사전 ≪漢典(https://www.zdic.net/)≫, ≪漢語大辭典&康熙字典(http://hd.cnki.net)≫, ≪BCC語料庫詞典(http://bcc.blcu.edu.cn/)≫과 한국 국내 출판 사전 ≪중중한사전≫, ≪한한중사전≫, ≪고려대학교 중한사전≫ 등의 공구서를 위주로 참고하여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품사	분류	출현 개수	비고
실사	명사	3,548	
	대명사	38	10여개 대명사가 상고한어시기의 문법특징이 보임
	수사	12	
	양사	41	양사의 중첩 문법특징이 보임
	동사	464	용언구 (V/A+ᄒᆞ-)
	형용사	223	
	부사	81	고대 문법 특징 및 조기백화문 특징 보임
허사	접속사	33	文言접속사 존재
	발어사	6	대표적인 文言품사
기타	감탄사	3	

중국어 품사론 적 측면에서 실사와 허사로 나눈 후 문법적 기능을 결합하여 사용 양상을 확인하였다.

2) ≪서유견문≫에 보이는 중국어 문법 특징

(1)≪서유견문≫의 품사적 측면을 분석해 보면 용언형이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유견문・어휘색인≫가운데 용언구는 총 6,625개로, 유형은 '단음절한자+ᄒᆞ', '2음절한자+ᄒᆞ', '3음절한자+ᄒᆞ', '4음절한자+ᄒᆞ'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2음절+ᄒᆞ-'형 용언이 5,798개로 약 87.5%를 차지하고 있어 유길준의 언어 하비투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중국어 형태소의 결합구조의 방식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는 가운데 한국어와의 다른 점은 술목구조와 술보구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총 647개의 술목구조 가운데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 "飼乳, 省費, 成慣, 習陣, 試力, 升木, 蔽暗, 往商, 運水, 有貸"등을 비롯한 318개 어휘가 확인되었다.

또한 107개 술보구조 가운데 조어력이 가장 활발한 결과보어와 방향보어를 정리하였다.

(2)나아가 수사와 양사의 문법구조는 다양한 형태를 선보였다.

'一尺, 一斤, 一角里, 十四兩'처럼 수사와 양사가 결합한 구조도 있고, '一本書'처럼 중국어의 '수사+양사+명사' 구조 및 '機關車一輛' 같이 '명사+수사+양사'의 구조, '一官司' 같은 '수사+명사'의 구조로 중국어 수량구조의 시대별 통사구조 양상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3) ≪서유견문≫에 출현된 부정형의 형태소를 집계하면 중국어 동사 '無'와 부정부사 '不, 勿, 未, 沒'가 '不止흠-', '不可ᄒᆞ-', '未至ᄒᆞ-', '不無ᄒᆞ-', '不知흠-', '不可ᄒᆞ-', '未寫흠', '未磬ᄒᆞ-'등 391개의 형태로 무려 2,255개의 부정문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 부정형태소로 구성된 부정문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었다.

(4) ≪서유견문≫은 중국어의 피동형을 '見誣'와 '被惑'로 피동 문법형태소 '被, 見'과 결합하여 15개의 형태로 50개의 피동형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 피동문 형태는 '雇傭되ᄂᆞᆫ, 附庸되기, 救援되기' 3개 형태로 피동형 문장 4개를 구성하고 있어 중국어 피동형 문장보다 적게 사용되었음을 파악하였다.

(5) 접속사의 경우, "差誤ᄒᆞᆫ失이存ᄒᆞ기亦易ᄒᆞ나然ᄒᆞ나譬ᄒᆞ건ᄃᆡ山을畵흠과同ᄒᆞ야"와 같이 ≪서유견문≫에는 동일한 형태적 기능을 하는 문법요소를 한국어와 중국어를 중복사용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유길준에게 체화된 한문 하비투스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4. 결론

유길준의 언어자본을 <年譜>를 기준으로 언어의 습득배경과 환경을 살펴 본 결과,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한문 학습에 집중하였고, 일본과 미국에 유학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부르디외의 하비투스 담화공식에 따르면 그의 1차적 언어 하비투스가 한문이며 그의 언어 사용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언어 자본은 문화 자본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유길준의 한문 하비투스 체화를

≪서유견문≫에 수록된 어휘와 문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특히 품사의 측면에서는 고대중국어의 품사 발어사가 확인되어 총 10품사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각 품사 종류에는 어휘 형태나 의미 사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어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임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兪吉濬 著;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編, ≪서유견문(西遊見聞)≫, 一潮閣, 1971.

兪吉濬 著; 蔡壎 譯註, ≪서유견문(西遊見聞)≫, 明文堂, 2003.

이한섭 等 編著, ≪西遊見聞: 語彙索引≫, 박이정, 2000.

兪吉濬 著; 兪吉濬全書編纂委員會 編, ≪兪吉濬全書 1-5≫, 一潮閣, 1971.

兪東濬, ≪兪吉濬傳≫, 一潮閣, 1993.

Pierre Bourdieu지음, 김현경 옮김, ≪언어와 상징권력≫, 나남, 2014.

Pierre Bourdieu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새물 결, 2006.

Patrice Bonnewitz, 문경자 옮김, ≪부르디외 사회학 입문≫, 현대신서 26, 동문선, 2000.

Pierre Bourdieu著, 신미경 옮김, ≪사회학의 문제들≫, 동문선, 2004.

피에르 부르디외・로익 바캉, 이상길 옮김,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그린비, 2015.

王力 著, ≪漢語史稿≫, 中華書局, 2015.1.

蔣紹愚, ≪漢語歷史詞彙學≫, 商務印書館, 2016.9.

한국 한자음을 통해 보는 중고음 3, 4등 개음의 차이

장준익*

<目　次>

1. 序論
2. 한국 한자음의 3, 4등 개음 반영 문제
3. 중고음 3, 4등 개음의 차이와 역사 변화
4. 結論

1. 序論

중고음 4등운에 개음 'i'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중국 학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다. Karlgren (1926)은 중국의 여러 방언 자료를 참고했고 중고음 4등 한자음에 모두 개음 'i'가 있는 것을 근거로 중고음 4등에 본래 개음 'i'가 있었다고 여겼다. 劉廣和(2002), 尉遲治平(2002), 丁邦新(2007) 등의 학자들도 베트남 한자음, 범한대음(梵漢對音), 위진 남북조 시대 4등자의 압운 등을 근거로 4등운에 본래 개음 'i'가 있었다고 여겼다.

그러나 陸誌韋(1947), 李榮(1956)은 『切韻』(601)계 운서의 反切上字의 배열을 근거로 4등운에 본디 개음 'i'가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표 1〉 중고음 각 등의 성모 배열

성모 \ 등		1등	2등	3등	4등
순음		幫滂並明	幫滂並明	幫滂並明	幫滂並明
설음	端	端透定泥			端透定泥
	知		知徹澄娘	知徹澄娘	
	半	來	來	來	來
치음	精	精清從心		精清從心邪	精清從心
	莊		莊初崇生	莊初崇生俟	
	章			章昌船書禪	
	半			日	
아음		見溪疑	見溪疑	見溪群疑	見溪疑
후음		曉匣影	曉匣影	曉影云以	曉匣影

<표1>에서 보듯이 4등의 성모 배열이 1등의 성모 배열과 완전히 같은데, 이를 통해 보면 중고음 4등에는 개음 'i'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전설 모음 'ɛ'나 'e' 앞에 과도음 'i'가 나타나기 쉬웠는데 오늘날 중국 방언 4등자에서 개음 'i'가 나타나게 된 것은 과도음 'i'의 영향이지 중고음의 4등은 본디 개음 'i'가 없었다는 것이다.

Pulleyblank(1962), 邵榮芬(1982), 潘悟雲(2000), 鄭張尚芳(2003) 등 저명한 후대 석학들이 陸誌韋(1947), 李榮(1956)의 학설을 받아들이며 중고음 4등에 본래 개음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에는 거의 정설처럼 굳어졌다.

* 남경대학교

그런데 중고음 4등에 개음 ‘i’가 본래 없었다는 학설에는『切韻』(601) 내부 구조에서도 한 가지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丁邦新(2007:1-3)이 지적하고 있는데 4등 합구호운의 역사 변화를 보면 4등에 본래 개음 ‘i’가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표 2〉 중고음 3, 4등 합구호운 한국 한자음의 실례1)

<table>
<tr><th>운 / 성</th><th>淸
*(i)ueŋ</th><th>靑
*(i)ueŋ</th><th>仙A
*(i)uɛn</th><th>先
*(i)uen</th><th colspan="2">支A,脂A
*(i)u(ɛ)i</th><th colspan="2">齊
*(i)uei</th></tr>
<tr><td>見k</td><td></td><td>炅 경</td><td>絹 견</td><td>鵑 견</td><td>規 규</td><td>季 계</td><td>圭 규</td><td>桂 계</td></tr>
<tr><td>羣g</td><td>瓊 경</td><td></td><td></td><td></td><td colspan="2">悸 계</td><td colspan="2"></td></tr>
<tr><td>溪kʰ</td><td>頃 경</td><td></td><td></td><td>犬 견</td><td colspan="2">窺 규</td><td colspan="2">奎 규</td></tr>
<tr><td>曉x</td><td></td><td></td><td></td><td>絢 현</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匣ɣ</td><td></td><td>炯 형</td><td></td><td>玄 현</td><td colspan="2"></td><td>携 휴</td><td>惠 혜</td></tr>
<tr><td>疑ŋ</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影ʔ</td><td></td><td></td><td></td><td>淵 연</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以j</td><td>營 영</td><td></td><td>沿 연</td><td></td><td colspan="2">維 유</td><td colspan="2"></td></tr>
</table>

<표 2>를 보면 4등운 합구호운의 한국 한자음은 중고음 4등 합구호운의 이중 개음 ‘iu’ 중 적어도 ‘i’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개구호운의 경우 전설 모음 앞에서 과도음 ‘i’가 덧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합구호운의 경우 이미 합구호 개음 ‘u’가 있는 상황에서 과도음 ‘i’가 덧난다고 함부로 주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2등운 개구호자 “姦”[*kɯan]의 경우 중고음 시기에는 개음이 없었거나2) 개음이 ‘i’가 아니었지만3) 훗날 전설 모음의 영향으로 근대음에서는 개음 ‘i’가 덧나게 된다. 그러나 2등운 합구호자 “關”[*kuan]의 경우 이미 합구호 개음 ‘u’가 있는 상황에서 비록 핵모음이 전설 모음이라 하더라도 과도음 ‘i’가 덧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논리적으로 봤을 때 4등 합구호운에도 원래 개음 ‘i’가 있었고 합구호 개음 혹은 핵모음 ‘u’ 앞에서 개음 ‘i’가 탈락하게 되거나 훗날 결합해 撮口呼 개음 ‘y’가 됐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切韻』(601) 음운 체계에서 4등 합구호운에 원래 개음 ‘i’가 있었는데 이에 대응되는 개구호운에는 개음 ‘i’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중고음 4등에 개음 ‘i’가 있었는데도 왜 3등과 달리 4등의 성모 배열은 어떻게 1등의 성모 배열과 같을 수 있었을까?

본고에서는 한국 한자음을 통해 중고음 3, 4등 개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4) 한국 한자음의 주요 역사 층위는 일반적으로 중고음 시기라고 한다. 한국 한자음을 통해 중고음 시기 중고음의 음운 체계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한국 한자음의 3, 4등 개음 반영 문제

한국 한자음의 구체적인 실례에 대해서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참고했다. 특히 伊藤智ゆき(2007), 權仁

1) 중복되는 한자음 음절은 구태여 반복해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圭”와 “閨”의 한국 한자음은 모두 “규”이기 때문에 표에서는 “圭”의 한자음만 표시했다. 입성자도 굳이 다루지 않았는데 한국 한자음에서 입성은 운미의 차이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2) Kargren(1926), 陸志韋(1947), 李榮(1956), 董同龢(1968), 邵榮芬(1982)은 중고음 2등운에 개음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3) 黃笑山(2002)은 중고음 시기에도 상고음처럼 이등운에 개음 ‘r’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鄭張尚芳(2003)은 상고 개음 ‘r’이 변화한 ‘ɣ’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潘悟雲(2000)은 개음 ‘ɯ’가 있었다고 본다.

4) 박병채(1971)는 한국 한자음이『切韻』(601)의 음운 체계를 주로 반영했다고 보고, 河野六郞(1968)은 한국 한자음이『慧琳音義』(807)의 음운 체계를 주로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瀚(2009)에서는 여러 운서 및 사전류 서적에서 15세기 및 16세기 한국 한자음을 조사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이들의 자료를 주로 참고했다. 또한 현대 한국어의 상용한자 3,500개를 주요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상용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음이 실제 구어 중에 발화됐는지 의심스럽고, 구어 중에 발화되지 않았던 한자음은 운서에 의해 규정된 음으로 나타나거나 성부(聲符)에 의해 유추된 한자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15, 16세기 문헌에서 3회 이상 출연한 한자음의 경우에는 상용한자 3500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보편적인 사용을 근거로 주요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3〉 중고음 3, 4등 개구호운 喉牙音자의 한국 한자음 실례[5)]

<table>
<tr><td>운
성</td><td>3등 일반운
*iɐ</td><td>3등 중뉴 B류
*ɯiɛ</td><td>3등 중뉴 A류
*iɛ</td><td>4등
*(i)e</td></tr>
<tr><td>見k</td><td>建/劍
건/검</td><td>揭/檢/驕
게/검/교</td><td>勁/甄
경/견</td><td>雞/經/堅/兼
계/경/견/겸</td></tr>
<tr><td>羣g</td><td>健
건</td><td>偈/乾/儉/橋
게/건/검/교</td><td>頸
경</td><td>溪/磬/牽
계/경/견</td></tr>
<tr><td>溪kʰ</td><td></td><td>憩
게</td><td>輕/遣
경/견</td><td>謙
겸</td></tr>
<tr><td>曉x</td><td>軒
헌</td><td>險
험</td><td></td><td>醯/馨/顯
혜/형/현</td></tr>
<tr><td>匣ɣ</td><td></td><td></td><td></td><td>兮/形/賢/嫌
혜/형/현/혐</td></tr>
<tr><td>疑ŋ</td><td>言/嚴
언/엄</td><td>彦
언</td><td>藝
예</td><td>詣/硯
예/연</td></tr>
<tr><td>影ʔ</td><td>堰
언</td><td>焉/奄/妖
언/엄/요</td><td>嬰/厭/要
영/염/요</td><td>煙
연</td></tr>
<tr><td>云ɣɯ</td><td></td><td colspan="2">炎
염</td><td></td></tr>
<tr><td>以j</td><td></td><td colspan="2">裔/盈/演/鹽/搖
예/영/연/염/요</td><td></td></tr>
</table>

한국 한자음은 일반적으로 중고음 3, 4등 개구호 개음 ‘i’를 모두 반영해 낸다. 그러나 喉牙音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표 3>을 보면 3, 4등 후아음자의 한국 한자음은 宵운[6)]을 제외하고 4등과 3등 중뉴 A류의 개음 ‘i’를 반영한 반면 3등 중뉴 B류와 일반 3등의 개음 ‘i’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慧琳音義』(807)에서 4등과 3등 중뉴 A류가 합류했고, 3등 중뉴 B류와 일반 3등이 합류했는데 河野六郞(1968)은 한국 한자음 후아음이 바로 이런 『慧琳音義』(807)의 음운 체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 한자음에서 중뉴 B류운이 아닌 일반 3등운의 개음 ‘i’가 탈락된 것은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切韻』(601)에서나 『慧琳音義』(807)에서나 개음 ‘i’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훗날 이 개음 ‘i’로 인해 후아음 성모가 구개음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3등운 “健”의 중고음은 [*giɐn]로 재구되며 현대 보통화 발음은 [tɕiɛn]으로 중고음부터 근대음까지 개음 ‘i’가 있었고 탈락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建”[*giɐn]의 한국 한자음은 “건”으로 개음 ‘i’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

5) 역사 층위가 다른 한자음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米”의 한국 한자음 “미”는 근대음 *mi 『中原音韻』(1324)를 반영한 것이다.

6) 중고음에서 宵운을 포함한 效섭운에는 본디 운미 ‘u’가 있다. 한국어에는 본래 운미 ‘u’가 없었기 때문에 중고음과의 대응에 문제가 생겼다. 본디 중고음 전설 모음 ‘ɛ’나 ‘e’에 대응되는 한국어 모음은 /ㅓ/인데 效섭운의 한국 한자음 모음은 /ㅗ/인 것이다. 이러한 대응상의 문제점에 따라 개음 ‘i’가 반영되는 양상이 다른 운과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일부 3등 후아음자의 한국 한자음 개음 'i' 반영 실태

운 / 성	戈/麻 *iɑ/a	魚 *iɔ	虞 *io	陽 *iɐŋ	鍾 *ioŋ	東 *iuŋ	侵 *im
見k	迦가	居거	拘구	姜강	恭공	弓궁	金금
羣g	伽가	巨거	具구	強강	共공	窮궁	琴금
溪kʰ		去거	區구		恐공	穹궁	欽흠
曉x		虛허	酗후	香향	凶흉		歆흠
疑ŋ		魚어					吟음
影ʔ		於어		央앙	雍옹		音음
云ɣɯ			于우			雄웅	
以j	野야	余여	愉유	陽양	容용	融륭	淫음

河野六郎(1968)의 논리대로라면 후기 중고음의 음운 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 한자음에서는 중뉴 B류 운의 영향을 받은 일반 3등운들의 개음 'i'가 탈락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 4>의 戈3[*iɑ], 麻3[*ia], 虞[*io], 陽[*iɑŋ], 鍾[*ioŋ], 東3[*iuŋ], 侵[*im]운은 중뉴운과는 상관이 없는데도 한국 한자음에서는 후아음자가 以모[*j]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고음 3등 개음 'i'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외는 "香", "凶" 두 자뿐이다.)

특히 4등자에서 "계"(鷄), "혜"(兮), "규"(圭) 같은 음절이 나타나기 때문에 3등자에서 "겨", "혀", "규"가 아닌 "거"(居), "허"(虛), "구"(具)가 나타나는 것은 3등 후아음자의 한국 한자음에서 고의적으로 중고음 3등 개음 'i'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3. 중고음 3, 4등 개음의 차이와 역사 변화

앞서 <표 1>에서 살펴봤듯이 중고음 3, 4등의 성모 배열이 다르다. 4등에 나타나는 성모가 1등과 완전히 같은 것을 보면 『切韻』(601) 시기 4등에 개음 'i'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등 개음 'i'가 성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반면에 3등에서만 나타나는 章조 성모(章*tɕ, 昌*tɕʰ, 船*dʑ, 書*ɕ, 禪*ʑ)를 볼 때 3등 개음 'i'는 구개음화를 일으키는 등 성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어의 舌齒音은 개음 'i'가 있는 환경에서 역사적으로 구개음화됐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설치음 성모와 결합된 개음 'i'는 중고음 3등 개음 'i'와 비슷한 성격(구개음화 유발 등)을 지녔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치음자의 한국 한자음에서는 성모에 거의 영향이 없는 4등 개음이든 성모에 영향을 끼치는 3등 개음이든 모두 나타날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어에서 후아음 성모와 결합된 개음 'i'는 중고음 3등 개음과 달리 성모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옛 한국인이 듣기에 중고음 3등 개음은 후아음 성모와 거의 결합돼 안 들리게 됐다. 이와는 반대로 4등 개음과 중뉴 A류 모음성 개음은 실제 한국어 후아음 자음에 결합된 개음 'i'처럼 성모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에서는 잘 반영돼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표 5〉 중고음 3, 4등의 성모의 역사 변화

성모 \ 등		3등		4등
		합구	개구	
순음		幫滂並明<경순음화>	幫滂並明	幫滂並明
설음	端			端透定泥
	知	知徹澄娘<권설음화>		
	半	來		來
치음	精	精清從心邪<구개음화>		精清從心<구개음화>
	莊	莊初崇生俟<권설음화>		
	章	章昌船書禪<권설음화>		
	半	日<권설음화>		
아음		見溪群疑<구개음화>		見溪疑<구개음화>
후음		曉影云以<구개음화>		曉匣影<구개음화>

물론 통시적인 관점에서 중고음 4등 개음 'i'도 성모에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 하지만 <표 5>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 중고음 4등 개음 'i'가 성모에 영향을 미친 것은 모두 3등 개음과 관련이 있다. 즉, 精조 성모(精*ts, 清*ts^{h}, 從*dz, 心*s)와 후아음 성모(見*k, 溪*k^{h}, 曉*x)는 3등에도 나타나는 성모인데 중국어 역사적으로 3, 4등이 합류할 때, 4등의 精조 성모(精*ts, 清*ts^{h}, 從*dz, 心*s)와 후아음 성모(見*k, 溪*k^{h}, 曉*x)도 3등 개음의 영향을 받아 성모를 구개음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표 5>에서 보듯이 端조 성모(端*t, 透*t^{h}, 定*d, 泥*n)는 본디 4등에만 나타났었고 3등에는 나타나지 않았었다. 중국어 역사적으로 3, 4등이 합류했다하더라도 端조 성모와 결합된 4등 개음 'i'는 본래의 4등 개음 'i'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본래의 4등 개음은 성모를 구개음화시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4등 端조 성모(端*t, 透*t^{h}, 定*d, 泥*n)만이 역사적으로 구개음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典"의 중고음은 [*tien]이고 근대음과 현대음도 [tiɛn]으로 구개음화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典"의 중국어는 중고음부터 현대음까지 4등 개음 'i'의 성질이 보존돼 성모를 구개음화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典"의 15세기 한국 한자음 "뎐"은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전"으로 변했다. 이를 통해서 한국어와 중국어 성모의 역사 변화가 어떻게 다르게 진행돼 왔는지 알 수 있다.

또 <표 5>에서 보듯이 知조(知*ʈ, 徹*ʈ^{h}, 澄*ɖ, 娘*ɳ), 莊조(莊*tʂ, 初*tʂ^{h}, 崇*dʐ, 生*ʂ, 俟*ʐ), 章조(章*tɕ, 昌*tɕ^{h}, 船*dʑ, 書*ɕ, 禪*ʑ) 성모는 4등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3등에서만 나타났다. (개음 'i'가 있는 환경에서) 중고음 당시에는 개음 'i'가 있었지만 근대음에서는 성모와 결합돼 그대로 탈락되거나 성모를 권설음화시킨다. 이는 3등 개음 'i'와 성모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는지 보여주는 예로써 후아음자의 한국 한자음이 왜 유독 3등 개음 'i'를 잘 반영하지 못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표 6〉 한국 한자음 순음 3, 4등 개음의 반영 실태

운 / 성	3등 합구호 *iuɐ	3등 중뉴 B류 *ɯiɛ	3등 중뉴 A류 *iɛ	4등 개구호 *ie
幫p	藩/廢, 反 번/폐, 반	變/貶 변/폄	蔽/鞭 폐/편	閉/邊 폐/변
並b	凡, 飯 범, 반	便 변	幣/卞 폐/변	陛 폐
滂p^{h}	汎/飜/肺 범/번/폐		篇 편	片 편
明m	萬 만	免 면	袂/緬 메/면	眠 면

순음은 조음 위치의 한계로 3등 개구호 개음 'i'만으로는 구개음화나 권설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합구호 개음 'u'와 함께 경순음화가 일어날 수는 있었다. 다른 3등 개구호 개음 'i'는 역사적으로 4등 개음 'i'와 합류해 성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됐다.

<표 6>에서 보듯이 순음자의 한국 한자음은 3등 합구호와 개구호의 차이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 3등 합구호자의 한국 한자음에는 개음 'i'가 없는데 이는 후아음자의 한국 한자음이 3등 개구호 개음 'i'를 반영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치다. 중고음에서 3등 합구호 이중 개음 'iu'는 성모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옛 한국인에게 마치 성모와 결합된 것처럼 들렸던 것이다. (다만 廢운[*iuɐi]자는 예외다.)

4. 結論

한국어와 중국어는 본디 동원 관계에 있는 언어가 아니다. 한국 한자음은 중국어를 반영함과 동시에 한국어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한자음과 중고음의 대응 관계를 검토할 때 한국어의 영향에 항상 주의를 요하게 된다.

한국어의 후아음은 개음 'i'가 있는 환경에서도 구개음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아음자의 한국 한자음은 성모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3등 개음 'i'를 반영할 수 없었고, 성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4등 및 중뉴 A류 모음성 개음 'i'만을 반영했던 것이다.

중국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4등 개음 'i'의 성질을 알 수 있다. 4등 端조 성모 뒤의 모음성 개음 'i'는 3등 개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4등 端조 성모를 구개음화시키지 않았다.

参考文獻

權仁瀚(2009),『中世 韓國漢字音의 分析的 硏究』, 박문사.
박병채(1971),『古代 國語의 硏究』, 고려대출판부.
劉昌惇(1964),『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위국봉(2015),「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한국 한자음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金雪萊(2005),「慧琳<一切經音義>語音研究」, 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羅常培(1933),『唐五代西北方音』,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單刊甲種之十二.
董同龢(1968),『漢語音韻學』, 學生書局.
潘悟雲(2000),『漢語歷史音韻學』, 上海教育出版.
邵榮芬(1982),『切韻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申祐先(2017),『韓國漢字音歷史層次探析』, 元華文創.
尉遲治平(2002),「論中古四等韻」,『語言研究』2002(4), 39-47.
劉廣和(2002),「介音問題的梵漢對音研究」,『古漢語研究』2002(2), 2-7.
陸志韋(1947),『古音說略』, 哈佛燕京學社出版.
李方桂(1973),「中國的語言和方言」,『中國語言學報』1973(1), 1-14.
李榮(1956),『切韻音系』, 科學出版社.
儲泰松(2005),『唐五代關中方音研究』, 安徽大學出版社.
丁邦新(2007),「論『切韻』四等韻介音有無的問題」,『中國語言學集刊』창간호, 1-13.
鄭張尚芳(2003),『上古音系』, 上海教育出版部.
趙翠陽(2009),「慧琳≪一切經音義≫韻類研究」, 中國社會科學研究生院博士學位論文.
伊藤智ゆき(2007),『朝鮮漢字音研究』, 汲古書院(이진호 역(2011),『한국 한자음 연구: 본문편, 자료편』, 역락).
平山久雄(1996),「切韻における蒸職韻と之韻の音価」,『東洋學報』49(2), 1966, 42-68.
河野六郎(1968),『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이진호 역(2010),『한국 한자음의 연구』, 역락).
黃笑山(1996),「<切韻>三等韻的分類問題」,『鄭州 大學學報』, 1996(4), 79-88.
黃笑山(2002),「中古二等韻介音和≪切韻≫元音數量」,『浙江大學學報』2002(1), 30-38.
黃淬伯(1993),『慧琳一切經音義反切考』, 臺灣常務印書館.
黃淬伯(1998),『唐代關中方言音系』, 江蘇古籍出版社.
Bernhard Karlgren(1926), E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Archives d'études orientales publiées par J. A. Lundell, Vol. 15(趙元任 譯(1940),『中國音韻學研究』, 常務印書館).
Edwin G Pulleyblank(1962),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Taipei: Verlag nicht ermittelbar(潘悟雲, 徐文堪 譯(1999),『上古漢語的輔音系統』, 中華書局).

『五大眞言』(1485)의 梵-中-韓 음운 대응 연구

안영희*

<目 次>

1. 서론
2. 진언 자료의 기초적 이해
3. 범자 복자음의 한글 표기법과 유형
4. 범-중-한 음운 대응과 한국어의 음운 특징
5. 결론

1. 서론

眞言은 陀羅尼라고도 불리며 불경에서 呪文의 성격을 지닌다. 불경 번역에서 진언은 일반적으로 意譯이 아니라 音譯으로 진행된다.『五大眞言』(1485)(이하 '오대진언(1485)'이라 약칭)은 한글 창제이후 제일 이른 시기에 편찬된 범자, 한자, 한글 세 문자가 함께 倂記된 眞言集이다. 본고의 목적은 梵-韓-中의 음운 대응 규칙을 찾아 중세 한국어의 음운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진언 자료의 기초적 이해

본고에서 참고한 오대진언(1485)의 원간본이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 793-5'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평창 상원사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를 상원사본 오대진언(1485)라 부르기도 한다. 오대진언(1485)는 "四十二手眞言", "神妙章句大陀羅尼",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隨求卽得陀羅尼", "大佛頂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등 5종류 6개의 다라니로 구성된 진언집이며, 조선시대 스님 學祖[1])가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명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오대진언(1485)의 진언 기록 문자는 梵字, 漢字, 한글의 세 문자로 되어 있다. 漢字가 반영하는 중국어 번역에 대해 '大廣智三藏沙門 不空譯'[2])이라 제시되어 있다. 不空(705-774)이 중국에서 8세기에 활동하였던 불경번역가로 당시의 前期 中古音시기 중국어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통되는 진언 범자의 자형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실담 범자의 자형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정밀한 비교를 통하여 여전히 로마자로 전환된 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래 내용에서 진언 범자의 음운체계와 음절 유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

* 운남민족대학교

1) 學祖(?-?)는 본관이 安東이고 속성은 김씨이며 信眉, 學悅등과 함께 선종의 승려로서 세조시기 많은 불경을 번역, 간행하였다. 그에 의해 번역, 교정되어 완성된 불전으로『地藏經諺解』,『金剛經三家解諺解』,『千手經』,『證道歌南明繼頌』,『六祖法寶壇經諺解』,『眞言勸供・三壇施食文諺解』,『五大眞言』등 다수가 있다.

2) 不空(705년-774년)은 師子國(오늘의 스리랑카) 사람이다. 唐나라의 密宗祖師 중의 한 사람으로 중국에서 善無畏, 金剛智와 함께 '開元三大士' 불린다. 그리고 鳩摩羅什, 玄奘, 眞谛와 함께 중국 불교계의 4대 譯經家로 불리기도 한다. 10세부터 중국에서 생활하였고 15세부터 금강지를 따랐으며 그 후 중국과 天竺 등의 지역을 왕복하면서 많은 梵本 불경을 중국으로 가지고 갔다. 그는 평생 거의 110여부 등 다수의 밀교경전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진언 범자의 體文체계3)

牙音(아음): ka, kha, ga, gha, ṅa　　齒音(치음): ca, cha, ja, jha, ña
舌音(권설음): ṭa, ṭha, ḍa, ḍha, ṇa　喉音(설음): ta, tha, da, dha, na,
脣音(순음): pa, pha, ba, bha, ma　　超音(기타): ya, ra, la, va, śa, ṣa, sa, ha, kṣa

진언 범자의 摩多체계

(1) a, ā, i, ī, u, ū, e, ai, o, au　(2) ṛ, ṝ, ḷ, ḹ　(3) aṁ, aḥ

범자의 특성상 음절문자이기에 자음을 나타날 때 흔히 모음 a인 음절을 나타내는 문자로 대신한다. 이상 한자로 된 자음의 명칭 牙音, 齒音, 舌音, 喉音, 脣音, 超音은 실담장에서 반영된 것인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중의 舌音은 실제로 권설음을 말하고, 喉音은 설음을 말한다. 그리고 超音은 기타를 말하는데 유음, 마찰음 및 복자음도 있다.

진언범자의 모음을 보면 10개가 있는데 a, i, u, e, o은 短音이고, ā, ī, ū, ai, au은 長音이다. 다음 ṛ, ṝ, ḷ, ḹ은 자음이지만 모음으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역시 장단음의 대립이 있다. 그 다음은 aṁ, aḥ 사실 음절말 자음 -ṁ, -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범자의 음절말 자음은 대개 이 두 가지뿐이다. 하지만 범자는 복자음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전해지는 실담장에서는 복자음의 분류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다. 단지 위의 마다에서 kṣa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진언집 범자의 음절유형에 대한 통계와 분류를 통하여 본고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 분류하였다.

먼저 <C+제2자음>류인데 제2자음의 분류에 따라 (1) ‘y’류: ky-, hy-, dy-, dhy-, sy-, ṣy-, vy-; (2) ‘r’류: kr-, ghr-, tr-, dr-, pr-, jr-; (3) ‘l’류: hl-; (4) ‘v’류: tv-, nv-, jv-, dv-, sv-, śv-, hv-; (5) ‘m’류: tm-, dm-, nm-, sm-, hm-, dm-, ṣm-; (5) ‘n’류: gn-, ghn-, tn-, gn-; (6) ‘-ṛ’류: kṛ, gṛ, tṛ, dṛ, dhṛ, pṛ, mṛ, jṛ, hṛ로 나눌 수 있다. 여섯 번째 (6)‘-ṛ’류는 사실 ṛ가 모음으로 취급되어 음절이 만들어지므로 엄격히 말하면 복자음이라 할 수 없겠으나 한글 표기법에 있어서 복자음 표기와 유사하여 이에 분류하였다.

다음은 <제1자음+C>류인데 제1자음의 분류에 따라 (1)‘r’류: ry-, rth-, rya-, rt-, rbh-, rg-, rm-, rt-, r-; (2) ‘N’류: nt-, nd-, nn-, ṇṭ-, ṇṭh-, ṇḍ-, ñc-, ñj-; (3) ‘T’류: tt-, ddh-; (4) ‘S’류: st-, sk-, sph-, ṣṇ-, ṣṭ-, ṣṭh-, śp-; (5) ‘k’류: kṣ-, kk-, kg-, kt-, kdh-; (6) ‘m’류: mbh-가 있다.

이상은 대개 음절말 자음이 없는 開音節이다. 음절말 자음이 있는 복자음 閉音節로 (1) ‘-ṁ’류: tyaṁ, ghraṁ, dhvaṁ, rmaṁ, ṇdaṁ, ṣṭaṁ; 2) ‘-ḥ’류: bhyaḥ, svaḥ, ryaḥ, paḥ, naḥ. koḥ가 있다.

3. 범자 복자음의 한글 표기법과 유형

진언 번역의 음운적 대응에 대한 분석에 앞서 범어의 음절 구조 특성상 특히 복자음 음절에 대한 한글 표기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먼저, ‘C+제2자음’류 복자음 開音節의 한글 표기에 대해 보겠다.

예1 ‘y’류　1) kya/갸/枳也[二合]/2[枳(聲母):見母*k][也:以母 麻3韻*jia]
　　　　　2) sya/샤/寫/6 [寫:心母 麻3韻*sia]
　　‘r’류　3) kra/ᄀ라/羯囉[二合]/1 [羯(聲母):見母*k][囉:*?]

3) 흔히 悉曇章에서 범자의 음운체계를 소개한다. 오대진언(1485)에는 실담장이 실려 있지 않고 또 다른 비교적 널리 유통되었던『眞言集』여러 판본에서 실담장이 실려 있다. 대표적인 판본으로 제일 이른 시기의 안심사본(1569)과 중간본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등이 있다. 이들의 실담장에서 범자체계는 큰 변화가 없고 단지 한글 번역에 일부 차이가 보인다. 이상의 범자체계에 대한 소개는『眞言集』계열의 실담장을 근거로 한다.

4) śra/시̣라/室囉[二合]/4 [室(聲母):書母*ɕ][囉:*?]
5) mra/말/沫/1 [沫:明母 末1韻*mɑt]
‘v’류 6) sva/ᄉᆞ바/娑嚩[二合]/132 [娑(聲母):心母*s][嚩:*?]
7) sva/ᄲᅡ/娑嚩[二合]/3 [娑(聲母):心母*s][嚩:*?]
8) sva/ᄉᆞ와/娑嚩[二合]/1 [沙(聲母):生母*ʃ][嚩:*?]
‘m’류 9) tma/ᄃᆞ마/怛麽[二合]/3 [怛(聲母):端母*t][麽:明母 戈1韻*mɑ]
10) dmi/ᄂᆞ미/娜弭[二合]/1 [娜(聲母):泥母*n][弭:明母 支A韻*miĕ]
11) sma/ꥱᅡ/娑麽[二合]/2 [娑(聲母):心母*s][麽:明母 戈1韻*mɑ]
‘n’류 12) ghna/ᄁᆞ나/覲曩[二合]/1 [覲(聲母):群母*g][曩:泥母 唐1韻*nɑŋ]
13) gno/ᅌᆞ뉴/儗呅[二合]/1 [儗(聲母):疑母*ŋ][呅*?]
‘ṛ’류 14) kṛ/ᄀᆞ리/訖哩[二合]/16 [訖(聲母):見母*k][哩*?]
15) pṛ/ᄇᆞ리/必哩[二合]/1 [必(聲母):幇母*p][哩*?]
16) hṛ/ᄒᆞ리/紇哩[二合]/11 [紇(聲母):匣母*ɦ][哩*?]

위의 대응을 보면 ‘C+제2자음’류 복자음에 대하여 중국어 대응을 보면 ‘二合’으로 두 개의 한자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한자는 성모만, 두 번째 한자는 성모와 운모 모두 사용된다. 이는 음운학에서 첫 번째 한자의 성모와 두 번째 한자의 운모가 결합하여 한 음절을 나타내는 反切法과 다르다. 이와 대응하는 한글 표기를 보면 범자 첫 번째 자음과 대응하는 것은 대부분 ‘ㆍ’ 모음의 한 음절이다. 하지만 일부 “sma/ꥱᅡ/娑麽”와 같이 합용병서로 1음절 대응도 가능하다.

다음은 ‘제1자음+C’류 복자음 開音節의 한글 표기에 대해 보겠다.

예2 ‘r’류 1) na-rṭa/날타/娜嘌吒[二合]/1 [娜:泥母 歌1韻*nɑ][嘌:*?][吒:知母 麻2韻 *ʈɣa]
3) ka-rṇa/갈나/羯囉拏[二合]/1 [羯:見母 月3韻*kiɤt][囉:*?][拏:娘母 麻2韻*ɳɣa]
‘N’류 4) ka-nta/건다/建跢/1 [建:見母 元3韻*kiɤn][跢:端母 歌1韻*tɑ]
5) ka-ṇṭa/건타/建姹/2 [建:見母 元3韻*kiɤn][姹:➢徹母 麻2韻 *ʈhɣa]
6) ka-ñca/건자/蹇左/1 [蹇:見母 仙B韻*kɰiɛn][左:精母 歌1韻*tsɑ]
7) su-ṅa/송아/素誐/1 [素:心母 模1韻*so][誐:疑母 歌1韻*ŋɑ]
‘T’류 8) ci-tta/진다/喞跢/9 [喞4):精母 質3韻*tsit][跢:端母 歌1韻*tɑ]
9) bu-ddha/몯다/沒馱/13 [沒:明母 沒1韻*mot][馱:定母 歌1韻*dɑ]
10) si-ddhya/싣댜/悉地野[二合]/4 [悉:心母 質3韻*sit][地:定母 脂3韻*di][野:以母 麻3韻*jia]
‘S’류 11) sta/ᄯᅡ/娑怛[二合]/3 [娑(聲母):心母*s][怛:端母 曷1韻*tɑt]
12) spho/ᄲᅩ/娑普[二合]/1 [娑(聲母):心母*s][普:滂母 模1韻*pho]
13) stya/ᄯᅣ/娑底也[三合]/1 [娑(聲母):心母*s][底(聲母):端母*t][也:以母 麻3韻*jia]
14) stra/ᄯᆞ라/薩怛囉[三合]/2 [薩(聲母):心母*s][怛(聲母):端母*t][囉:*?]
15) ṣṭa/ᄯᅡ/瑟吒[二合]/22 [瑟(聲母):生母*ʃ][吒:知母 麻2韻*ʈɣa]
16) ṣṭi/ᄯᅵ/瑟耻[二合]/3 [瑟(聲母):生母*ʃ][耻:➢徹母 之3韻*ʈhɨ]
‘k’류 17) ra-kṣa/락사/囉乞灑[二合]/6 [囉:*?][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ʃɣa]
‘m’류 18) ku-mbha-ṇda/굼반나/噤畔拏/2 [噤:*?][畔:幷母 桓1韻*bɑn][拏:➢娘母 麻2韻*ɳɣa]
19) sta-mbha/ᄯᆞᆷ바/娑膽[二合]婆/2 [娑(聲母):心母*s][膽:端母 談1韻*tɑm][婆:幷母 戈1韻*bɑ]

위의 ‘제1자음+C’류를 보면 한자 표기는 앞서 ‘C+제2자음’류 복자음과 같은 방법으로 ‘二合’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글은 앞서 ‘C+제2자음’류 복자음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제1자음은 앞 음절(범자단위)의 음절말음으로 한글 표기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na-rṭa’는 연이어 나타나는 두 범자인데 한글 표기는 ‘nar-ṭa’ 단위로 끊어 ‘날타’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은 복자음 閉音節에 대해 보겠다.

4) “喞”은 중고음에서 精組 質3韻*tsit와 精組 職3韻*tsik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한다.

예3 ‘-ṁ’류 1) ghraṁ/ᄀ람/伽嚩[二合]/1 [伽(聲母):群母*g][嚩:*?]
2) dhvaṁ/ᄃ망/馱綱[二合]/4 [馱(聲母):定母*d][綱:明母 陽3韻*miaŋ]
3) ṇiṁ/님/抳淫[二合]/5 [抳:娘母 支3韻 *ɳiĕ] [淫:以母 侵3韻 *jim]
4) viṁ/밍/尾孕[二合]/2 [尾:明母 微3韻 *mɨi] [孕:以母 蒸3韻 *jɨŋ]
‘-ḥ’류 5) bhyaḥ/뱍/毗藥[二合]/57 [毗(聲母):幷母*b][藥:以母 藥3韻*jiak]
6) svaḥ/쌕/娑嚩[二合]/3 [娑(聲母):心母*s][嚩:*?]
7) paḥ-kṣa/박사/博乞灑[二合]/1 [博:幇母 鐸1韻*pɑk][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ʃɣa]

위의 폐음절 복자음을 보면 앞서 복자음 표기는 개음절과 같음을 볼 수 있다. 다만 -ṁ와 대응하는 한글 표기 종성은 대개 ‘-ㅁ’, -ḥ와 대응하는 한글 종성은 대개 ‘-ㄱ’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ṁ와 대응하는 한글 표기 종성이 ‘-ㅇ’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범어에서 나타나는 음운변화를 그대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4. 범-중-한 음운 대응과 한국의 음운 특징

4.1 초성 표기의 음운 특징

(1) ‘ㄱ, ㄴ, ㄷ’

한글 초성에서 평음 ‘ㄱ, ㄷ, ㅂ’가 무성음의 범자 ‘k, t, p’와 유성유기음의 ‘gh, dh, bh’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ㄱ/k/見*k/270과 ㄱ/gh/群*g/6, ㄷ/t/端*t/517과 ㄷ/dh/定*d/207, ㅂ/p/幇*p/206과 ㅂ/bh/幷*b/222가 있다. 이는 한글 초성이 범자의 무성무기음과 유성유기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한글이 단순히 한자를 따랐다면 ‘ㄱ, ㄷ, ㅂ’는 한자의 무성음 계열 ‘見*k, 端*t, 幇*p’와 유성음 계열의 ‘群*g, 定*d, 幷*b’와 대응한다는 것이다. 한글이 범자를 따르든, 한자를 따르든 변별적 자질의 차원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글이 무성음과 유성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ㅂ’

유기음 범자에 있어서 한글 초성 대응은 ㅋ/kh/溪*kh/8, ㅌ/th/透*th/35, ㅂ/ph/滂*ph/11이다. 즉 유기음 범자 ph대응의 한글 초성이 ‘ㅍ’가 아닌 ‘ㅂ’이다. 당시 한국어의 초성체계에서 ‘ㅂ’는 아마 ‘ㄱ, ㄷ’와 비하여 어떤 음성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마치 중국어의 한자 ‘發’이 중고한어에서 비록 성모체계에서 幇母 *p에 속하지만 3등운 글자로 음성적으로 [pf]의 마찰성이 있어 범자 ph와 대응되는 현상과 흡사할 것이다. 즉 당시 중세한국어의 ‘ㅂ’는 ‘ㄱ, ㄷ’에 비하여 음성적으로 유기성의 특징이 강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3) ‘ㅇ, ㄴ, ㅁ’

한글의 비음 ‘ㅇ, ㄴ, ㅁ’는 범자 자음에서 유성음의 ‘g, d, ḍ, b’와 비음의 ‘ṅ, n, ṇ, m’와 모두 대응되고 있다. 즉 ㆁ(ㅇ)/g/疑*ŋ/254과 ㆁ(ㅇ)/ṅ/疑*ŋ/1, ㄴ/d/泥*n/188과 ㄴ/n/泥*n/264, ㄴ/ḍ/娘*ɳ/5과 ㄴ/ṇ/娘*ɳ/111, ㅁ/b/明*m/68과 ㅁ/m/明*m/444이다. 한자 표기 역시 한글과 같이 모두 비음의 ‘疑母 *ŋ, 泥母 *n, 娘母 *ɳ, 明母 *m’을 사용하고 있다. 어쩌면 한글의 비음 표기는 한자의 비음 표기를 따랐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대진언(1485)의 다라니의 중국어 번역은 대부분 不空의 번역이었으며, 진언집 실담장의 한자 역시 不空의 번역 체계와 일치한다. 不空(705-774)의 번역은 玄奘(602-664)의 번역과 다르다. 유성음 범자 번역에 있어서 不空은 중국어 성모체계 次濁 비음 글자를 사용하고 있고 玄奘은 全濁 유성음 글자를 사용하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Henri Masper(1920)는 현장 번역은 7세기의 표준음을 대표하고 불공 번역은 8세기 長安

方言의 음운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보았다. 즉 8세기 장안 방언의 중국어 비음은 순수한 비음이 아니라 폐쇄음 성격이 함께 동반한 음일 것이라 하였는데 예를 들어 明母 글자는 *m이 아닌 *mb이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한편 한국어의 비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다. 허인영(2014:65-66)에 의하면 18세기 초 일본사람이 당시 한국어를 전사한 자료인『全一道人』에는 한국어의 비음 ‘ㄴ’, ‘ㅁ’을 각각 일본어 유성음의 ‘ド(do)’, ‘ビ(bi)’으로 전사한 예들이 있다. 그리고 각주 96에 의하면 반대로 현대 일본어 유성음의 ‘ド(do) ’가 한국어에서 ‘ㄴ’로 번역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어 비음의 비음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한국어 비음의 특성상 외국어 유성음 발음과 혼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담장에서도 중국어 한자의 영향이 아니라 범자의 유성음을 비음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토 지유키(2007:6)에서도 河野六郎(1968)의 견해와 같이 하여 한국어 비음을 유성음의 성격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즉, 한글의 유성음 범자의 비음 표기는 불공의 번역 체계를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 또한 당시 한국어 비음의 유성음 특성이란 음운적 특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4) ‘ㅸ’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순경음 비읍 ‘ㅸ’은 범자 ‘v’와 대응한다. 하지만 ‘ㅸ’은 오직 복자음 음절에서만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실 ‘ㅸ’가 출현하는 환경에는 ‘ㅂ’ 대응이 마땅하다. 김성규(1996:12)에서는 중세한국어 시기 ‘ㅸ’이 모음 사이, ‘ㅣ’로 끝나는 이중모음과 모음사이, ‘ㄹ’과 모음사이, ‘ㅿ’과 모음 사이 등의 환경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사ᄫᅵ(蝦), 셔ᄫᅳᆯ(京), 이ᄫᅳᆯ-(枯)’ 등이다. 진언 표기에서의 ‘ㅸ’은 중세 한국어에서의 ‘ㅸ’이 출현하는 환경과 비슷하게 되면서 한국어의 음운현상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물론 같은 음운환경에서 모두 ‘ㅸ’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ᄃᆞ바, ᄉᆞ바’와 같이 ‘ㅂ’도 있는데 이는 한국어 음운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4.2 중성 표기의 특징

(1) ‘ᄋᆞ’와 ‘으’

진언 표기에서 ‘ᄋᆞ’ 모음이 출현하는 환경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경우가 복자음 음절에서 두 자음의 연쇄 사이에 ‘ᄋᆞ’ 모음이 첨가된 것이다. 예를 들면, ᄀᆞ라/kra/羯囉, ᄂᆞ바/nva/娜嚩, ᄃᆞ마/tma/怛麼, ᄋᆞ나/gna/疙囊, ᄀᆞ리/kṛ/訖哩 등이다. 한글 ‘ᄋᆞ’ 모음에 대응되는 범자 모음은 없다. 범어에서 두 자음이 연이어 발음하는 경우 이를 한국어음으로 표현할 때의 모음은 반드시 제일 무표적인 모음이어야 한다.

또 다른 ‘ᄋᆞ’의 출현 환경은 범자 ‘a’ 모음의 대응에서 나타난다. 즉, dāṁ/ᄂᆞᆼ/能(登1*əŋ), maṁ/ᄆᆞᆼ/懵(東1*uŋ), haḥ/ᄒᆞᆨ/口郝(*?), da-r/ᄂᆞᆯ/捺(曷1*ɑt)이다. 범자 모음이 ‘a’이므로 한글 표기 ‘아’ 모음이 예상되지만 ‘ᄋᆞ’ 모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ㅇ’ 종성자음의 영향을 받아 모음이 후설되어 ‘ᄋᆞ’ 모음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2) ‘오’와 ‘우’

진언 한글 표기에서 ‘오’는 ‘u’와도 대응하고 ‘o’와도 대응하며, ‘우’ 역시 ‘u’와도 대응하고 ‘o’와도 대응한다. 이들의 대응 비율을 보면 ‘오’의 ‘u’ 대응 363회(72.6%)이고, ‘o’와의 대응 137회(27.4%)이다. ‘우’는 ‘u’와의 대응이 79회(45.4%), ‘o’와의 대응이 95회(54.9%)이다. 이는 ‘오’는 ‘o’와 대응하고, ‘우’는 ‘u’와 대응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매우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오’와 ‘우’를 한자의 등운과 대응시켜 보면 규칙성이 보인다. 즉 ‘오’는 1등운 글자와의 대응이 434회(96.4%)이고, 3등운 글자와의 대응이 16회(3.6%)이다. ‘우’는 1등운 글자와의 대응이 34회(23.4%)이고 3등

운 글자와의 대응이 111회(76.5%)이다.

이로부터 '오'와 '우'는 범자 모음과의 대응에서는 이들 차이의 경향이 뚜렷하지 않지만, 한자의 등운과의 대응에서는 '오'는 1등운을 선호하고, '우'는 3등운을 선호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한글의 '오'와 '우'는 범자 모음의 'u'와 'o'의 차이보다 한자의 1등운과 3등운의 차이에 따른 분류의 성격이 강하다.

4.3 종성 표기의 특징

(1) '-ㄹ'와 '-ㄷ'

진언의 종성 자음 대응을 보면 '-ㄷ'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t, -d'과 대응하고, '-ㄹ' 종성자음은 범자 '-r' 자음과 대응한다. 이는 당시 중세한국어의 종성 자음 '-ㄷ'과 '-ㄹ'는 음소적인 대립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한국어에 '-ㄷ'와 '-ㄹ'의 대립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현실한자음에서 중국어 *-t 자음운미는 모두 '-ㄹ'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또한 그동안 한국한자음의 연구 분야 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오던 난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즉 중국어의 -t를 한국어의 -l로 수용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받아 들이며 고대한국어로부터 중세한국어 시기로 내려 가면서 'ㅀ'와 'ㄹ' 이 두 가지 유음의 음소대립이 점차 사라지면서, 특히 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하나의 半舌音 문자 'ㄹ'를 만들면서 현실 한자음에서 모두 하나의 설내입성운미로 반영되었을 것이라 본다.

(2) 'ㅅ'계 합용병서와 '-ㅅ' 종성자음

진언의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가 사용되고 있다. 즉 ᄯᅡ/sta/娑多, ᄯᅵ/sti/娑底, ᄯᅣ/stya/娑底也, ᄯᅳ라/strā/薩怛囉 등이다. 그런데 'ㅅ' 종성자음의 표기와 혼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ᄹᅴ/ṣṭi/瑟恥(耻)와 봇티/pu-ṣṭi/補瑟置, ᄲᅡ/sva/沙嚩/4와 ᄉᆞ바/svā/娑嚩/132, ᄭᆞ리/skṛ/塞訖哩/8와 ᄉᆞ간(건)나/ska-nda/塞謇娜/2, ᄮᅵ/ṣṇi/瑟抳/9와 밋노/vi-ṣṇo/尾瑟努/1, ᄉ마/sma/娑麼/2와 ᄉᆞ마/sma/娑麼/4가 있다. 이로부터 진언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 표기는 'ㅅ' 종성자음의 분리 표기와 혼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한국어의 고유어 표기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밗, 숛'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올 때 '바끌, 수ᄭᅵ'로 표기되기도 하고, 이외 기타 '城 밧긔 (龍 69), 안팟긔 (釋 19, 23)', 혹은 '숫글 (楞 7.16), 숫근(楞 8.97)'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이익섭 1992:157).

중세한국어시기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하여 기존 연구는 주로 자음군으로 발음하였다는 견해와 된소리 즉 경음으로 발음하였다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진언 표기의 현상으로부터 보아 당시 자음군으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약)

한중 가열조리동사 의미분석 비교연구
― ‘삶다(煮)류’ 어휘장을 중심으로

김시현*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결합관계와 의미지도의 개념 및 특징
3. ‘삶다류’ 어휘장 하위어의 개념의미와 의미소
4. 결합적 어휘 관계 및 대응 관계
5. 의미지도를 통한 의미 관계
6.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조리(調理)활동’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조리와 관련된 어휘들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조리법과 관련된 어휘들이 존재한다. 그 중 액체를 끓이거나 삶는 조리 동작을 나타내는 중국어 동사 ‘煮’는 대상에 따라 한국어에서 쓰이는 동사가 서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서는 ‘煮鸡蛋’, ‘煮方便面’, ‘煮粥’처럼 모두 ‘煮’를 써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煮鸡蛋’은 ‘달걀을 삶다’, ‘煮方便面’은 ‘라면을 끓이다’, ‘煮粥’는 ‘죽을 쑤다’ 또는 ‘죽을 끓이다’로 표현된다. 중국어 ‘煮’의 의미는 한국어 ‘삶다’, ‘끓이다’, ‘쑤다’ 3가지 동사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므로 더 큰 의미의 범주를 갖는다. 한국어 ‘삶다’, ‘끓이다’, ‘쑤다’는 동의어가 아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동사로 이들 사이에 의미의 차이(semantic difference)가 존재하여 혼용하여 사용할 수 도 없다. ‘달걀’은 반드시 동사 ‘삶다’와 결합하고, ‘라면’은 반드시 ‘끓이다’와 결합하며, ‘죽’은 반드시 ‘쑤다’ 또는 ‘끓이다’와 결합해야 한다. 이들 사이의 공기관계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처럼 같은 조리 활동을 지칭하는 어휘라도 중국어와 한국어 어휘에서 의미의 차이가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게 된다. 첫째,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의 내부에서 보이는 조리동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만약 같은 활동을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중국어와 한국어 조리동사 어휘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본고는 이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해 중국어와 한국어의 조리동사의 의미를 비교 대조해 언어 내부와 외부에서 보이는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언어학에서는 두 언어 간에는 의미의 유사성(semantic similarity)과 의미의 차이성(semantic difference)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데 조리동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한중 두 언어에서 조리 동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다수가 가열조리동사를 대상으로 성분분석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성분분석법을 통해 한중 요리동사의 의미자질을 분석하고 그 대응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문리(2013)와 진설원(2016)은 석사논문에서 성분분석법의 기초 위에 한중 가열조리동사가 결합할 수 있는 명사 어휘를 정리하여 결합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한중 가열조리동사의 대응 관계에 대해 기술하였으나 일부 동사의 대응관계 분석이 부적절하여 아쉬움이 남는다.[1]) 최근에는

* 北京师范大学

연구내용이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치(2018)와 동예선(2019)은 성분분석방법뿐만 아니라 확장 의미의 대응 관계까지 영역을 넓혔고, 장양(2021)은 발효요리동사를 대상으로 원형의미와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에 대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고에서는 조리동사의 범위를 좁혀 위의 예시에서 언급한 중국어 '煮'와 한국어 '삶다', '끓이다', '쑤다'가 속하는 어휘장[2]을 중점으로 사전과 코퍼스의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결합관계를 분석하고 두 언어 간 의미적 유사성 또는 겹침, 차이성 등의 의미특징과 의미범주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연구대상 선정에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조리동사와 『现代汉语分类大词典』(2007), 『中国烹饪辞典 新版』(2019), 『现代汉语词典』(第七版), 『연세한국어사전』(2000),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통해 통합・재분류 하였으며 방언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중국어와 한국어 '삶다(煮)류' 어휘장의 하위 동사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14개): 熬, 煲[3], 焯, 汆, 炖, 烩, 煎, 卤, 焖, 烹, 炝, 涮, 煨, 煮

한국어(13개): 고다, 끓이다, 달이다, 데치다, 뜸들이다, 밥하다, 삶다, 쑤다, 우리다, 조리다, 졸이다, 중탕하다, 지지다

2. 결합관계와 의미지도의 개념 및 특징

어휘 구조 연구는 형태소와 단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어휘의 구조 연구와 의미 연구의 관계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 왔다(신현숙・김영란, 2012:18). 리치(G. Leech)는 그의 저서 『Semantics』(1974)에서 어휘의 의미를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 내포적 의미(connotative meaning), 문체적 의미(stylistic meaning), 환정적 의미(affective meaning), 반영적 의미(reflected meaning), 연어적 의미(collocative meaning), 주제적 의미(thematic meaning) 7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홍사만, 2008:21-52). 개념적 의미는 단어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인 기본의미를 뜻하고, 함축적 의미는 개념적 의미 이외에 그 단어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혹은 연상할 수 있는 의미를 뜻한다. 문체적 의미는 언어를 사용하는 독특한 사회 환경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의미이고, 환정적 의미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가 반영된 의미를 나타낸다. 반영적 의미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또 다른 의미를 뜻한다. 연어적 의미는 단어 배열에서 나타나는 의미나 한 단어가 그것과 공기하는 단어들로 인해 얻어지는 의미를 뜻하고 결합적 의미라고도 불린다. 주제적 의미는 어순이나 초점, 강조에 의해 전달되는 의미를 뜻한다. 우리는 이 개념적 의미와 결합적 의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소쉬르도 언어체계의 단위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에 관해 계열적(paradigmatic)관계와 결합적(syntagmatic)관계로 이분[4]하였는데, 어휘의 개념과 어휘가 포함하는 다양한 의미체계의 결합관계를 통해 '삶다류' 어휘장 하위동사 간 의미의 차이, 즉 의미의 유사성과 의미의 차이성을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의미를 저장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각 언어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앞서 문제 제기를 한 중국어 '煮'의 개념이 한국어 '삶다', '끓이다', '쑤다'로 표현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의미지도모형(Semantic Map Model)은 언어유형론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이처럼 다의성을 지닌 언어형식을 범언어적 고찰

1) 진설원(2016)은 여문리(2013)에서 제시되어 있는 요리 동사 논항 표를 참고하였으나, 여문리(2013)는 제4장에서 '炖'과 '조리다'가 일치하고, '煨'와 '고다', '데치다'가 '汆'이 완전 일치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炖'과 '조리다'는 국물의 양부터 차이가 있으며 나머지 조리동사들 또한 같은 조리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본고에서는 조리동사를 불이나 열의 사용 여부에 따라 가열조리동사와 비가열조리동사로 나누고, 그중 중국어와 한국어의 가열조리동사에서 '삶다(煮)류' 어휘장의 하위동사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3) '煲'는 월(粤)방언이나 실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므로 본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4) 존 라이언스, 『의미론1 의미 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2011, 383.

과 대조를 통해 보편성과 개별성을 탐색하기 위해 '지도'라는 2차원의 공간에 나타낸 것이다(이지은, 2013:239). 의미지도모형은 언어의 개념 공간을 지도로 그려봄으로써 의미적 특징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한중 조리동사 영역에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합관계와 의미지도를 구성해 봄으로써 조리동사의 개념의미와 관련하여 한중 두 언어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으나, 의미 확장까지 범위를 넓히지는 않았다.

3. '삶다류' 어휘장 하위어의 개념의미와 의미소

'삶다류' 어휘장 내부는 각각의 개별의미를 갖고 있는 하위어로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삶다류' 어휘장의 어휘는 열을 가해 물을 넣어 조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어의 의미소는 [열]과 [물]이라는 공통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통의미 이외에 개별의미를 가지고 있어 각 어휘항목이 서로 대립(oppositon)하여 의미소를 구분해 준다. 중국어 어휘는 『现代汉语词典』(第7版)와 『现代汉语分类大词典』(2007), 한국어 어휘는 『연세한국어사전』(2000)과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참고하여 사전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사전에서 기술하는 어휘 항목은 다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단어가 지니는 의미를 기술할 때 보통 중심 의미(core meaning)를 가장 먼저 기술하고 그 다음 주변 의미(peripheral meaning)를 기술한다(신현숙·김영란, 2012:59). 만약 주변 의미에 조리 동작이 기술되어 있을 시 관련항목을 참고하도록 한다. '삶다류' 어휘장의 하위어에서 하나의 어휘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수의 의미소가 존재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개념 의미와 의미소 설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삶다류 어휘장 개념 의미

조리동사	개념 의미 및 의미소 분류	의미소 개수
熬áo[5]	①把粮食等放在水里，煮成糊狀 ②爲了提取有效成分或去掉所含水分、雜質，把東西放在容器里久煮 熬: 삶다류	1
煲	用煲煮或熬 煲: 삶다류	1
焯	把蔬菜放在水里略微一煮就拿出來 焯: 삶다류	1
汆	烹調方法，把食物放在沸水里稍微一煮 汆: 삶다류	1
炖	①烹調方法，加水燒開后文火久煮使爛熟（多用于肉類） ②把東西盛在碗里，再把碗放在水里加熱 炖1: 삶다류, 炖2: 삶다류	2
燴	①烹調方法，炒菜后加少量的水和芡粉 ②烹調方法，把米飯等和葷菜、素菜混在一起加水煮 燴1: 볶다류, 燴2: 삶다류	2
煎	①烹調方法，鍋里放少量油，加熱后，把食物放進去使表面變黃 ②把東西放在水里煮，使所含的成分進入水中 煎1: 볶다류, 煎2: 삶다류	2
鹵	用鹽水加五香或用醬油煮 鹵: 삶다류	1
燜	緊盖鍋盖，用微火把食物煮熟或炖熟 燜: 삶다류	1
烹	①煮（菜、茶） ②烹調方法，先用熱油略炒，然后加醬油等作料攪拌，隨卽盛出 烹1:삶다류, 烹2:볶다류	2
炝[6]	烹調方法。①將菜肴在沸水中略 煮一下取出加作料拌： 炝芹菜 ②油鍋熱 后，先把少量葱、姜、蒜等放入略炒，使有香味 炝1: 삶다류, 炝2: 볶다류	2
涮	把肉片等放在開着的水里燙一下就取出來蘸佐料吃 涮: 삶다류	1
煨	①烹調方法，用小火慢慢地煮 ②把生的食物放在帶火的灰里使燒熟[7]	2

	煨1: 삶다류, 煨2: 굽다류	
煮	把事物或其他東西放在有水的鍋里燒 煮: 삶다류	1
고다	①(고기나 뼈를) 뭉그러지거나 진국이 우러나도록 삶다. ②졸아서 진하게 되도록 끓이다. 고다: 삶다류	1
끓이다	①(물 같은 것을) 뜨겁게 해서 끓게 하다. ②(차나 국 같은 것을 불에 끓게 하여) 만들다. 끓이다: 삶다류	1
달이다	①진하게 되도록 끓이다. ②물을 넣고 우러나게 끓이다. 달이다: 삶다류	1
데치다	끓는 물에 잠깐 넣어 살짝 익히다. 데치다: 삶다류	1
뜸들이다	절로 무르익도록 서두르지 않고 한동안 가만히 두다. (사람이 어느 정도 찌거나 삶은 음식을) 열을 약하게 하여 그대로 얼마쯤 두어서 속속들이 잘 익게 하다. 뜸들이다: 삶다류	1
밥하다	밥을 짓다. 밥하다: 삶다류	1
삶다	물에 넣고 끓이다. 삶다: 삶다류	1
쑤다	곡식의 알이나 가루를 알갱이가 거의 풀어질 정도로 풀과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물에 끓이다. 쑤다: 삶다류	1
우리다	(물에 담가 성분, 빛깔, 맛 따위를) 빼내다.8) 우리다: 삶다류	1
조리다	고기나 채소에 양념을 넣고 국물이 졸아들게 끓이다. 조리다: 삶다류	1
졸이다	물기를 없애 양이 줄어들게 하다. 졸이다: 삶다류	1
중탕하다	끓는 물속에 음식 담은 그릇을 넣어 익히거나 데우다. 중탕하다: 삶다류	1
지지다	①국물을 조금 붓고 끓여 익히다. ②기름을 바른 번철에 놓고 익히다. 지지다1: 삶다류, 지지다2: 튀기다류	2

표2의 의미소를 보면 조리동사 가운데 의미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어휘가 있다. ‘炖’은 2개의 의미소를 갖지만 ‘炖1’과 ‘炖2’ 모두 ‘삶다류’ 어휘장에 속한다. ‘烩’, ‘煎’, ‘烹’은 볶다류와 삶다류로 나뉘기 때문에 ‘烩1’과 ‘烩2’, ‘煎1’과 ‘煎2’, ‘烹1’과 ‘烹2’로 의미소를 표기하고, ‘炝’은 삶다류와 볶다류로 나뉘기 때문에 ‘炝1’과 ‘炝2’로 의미소를 표기하였다. 또한 ‘煨’는 삶다류와 굽다류로 나뉘기 때문에 ‘煨1’과 ‘煨2’로 표기하고, ‘지지다’는 삶다류와 튀기다류로 나뉘기 때문에 ‘지지다1’과 ‘지지다2’로 표기하였다. 위 분석을 통해 ‘삶다류’ 어휘장의 중국어와 한국어의 의미소는 다음과 같이 선별된다.

중국어 삶다류 의미소(15개): 熬, 煲, 焯, 氽, 炖1, 炖2, 烩2, 煎2, 卤, 焖, 烹1, 炝1, 涮, 煨1, 煮

한국어 삶다류 의미소(13개): 고다, 끓이다, 달이다, 데치다, 뜸들이다, 밥하다, 삶다, 쑤다, 우리다, 조리다, 졸이다, 중탕하다, 지지다1

5) ‘熬 āo’의 『现代汉语词典』에서의 사전적 의미는 ‘조리법의 일종, 채소 등을 물에 넣고 끓이다.(烹调方法, 把蔬菜等放在水里煮)’로 ‘煮’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 熬āo’는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6) 『现代汉语词典』에서는 烹调方法, 将菜肴的原料放在沸水中略煮, 取出后再用酱油、醋等作料来拌 의미항목만 기재되어 있다.

7) ①用文火慢慢地煮： 煨牛肉。②把食物放在火灰里慢慢烤熟： 煨栗子。(董大年, 2007:312)

8) ‘우리다’의 사전적 의미에는 가열과 비가열의 구분이 없다. 실생활에서 또한 찬물이나 뜨거운 물에 성분, 빛깔, 맛 따위를 빼낼 때 모두 사용 가능하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가열조리동사에 한정하므로 찬물에 쓰이는 경우는 배제한다.

4. 결합적 어휘 관계 및 대응 관계

위의 사전에 제시된 사전적 의미를 통한 변별을 통해서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파악에 있어 의미가 중복되어 의미자질 구분이 어려워 동의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단어가 상당히 다수 존재한다. 임지룡(2018:220-250)은 의미의 결합관계는 문장이나 발화 안에서 선형 순서로 이루어진 단어들 간의 의미 관계이며, 결합관계에서 단어들 간의 정상적인 결합 조건, 즉 결합의 제약인 공기제약(co-occurrence restriction)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삶다류' 어휘장의 의미소들과 실제 결합하는 어휘를 살펴본다면 이들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따라서 말뭉치와 사전의 다양한 용례를 통해 '삶다류' 어휘장의 각 의미소들이 어떤 어휘소와 결합하는지 '공기어휘(co-occurent word)'를 추출하여 결합관계를 살펴보려고 한다. 중국어는 BCC 말뭉치를, 한국어는 국어국립원 언어정보나눔터의 세종 말뭉치와 『연세한국어사전』,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용례를 사용하였다.[9]

표 2 한중 삶다류장 결합관계

중국어	한국어
熬(2591)：粥(368), 中药(70), 鸡汤(30), 姜(30), 白菜(29), 糖(24), 鱼(22), 茶(21), 稀饭(19), 津液(19)	고다: 소뼈, 고기, 닭, 엿, 조청, 잉어, 뱀, 붕어, 염소, 녹용, 고구마조청, 사골, 감초
煲(4533)：汤(976), 粥(287), 冬瓜(216), 鸡(109), 水(106), 饭(61), 糖水(61), 鸡汤(59), 姜(45), 酱(24)	쑤다: 죽, 쇠죽, 팥죽, 풀, 미음, 메주, 묵, 두부
炖1(5727)：汤(435), 肉(401), 鸡(381), 蛋(335), 排骨(242), 牛肉(230), 菜(189), 蘑菇(157), 鸡汤(140), 羊肉(125)	
煨1(546)：汤(78), 葛根(39), 面(28), 番薯(26), 姜(17), 鸡(10), 肉(10), 肉果(8), 饭(8), 年糕粥(4)	우리다: 멸치, 치자, 황백, 울금, 곶감, 창포잎, 쌀뜨물, 차, 육수
煎2(4360)：汤(638), 水(329), 中药(111), 茶(101), 汤药(13)	달이다: 장, 간장, 보약, 한약, 약초, 약, 차, 뿌리, 감초, 삼, 초근 목피(草根木皮), 탕약, 매미, 살구씨, 머루, 개고기, 가물치
卤(2814)：蛋(583), 面(362), 牛肉(128), 鸡(83), 鹅(41), 猪(41), 豆腐(34), 鸡蛋(34), 翅(24), 豆(22)	
焖(1390)：鸡(118), 面(114), 羊肉(96), 饭(74), 肉(67), 大虾(47), 排骨(31), 鱼(30), 牛肉(30), 米饭(28)	뜸들이다: 밥, 백설기
煮(16545): 鱼(1041), 粥(954), 面(897), 蛋(653), 鸡蛋(509), 咖啡(483), 汤(467), 菜(465), 饺子(382), 饭(285)	끓이다: 탕, 국, 찌개, 소 미역국, 물, 차, 라면, 커피, 죽, 국수, 떡국, 숭늉, 커피, 우유, 버섯전골
烹1(425): 鱼(39), 羊(26), 虾(12), 大虾(10), 肉(10), 鸡(9), 鲤鱼(7), 料酒(6), 黄酒(5), 绿豆(3)	삶다: 국수, 스파게티, 달걀, 침구류, 메밀대, 수숫대, 돼지족, 쇠족, 닭, 잉어고기, 꿩, 고구마, 감자, 밤, 옥수수, 새우, 돼지고기, 문어, 고사리, 고동, 비말, 콩
烩2(1035): 面(324), 菜(120), 饭(93), 汤(30), 饼(24), 鸡(23), 牛肉(21), 豆腐(20), 肉(14), 番薯(13)	밥하다
汆[10](112): 水(38), 白肉(22), 羊肉(8), 汤(3), 牛肉(3), 萝卜(2), 猪肉(2), 疙瘩汤(2), 鸡(1), 面(1)	지지다1: 된장, 찌개
焯(332): 水(332), 菜(332), 肠(332), 虾(332), 芹菜(332), 海带(332), 韭菜(332), 鸡(332), 黄花菜(332), 苦瓜(332)	데치다: 냉이, 시금치, 미나리, 오징어, 푸른 채소, 밤, 느타리버섯
炝1(268): 虾(25), 肉(9), 土豆(8), 荠菜(4), 白菜(4), 虎尾(4), 蚝(3), 藕(3), 菠菜(3), 黄瓜(3)	
涮(1664): 锅(545), 肉(399), 火锅(116), 菜(70), 牛肉(18), 肥牛(11), 龙虾(7), 海鲜(7), 鲜肉(4), 鱼(4)	

9) BCC중국어말뭉치는 신문(20억), 문학(30억), 인터넷매체(30억), 과학기술(30억), 종합(10억), 고대한어(20억)등 총 글자 수 약150억 자를 수록하고 있다. BCC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언어생활의 전반적인 언어자료를 제공하는 대규모 말뭉치이다. BCC는 출현빈도가 표시되어있어 자주 결합하는 어휘간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熬'와 결합하는 어휘를 찾아보기 위해 BCC에서 검색 범위를 다영역(多领域)으로 한 후 '熬N'을 입력해 검색한 결과, 표3처럼 총2591개의 용례에서 '熬粥'는 368개의 용례가 검색된다는 의미이다. 한국어 말뭉치는 중국어 말뭉치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기 때문에 사전의 용례를 통해서도 각 의미소들이 결합하는 어휘를 찾도록 한다.

	조리다: 감자, 생선, 멸치와 고추(간장), 파인애플 등 과일(설탕물), 고기, 꽈리고추, 우엉조림 졸이다: 찌개, 장, 젓국, 수프, 바닷물, 멸치젓국, 간장, 동태의 애
炖2(5727): 雪(187), 木瓜(55), 梨(53), 冰糖(35)	중탕하다: 한약, 물약, 술, 버터, 호박, 배, 개, 염소, 약재

표2를 통해, ‘삶다류’ 어휘장에서 보이는 중국어와 한국어 어휘간의 결합관계를 알 수 있다. 언어 내부에서는 중국어는 겹침현상이 나타나고 한국어는 결합관계가 비교적 세분화되어 나타난다.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겹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 찌개 등과 결합되는 의미소가 ‘熬, 煲, 炖1, 煨1, 煎2, 煮, 烩2, 汆’으로 8가지나 된다. 화력(火力)이나 용기 등 각 조리법에 맞게 재료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나조리법이 비슷한 경우 출현빈도에 따라 ‘煲汤’ 또는 ‘炖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죽 종류와 결합되는 의미소는 ‘熬, 煲, 煨1, 煮’를 들 수 있지만 출현빈도에 따라 결합이 강하게 되는 어휘는 ‘熬’와 ‘煮’이다. 한약 등의 약재는 ‘熬’ 또는 ‘煎2’와 결합하며 출현빈도는 비슷하다. 그에 비해 의미가 비교적 세분화되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어는 결합하는 대상에 따라 어휘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고다, 쑤다, 달이다, 우리다’간에 서로 결합하는 대상이 차이를 보임으로써 변별의미를 갖는다. ‘고다’는 보통 장시간 푹 익혀야 하는 ‘고기’나 ‘뼈’가 주 결합대상이고, ‘쑤다’는 곡식의 알이나 가루가 주 결합대상이고, ‘우리다’는 맛이나 색 등의 성질이 액체 속으로 빠져나오게 할 때 쓰이므로 ‘멸치’나 ‘뿌리’등이 주 결합대상이며, ‘달이다’는 약재나 액체가 주 결합대상으로 진하게 끓이는 조리방법이다. 또한 ‘삶다, 끓이다, 밥하다, 지지다1’간에도 결합대상에 따른 의미차이가 보인다. ‘삶다’는 끓는 물에 재료를 넣고 익히는 조리방법으로 결합대상이 고체인 재료이지만, ‘끓이다’는 결합대상이 액체이다. ‘밥하다’의 결합대상은 ‘밥’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지다1’는 물이나 액체를 된장이나 찌개에 조금 넣어서 다시 끓이는 조리방법으로 결합대상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표 3 한중 ‘삶다류’ 어휘장 대응 관계

중국어 내부	의미범주	한국어 내부
熬＞煎2	＞	고다≠쑤다≠달이다≠우리다[11)]
煲≒炖1≒煨1	＜	(장시간)삶다≠끓이다
煮＞(汆≠烹1≠燴2)	＞	삶다≠끓이다≠밥하다≠지지다1
焖	＞	뜸들이다
炖2	＜	중탕하다
炝1＞焯	＞	데치다
涮	=	샤부샤부[12)]
卤		
		조리다
		졸이다

10) 주재료의 처리방법과 관련이 있는 조리법으로 주재료를 작게 썰어 탕에 넣어 완성하는 방법이다. ‘清汆’과 ‘混汆’으로 나뉜다. 是对主料热处理的一种方法, 也是一种烹饪方法。其主料多用细小的片、丝、条等, 成品多汤。分为清汆和混汆。(李廷芝, 2019:128)

11) ‘우리다’와 대등하는 어휘는 ‘泡’를 들 수 있다. ‘泡’의 사전적 의미는 ‘较长时间地放在液体中 : 泡一碗茶/ 把药泡在酒里/两手在肥皂水里泡得发白。(董大年, 2007:1098)’로써 ‘우리다’와 달리 조리동사로 보기는 힘들다.

12) 어휘 항목의 빈자리가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상위어, 하위어, 외래어, 통사적 요소를 통해 빈자리를 채우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임지룡, 2018:109) ‘샤부샤부’는 일본어 しゃぶしゃぶ에서 온 외래어 표기로 이 빈자리를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샤부샤부’는 우리의 전통 조리 동작이 아닌 이후에 생성된 음역어이다. 본고의 연구대

중국어와 한국어 어휘에서 혼동하기 쉬운 유사한 의미차이를 가지고 있는 의미소를 비교해보면, ‘熬’는 죽, 한약, 탕(찌개), 채소, 생선 등의 고기류, 차 등의 진액을 낼 때 사용될 수 있어서 한국어 ‘고다, 쑤다, 달이다’의 의미를 포괄한다. 따라서 ‘熬’의 의미의 범주가 가장 크며, 한국어 ‘고다, 쑤다, 달이다’는 재료대상에 따라 의미가 구별된다. ‘煮’ 또한 사용범위가 광범위하다. 생선, 채소 등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죽처럼 걸쭉한 상태를 조리할 때, 면이나 달걀처럼 익힌 후 건져내야 하는 재료에도 사용된다. ‘煮’는 ‘끓이다, 삶다, 밥하다’를 포괄하는 의미로 의미의 범주가 가장 크다. 반면에 ‘煮’가 장시간 불을 가하여 조리한다면 ‘熬粥’, 즉 ‘죽을 쑤다’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煮粥’와 ‘熬粥’, 그에 대응하는 ‘죽을 끓이다’와 ‘죽을 쑤다’는 의미의 변별이 필요하다. ‘焖’과 ‘뜸들이다’의 차이는 ‘뜸들이다’는 밥을 하거나 백설기처럼 떡을 찔 경우 사용되고, ‘焖’은 삶거나 끓인 후에 이루어져 대상이 다양하고 의미의 범주가 더 크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焯’와 ‘데치다’는 의미의 범주가 유사하며, ‘焓’은 ‘焯’와 ‘데치다’보다 의미 범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烩2’와 ‘지지다1’은 ‘烩2’가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지지다1’보다 더 다양하고, ‘煮’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지지다1’은 장류나 찌개와 결합하며 결합 가능한 어휘가 적다. ‘중탕하다’는 ‘炖2’보다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 과일류뿐만 아니라 한약, 술 등 더 많으므로 의미의 범주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표3에서와 같이[13] 중국어와 한국어 내부의 의미소간의 구체적인 대응 관계의 세부화 정도가 미세하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어 ‘卤’와 한국어 ‘조리다, 졸이다’에서 두 언어 간에 빈자리(lexical gap, 어휘 공백)[14]가 보인다. ‘卤’ 조리법은 중국어에서 보이는 특별한 요리법이라고 할 수 있고, ‘조리다’와 ‘졸이다’ 조리법은 한국어에서 보이는 특별한 요리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의미지도를 통한 의미 관계

임지룡의 『한국어 의미론』(2018:106)에서는 같거나 유사한 어휘 항목의 명칭인 동의어나 유의어의 존재, 어휘 항목이 일부 또는 전체가 녹아 붙은 동의중복어에서 ‘겹침(overlapping)’이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삶다류’ 어휘장에서 변별의미가 적은 의미소들 간에 의미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바로 겹침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5] 이는 ‘삶다류’ 어휘장의 어휘들 간에 서로 의미자질이 중복되어 의미소 사이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들과 결합하는 어휘들이 중복되어 공기할 수 있는 단어가 겹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의미 관계 속에 존재하는 ‘삶다류’ 어휘장의 의미소가 여러 의미성분으로 복잡한 의미자질을 이루고 있지만, 그중에서 물의 양과 관련이 있는 [침수(浸水)]와 불과 관련이 있는 [시간]의 의미특징을 기준으로 의미소들의 의미자질에 따라 특징을 유추해 그림1의 의미지도를 연상할 수 있다.

상은 품사가 동사에 한정하므로 명사인 ‘샤부샤부’는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3) 표3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대응 관계 또는 언어 내부에서 단어들 사이에 보이는 의미 대응 관계를 나타내며 ‘>’와 ‘<’는 의미 범주가 크거나 작다는 표기이고, ‘≒’는 의미 범주가 서로 비슷하다는 표기이며, ‘≠’는 뜻과 의미 범주가 다르다는 표기이다.

14) 윤평현(2016:92)은 개념적으로 있을 법하지만 실제로 어휘화가 되어 있지 않은 현상을 어휘적 빈자리(lexical gap, 어휘 공백)라고 한다고 제시하였다.

15) ‘煮’는 ‘烹1, 끓이다, 삶다’ 의미성분과의 겹침이 나타나며, ‘烹1, 끓이다, 삶다’는 각자 변별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좁아지고 명확해져서 ‘煮’보다 의미범주가 작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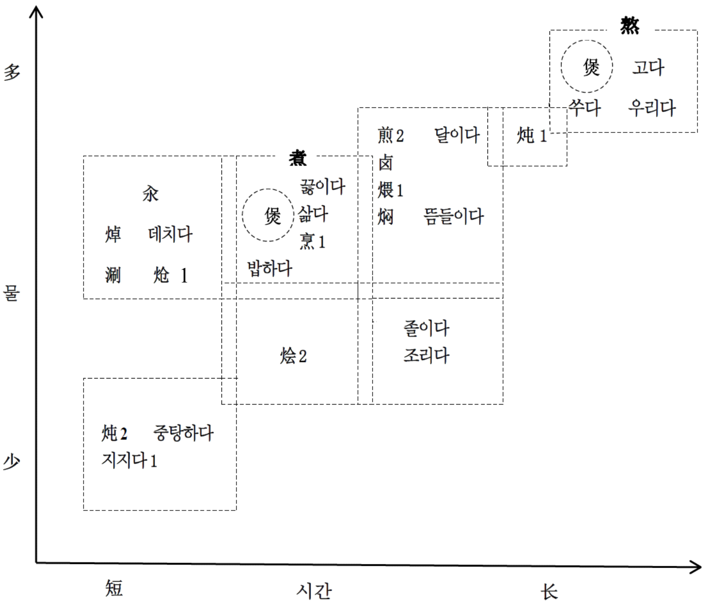


그림 1 '삶다류' 어휘장 의미소 의미지도

구체적인 연상과정을 살펴보면, '熬, 고다, 쑤다, 우리다'의 공통의미인 [+침수(浸水)], [+장시간], [+푹 익힌 재료상태], [+진한 액체상태]의 의미자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물을 넣고 장시간 열을 가했음을 알 수 있다. '炖1'은 주로 고기를 대상으로 [+침수(浸水)], [+장시간], [+푹 익힌 재료상태]의 의미자질을 통해 '熬, 고다, 쑤다, 우리다'보다 적은 시간이 걸리는 조리법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煲'는 '煮' 또는 '熬'의 조리법으로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조리법이라 할 수 있겠고, '煎2, 달이다, 卤, 煨1, 焖, 뜸들이다'는 공통의미인 [+침수(浸水)], [+장시간], [±푹 익힌 재료상태], [±진한 액체상태]의 의미자질을 설정할 수 있으며, 비교적 많은 물을 넣고 비교적 장시간 열을 가하는 조리법임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煮, 烹1, 끓이다, 삶다'는 공통의미인 [+침수(浸水)], [±장시간], [-푹 익힌 재료상태], [-진한 액체상태]의 의미자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조리시간과 물의 양이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밥하다'는 조리대상을 밥에 한정하여 [+침수(浸水)], [±장시간], [-흐물한 재료상태], [+고체상태]의 의미자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조리 후 상태가 밥인 고체가 되도록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물을 넣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焯, 汆, 炝1, 涮, 데치다'는 모두 액체가 끓어오른 후 짧은 시간 안에 재료를 익히는 조리법으로 그 중 '炝1'은 재료를 건져낸 후 무치는 [+후처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졸이다'와 '조리다'는 공통의미인 [±침수(浸水], [+비교적 장시간의 조리시간], [±아주 진한 액체상태]의 의미자질을 설정할 수 있으며, '煎2, 달이다, 卤, 煨1, 焖, 뜸들이다'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은 적게 걸리지만 물의 양이 많지는 않아서 비교적 걸쭉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 '炖2, 중탕하다, 지지다1'은 물을 적게 사용하고 조리시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6. 맺는 말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국어와 한국어 '삶다류' 어휘장의 의미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열조리동사에서 분류한 '삶다류' 어휘장의 어휘를 살펴보면 중국어 어휘가 한국어보다 그 종류가 많고, 의미소 개수 또한 더 많다. 이는 삶는 조리 방식에 있어서 중국어 표현이 좀 더 풍부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삶다류’ 어휘장에서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어휘화 정도가 높다. 이는 삶는 조리 방식에 있어 중국어 표현이 훨씬 많다는 의미와 연결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어휘의 빈자리를 ‘부사+동사’로 표현하면서 시간의 양에 따른 조리동작 표현을 나타내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炖1와 煨1의 의미는 장시간 열을 가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푹’ 등 정도부사와 결합해야만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汆’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열을 가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삶다’ 또는 ‘끓이다’ 앞에 정도부사 ‘살짝’ 등을 써서 대응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셋째, ‘삶다류’ 어휘장에서 중국어는 결합관계가 느슨하고 한국어는 결합관계가 강한 특성을 보인다. 중국어는 하나의 단어가 다수의 단어와 결합하여 의미 범주를 정하기가 난해하지만 한국어는 그에 비해 결합하는 단어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고 세분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 내부에서 ‘熬’의 의미는 ‘煎2, 煲, 炖1, 煨1’의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범주가 크고, ‘煮’ 또한 ‘汆, 烹1, 烩2’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범주가 크다. 반면에 한국어에서 ‘고다, 쑤다, 달이다, 우리다, 삶다, 끓이다, 밥하다, 지지다1’는 결합하는 단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혼용하여 쓰일 수 없다.

넷째, ‘삶다류’ 어휘장에서 두 언어 간의 어휘의 공백인 빈자리가 보인다. 중국어에서는 ‘조리다’와 ‘졸이다’에 대응하는 조리동사가 없고, 한국어에서는 ‘卤’에 대응하는 조리동사가 없다. 이러한 언어의 빈자리를 통해 하나의 언어가 반영하는 사회적 문화 특성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시적 시각에서 언어가 어떻게 대체되고 고착되는지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삶다류’ 어휘장의 하위동사를 대상으로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 간에 나타나는 의미의 유사성과 의미의 차이성을 사전과 코퍼스 분석을 통해 결합관계와 의미지도를 제시하였으나, 지면의 한계로 인해 두 언어의 조리동사 전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4月 17日(土) 14:50~16:10

어학(2) 분과

❖ 어 법

박혁재(한국외대) 현대중국어 방향보어의 粒子語性

서진현(전북대) ‘把’자문의 절대적 정보지위 고찰

김미금(黑龍江大學) 漢韓零句對比研究

밍양양(상지대) “V+在+NL”句式研究
— 以語義場景和意象圖式分析爲中心

현대중국어 방향보어의 粒子語性

박혁재*

<目 次>

1. 서론
2. 입자어의 이해
3. 방향보어 구문의 어순해석
4. 방향보어 구문의 논항구조와 의미
5. 결론

1. 서론

자연계의 액정(液晶, liquid crystal)은 액체(液體, liquid)와 고체(→ 結晶, crystal)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들어 언어에도 이중성을 가진 성분이 발견되었다. particle이 그것이다. particle은 게르만어파(Germanic Languages)[1]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본의(本義)는 '입자', '극소량'이다. particle은 평소에는 떠도는 먼지처럼 통사구조에서 고정적·배타적인 위치를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위치를 점유하며 단어처럼 행동한다. 일례로, 영어의 particle인 up, down, in, out, back 등은 술어의 논항구조와 무관한 성분이자 단음절이기에, 전통문법에서 흔히들 부사로 분류해왔다(Greenbaum 1990:336). 하지만 이들은 일부 술어 동사의 논항이 된다(1a). 심지어 자체 목적어를 갖기도 한다(1b). 독일어의 vor(~앞에) 등은 평소 동사에 붙어 한 단어처럼 해석된다(Zeller 2001:1). 하지만 주절동사가 V2 어순을 맞추기 위해 이동할 때, 주절동사를 따라가지 않는다(2).

(1) a. John put some toys **down**. John은 장난감 몇 개를 내려놓았다. 영어 [Emonds 1972:550]
b. Agnes chatted *(**up**) Magnus. Agnes는 Magnus에게 수작을 걸었다. 영어 [Mcintyre 2007:1]
(2) Er wirft$_i$ ihm seine Verfehlungen [**vor** t_i].
he throws him his lapses PRT 그는 그의 실수를 비난한다. 독일어 [Zeller 2001:1]

본 연구는 중국어의 방향보어가 보편 문법의 관점에서 'particle'이라고 주장한다. 즉, 방향보어는 '중국어에서의 particle'로 환원될 수 있다. 방향보어가 통사·어순·의미 속성에서 보편문법의 particle과 유사함을 보여 이를 증명한다. 나아가, 방향보어를 particle로 볼 때, 방향보어 구문의 어순, 논항구조 및 의미체계 등 복잡한 현상을 풀어낼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전통문법에서 중국어 동사 후속성분 -來 -去(이하 來류) 및 -上 -下 -進 -出 -回 -過 -起 -開(이하 上류)를 '보어(補語)'의 일부로 분류한다. 하지만 방향보어는 다른 보어류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속성을 지닌다. 방

* 한국외국어대학교

1) 변광수(2003a:18-19)에 따르면, 게르만어파(Germanic languages)는 인도-유럽어족(Indo-European family)의 10여개 하위 어군(subgroup)중 하나이며, 사용인구는 4억 5천만 명이다. 영어(English, 3억5천만), 독일어(German, 1억), 네덜란드어(Dutch, 2000만), 스웨덴어(Swedish, 900만), 덴마크어(Danish, 500만), 노르웨이어(Norwegian, 450만), 이디시어(Yiddish, 400만), 아프리칸스어(Afrikaans, 400만), 아이슬란드어(Icelandic, 25만) 등이 있다.

향보어는 동사와 분리될 수 있다. 방향보어는 다른 보어와는 달리 상표지 -了, 일반명사구(DP), 처소명사구(DP<Loc>), 전치사구(PP)와 어순상의 교체를 할 수 있다. (3)은 DP와 어순 교체하는 예이다.

(3) a. 父親用鬥笠裝**進來**一堆爛了半邊的桃子, …「蛙」
아버지는 삿갓으로 반쯤 썩은 복숭아 한 무더기를 담으셨다.
b. 母親 … 再派五姐送飯**進去**, …「豐乳肥臀」
어머니는 … 다시 다섯째 언니를 보내어 밥을 들여보내었다. …
c. 老太太…聽如便悄悄的站起來, 開了一線的窗戶, 放**進**空氣**來**, …「冰心全集第一卷」
노부인은 … 평소처럼 슬기롭게 조용히 일어나 앞의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여놓았다.

전통문법에서도 방향보어의 어순 교체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Chao(1968:350-351,355-356)는 보어 중에는 자유보어(free complements)가 존재하며 이들은 동사와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房玉清(1981:50-51), 徐靜茜(1983:56-59) 등은 방향보어가 동사 용법뿐 아니라 조사・어기사 용법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상을 엄밀히 따져보면, 동사와의 분리성은 방향보어 특유의 현상이다.[2] 또한 방향보어가 동사와 분리되어도 [공간이동]의 기본의미를 유지하므로 조사・어기사 범주로 분류하기 어렵다.[3]

한편으로, 생성문법 연구자 鄧思穎(2010:129-131), 熊仲孺(2012:247)는 방향보어의 분리성을, 수의적인 VP/vP 대동이동으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방향보어가 동사구(VP) 혹은 경동사구(vP)로 투사된다고 보고, 술어동사가 경동사 위치로 핵 이동을 할 때, 방향보어를 수의적으로 대동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VP/vP 대동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의 범위가 좁고, 그 이동이 수의적인 까닭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V DP DP/PP Prt 어순의 생성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방향보어가 과연 ‘중국어의 particle’인지 살피기에 앞서, 중국어학의 관점에서 particle을 어떻게 번역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언어학계에서는 연구언어에 따라 particle을 불변화사, 첨사, 소사 등으로 번역한다. 게르만어파의 particle을 연구하는 중국 문헌에서는 이를 小品詞(소품사)라고 번역한다. 그러나 '-詞(사)'를 붙여 번역할 경우, 단어 중 하나로 간주되기 쉬운 문제가 있다. 자연과학에서는 particle을 흔히 '입자'로 번역한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과학용어 역시 ‘粒子’이다. 그러므로 particle의 본의를 살리면서 자연과학과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particle의 번역어로 ‘입자어(粒子語)’를 제안한다.[4]

본 연구는 방향 술어동사인 上류 來류, VP 앞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來류, 문미에서 완료를 나타내는 來는 다루지 않고, 전통문법의 방향보어에 집중한다. 생성문법의 구 구조 이론과 역Y 문법모형, 자질개념을 방법론으로 한다. 생성문법은 보편 문법을 전제로 하기에 개별언어들의 공통점을 관통하는 원리를 포착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언어 현상을 엄밀하게 귀납하여 이론을 정립하기를 추구하므로 형식주의 통사론(formal syntax)으로 불리운다. 현대중국어 방향보어 구문은 어순의 경향성, 의미 등에서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아직 이론적으로 일관된 체계화는 갈 길이 멀다. 본 연구가 포전인옥이 되길 바란다.

---

2) 黃伯榮・廖旭東(2007:69,74), 鄧思穎(2010:118) 등에서 보어(補語)를 서술어 뒤에 위치하는 용언성 성분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방향보어는 용언이 아니다. 하지만, 보어를 서술어 후속 비명사성 성분으로 재정의한다면, 방향보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黃・廖(2007:75)의 보어 목록을 문법 층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분류할 수 있다.
a. 형태소성 보어: 結果補語, 可能補語 / b. 입자어성 보어: 趨向補語
c. 단어성 보어: 程度補語 數量補語 時地(介詞)補語 / d. 절성 보어: 情態補語

3) 방향보어는 a) '공간이동'이라는 어휘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며 b) 어순 교체를 할 수 있다. 또한 c) 자체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며, d) 술어동사의 논항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전통문법의 조사(助詞)에는 없는 속성들이다.

4) clitic을 한국・중국 어학계에서는 ‘접어’・‘黏附語’로 번역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 입자어의 이해

2.1 통사 속성

생성문법의 구 구조 이론에서 입자어는 V의 보충어로서 준동사구(V')를 이루거나 V어근과 인접한 어근핵으로서 동핵구조(V^0)를 이룬다. 예를 들어, 영어, 독일어의 경우 준동사구를 이룬다(4-5). 영어 일부 구문의 경우, 동핵구조를 이룬다(6). 또한 입자어는 대체적으로 논항구조와 무관하게 쓰이지만, 일부 구문에서 술어동사의 논항도입에 영향을 준다(7).

(4) a. The children darted *{**in** / **back**}.
그 아이들은 {안으로 / 돌아서} 눈길을 던졌다. 영어 [Emonds 1972:550]
b. dat Jan de bal <u>pal</u> **over** heeft geschoten.
that Jan the ball right Prt has shot
Jan이 그 공을 바로 저편으로 던진 것 독일어 [Den Dikken 1995:108]
(5) a. [$_{vP}$ DP the children [$_{v'}$ v [$_{VP}$ V dart Prt in/back]]]
b. …[$_{vP}$ DP Jan [$_{v'}$ [$_{VP}$ DP de bal [$_{V'}$ <u>pal</u> **over** [$_{V}$ geschoten]]] v]]
(6) a. I handed John **down** the spanner.
나는 John에게 아래로 스패너를 건네주었다. 영어 [Mcintyre 2007:8]
b. …[$_{vP}$ I [$_{v'}$ hand v [$_{VP}$ DP John [$_{V'}$ [$_{V0}$ ~~hand~~ down] DP the spanner]]]]
(7) Gabi will das Problem *(**an**)denken.
Gabi wants the problem *(at) think
Gabi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시작하기 원한다. 독일어 [Mcintyre 2007:6]

2.2 통사-음운 속성[5)]

입자어는 어순 측면에서 독특한 성질을 보인다. 영어(8), 노르웨이어(9), 아이슬란드어는 입자어와 명사구 사이에 어순 교체 현상이 발생한다.

(8) John looked the information **up**. / John looked **up** the information.
John은 그 정보를 찾아보았다. 영어 [Kayne 1985:101]
(9) Han spiste tørrfisken **opp**. / Han spiste **opp** tørrfisken. 노르웨이어 [Svenonius 1996a:55]
he ate the.dry.fish up he ate **up** the.dry.fish 그는 말린 생선을 다 먹어치웠다.

2.3 의미 속성

입자어는 [±공간이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공간이동]의 경우 사역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10),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12). [-공간이동]의 경우는 상의미를 나타내거나(13), 동사와 결합하여 숙어의미를 갖는다(13).

(10) I tip the water **out**. / I tip **out** the water. 나는 물을 엎질렀다. 영어 [Mcintyre 2007:6]
(11) A supply train followed the climbers **up**. 보급열차가 등산객들을 따라 올라갔다. [Sven 1996b:4]
(12) She played **on.** 그녀는 연주를 계속했다. 영어 [Mcintyre 2007:6,8, Fraser 1968]

5) 본 연구는 (8)-(9) 어순 결정의 요인을 역Y 문법모형에 따라, 통사-음운 접합면(PF)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겠다. a) 교체에 따른 의미변화가 없고, b) 음절상의 길이가 교체의 제약조건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13) John will turn that job **down**. / John will turn **down** that job. John은 그 일자리를 거절할 것이다.

요컨대, 입자어는 '동핵구조나 준동사구를 구성하고 명사구 등의 성분과 어순 교체・논항도입을 할 수 있으며 공간이동・상・숙어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방향보어 구문의 어순 해석

동사와의 분리성 및 DP 등과의 어순교체는 방향보어 구문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다. 방향보어 구문의 분리성 및 어순교체 현상은 '입자어설'을 통해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해석된다.

3.1 어순 해석의 전제

방향보어를 particle로 볼 때, 준동사구(V')와 동핵구조(V^0) 중 어느 쪽을 구성하는가? 준동사구는 '술어동사핵-구'의 결합인 반면, 동핵구조는 '술어동사 핵-의존성 핵'의 결합이다. 확장 테스트를 해보면, 동사-방향보어 구조는 형용사성 부사어 '慢慢的'의 수식을 받으며 '구'로 확장될 수 있다(14a). 그러나 방향보어 단독으로는 그러한 수식을 받을 수 없다(14b). 그러므로 방향보어는 구로 확장될 수 없는 의존성 핵이며, 동사-방향보어 구조는 동핵구조이다.

(14) a. 婆媳楞了一會兒, 慢慢的[走出來]。「四世同堂」 / b. *婆媳楞了一會兒, 走慢慢的[出來]。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방향보어는 명사구 등과 어순교체에 따라 의미의 변화를 주는가? 다수의 관점은 의미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 예를 들어 房玉清(1981:51-52), 張伯江・方梅(1995:97), 劉月華(1998:40-48), 劉月華 外(2001:572,576)는 방향보어구문이 어순에 따라 완료상-비완료상, 평서 어기-명령 어기의 변화가 일어난다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규칙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화용적인 경향으로 보아야 한다.

방향보어가 명사구 등의 뒤에 놓이는 어순은 동핵구조 속의 방향보어가 의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옮겨간 결과이다. 이러한 이동은 역Y 문법모형에서 통사-음운 접합면(PF)에서 일어난다.6)

3.2 어순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

본 연구는 BCC 말뭉치를 어순유형별로 상세히 검색하고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방향보어 구문의 어순교체는 다음의 규칙으로 귀납된다. 첫째, 來류는 -了, DP, PP, DP <Loc>를 넘어 우향 이동할 수 있다(15). 둘째, 上來류는 -了, DP, PP를 넘어서 우향 이동할 수 있으나 DP <Loc>는 넘지 못한다(16).

(15) a. 地裏的花生收上來了, 老人又換成花生油捎了來。「人民日報」(1995/8/1)
땅에서 난 땅콩을 수확하자, 노인은 또한 땅콩기름으로 바꾸어서 가져왔다.
b. 周氏噓了一口氣, 對綺霞說：“你也給我倒一杯茶來。” 「秋」
주씨는 한숨을 쉬며 기하에게 말했다. “저에게도 차 한 잔 따라주세요.”
c. 喏, 叫她把首飾留下來一點, 好東西不要帶到內地去了, …「陸犯焉識」

6) 통사부에서 PF로의 이동은 국면(phase) 곧 vP나 CP 단위로 이루어진다(Chomsky 2001 등). 국면까지 고려할 때, 방향보어는 vP 단계에서 PF로 넘어가(문자화), 'vP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 된다. 이러한 PF 우향이동설을 확장하면, 방언에서 시제-어기 표지 來의 문법화나 문미조사의 어순 문제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자, 그 여자더러 장신구는 좀 남겨놓고 좋은 물건은 내지로 가지고 가지 말도록 해.
d. (我) 卸任以後, 最近竟跑香港**來**了！”「戰爭和人」
(나는) 사직하고서 최근에 홍콩으로 도망쳐 나왔소!

(16) a. 他…將那把剪刀, 哧地拔了**出來** ——一股子藍色的血躥出來。「四十一炮」
그는 … 그 칼을 쭉 뽑아내었다. 한줄기 푸른 피가 뿜어져 나왔다.
b. (母親)再派五姐送飯**進去**,…「豐乳肥臀」(어머니는) 다시 다섯째 언니를 보내 밥을 들여보냈다.
c. 波斯人很大一部分是幾千年前遷移到伊朗高原上**來**的雅裏安人, …「千年一嘆」
페르시아인의 상당수는 수천 년 전 이란 고원으로 이주해 올라온 아리아인인데…
d. *(我) 卸任以後, 最近竟跑香港**出來**了！

구 구조 이론에서는 동사핵 V 위에 경동사핵 v가 존재하며, 동사핵(+了) 혹은 동핵구조(+了)는 v로 핵이동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來류・上來류는 v 또한 넘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17).

(17) a. <PF> [$_{vP}$[[V $\text{Prt}_{來}$] (-了)] v] (DP/PP/ Loc<DP>)] $\text{Prt}_{來}$

b. <PF> [$_{vP}$[[V $\text{Prt}_{上}\text{Prt}_{來}$] (-了)] v] (DP/PP/ *Loc<DP>)] $\text{Prt}_{上}\text{Prt}_{來}$

3.3 어순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上류가 쓰인 구문의 어순을 귀납하면, 上류는 동사에 인접할 뿐, 어순 교체를 하지 않는다(18).

(18) a. 齊恒公聽了管仲的話, 把這三個小人 {趕**出**了/*趕了**出**} 朝廷。「山居筆記」
제나라 환공은 관중의 말을 듣고서 세명의 소인을 조정에서 쫓아내었다.
b. 主持人…{介紹**出**第一位偶像歌手/*介紹第一位偶像歌手**出**}, 換來現場一片尖叫聲。「家有情郎」
사회자는 첫 번째 아이돌 가수를 소개해서 나오게 하며 현장을 온통 비명소리로 바꾸었다.
c. 覺新把信箋折好 {放**回**在信封裏/*放在信封裏**回**} 。「春」
각신은 편지지를 접어서 편지봉투 속에 되돌려 넣었다.
d. 只聽到蔔咚的一聲, (鐵錘) {沈**下**水底了/*沈水底**下**了}, …「建設」
단지 풍덩 소리를 들었는데, (망치가) 물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흥미로운 점은 (16)에서 上來류는 上류와는 달리 다른 성분과 어순교체를 한다는 점이다. 이는 上류가 왼쪽이나 오른쪽 중 하나에 붙어야 하는 '접어(clitic)성' 입자어라고 보면 해석된다. 평소에 上류는 동사어근에 붙는다. 그러나 來류과 함께 올 경우, 來류에 붙어 어순교체를 할 수 있다. 上류를 접어성 입자어로 보면, 고정 어순인 'V-上류-DP<Loc>-來류' 또한 해석된다.

(19) a. *林芬芳是不是掉廁所裏**進去**了, … / b. *林芬芳是不是掉**進去**廁所裏了, …
c. 林芬芳是不是掉**進**廁所裏**去**了, 這麼久還沒有回來。「許三觀賣血記」
임분방이 뒷간에 빠진 거야?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다니.

목적어가 일반명사구일 때, 來류는 上류 뒤에 붙어 있을 수 있고(3a), 上류가 來류를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3b). 그러나 처소명사구 DP<Loc>는 이러한 어순이 모두 불가능하며, 上류는 동사 오른쪽 자리를 지켜야 하고 來류는 반드시 처소명사구 뒤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먼저, (19c) 上류 '-進'이 술어동사가 처소명사구 목적어를 갖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 -進은 일종의 타동성 자질을 가지며, 어순 생성에서 타동성이 없는 -進과 다른 성질을 보인다. [-타동]의 -進이 왼쪽의 동사나 오른쪽의 來류 둘 중 하나만 붙어도 되는 접어성을 갖는다면(=약접어성), [-타동]의 -進은 왼쪽에는 동사어근, 오른쪽에는 처소명사구 둘다 붙어야 하는 접어성을 갖는다(=강접어성). 그러므로 (19)에서 去는 (19b)처럼 제자리에 있을 수 없고, 廁所裏(뒷간)에 자리를 양보하고 그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8] 이를 일반화하면 (20)과 같다.

(20) <PF> [$_{vP}$[[[V Prt$_{\text{上}}$ Prt$_{\text{來}}$] (-了)] v] Loc<DP>}] Prt$_{\text{來}}$

4. 방향보어 구문의 논항구조와 의미

4.1 방향보어 구문의 논항구조

자동술어문과 타동술어문에서 공통으로 방향보어는 논항구조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21), 논항구조에 관여하여 술어동사가 처소명사구 목적어를 갖도록 도울 수도 있다(22).

(21) a. 天天都有学生跑**來**。「天行者」이후로, 매일 학생이 달려왔다.
b. 旷漠的田野使王香火轻轻吐**出**了一口气 。「一个地主的死」
광막한 들은 왕향화로 하여금 가볍게 숨을 내뱉게 하였다.
(22) a. 他走**上**<u>桥头</u>, 高扬手臂, 大声喊道, …「第二个太阳」
그는 다리에 걸어올라 팔뚝을 쳐들고 크게 외쳤다.
b. 他又掰一牙儿南瓜, 抹一层糖精, 再塞**進**<u>窗口</u>。「陆犯焉识」
그는 또한 호박을 한 이빨 쪼개고 사카린을 발라 다시 창문에 쑤셔넣었다.

4.2 방향보어 구문의 의미

방향보어의 의미는 [공간이동]자질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공간이동]의 경우, 사역성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결과])와 기동성 결과나 부차적인 방향을 나타내는 경우([-결과])로 나뉜다(23-24). [-공간이동]의 경우, 상황상을 나타내는 경우[+상]와 동사와 결합하여 숙어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상]으로 나뉜다(25-26)[9]. 방향보어는 방향술어동사에서 유래하였고 다시 의미에 따라 [+공간이동] > [-공간이동][+상]으로 문법화하였다. 이와 같은 문법화 순서는 모두 V/v 복합핵 내부의 현상으로 환원될 수 있다.

(23) 有人在草地上挖, 終於挖**出**了煤炭…「陸犯焉識」사람이 풀밭을 파다가 마침내 석탄을 파냈다.
(24) 我看要趕快打個電報給大爺**去**。「金粉世家」내가 보니 속히 큰 나으리께 전보를 쳐야 해.
(25) 漢口的市面卻是一天一天地冷**下去** 。「騎士」한구의 길거리는 도리어 나날이 추워져 간다.
(26) (措施)包括不斷提升技術, …<u>走**出去**</u>到國外辦企業等等… 「人民日報海外版」(2005/4/29)

---

7) (21c)에서 -進을 지우고 *掉()廁所裏去了로 쓸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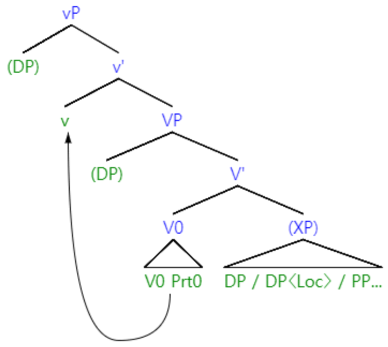
8) 대격 부여를 위해 上류가 통사부에서 반드시 처소명사구 목적어와 인접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도 있다. 김종호 박혁재(2016)는 上류가 동사로 가정하고, (21)의 어순을 대격 부여와 국면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의 입자어설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9) 劉月華(1998) 등이 말하는 結果意義(목적달성 의미)는 형식주의 관점에서 [-공간이동][-상] 즉 숙어의미로 귀결된다.
예) 老人[買上]了飛機票。노인은 비행기표를 구매했다. [劉月華 199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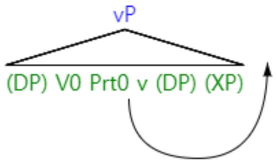
(조치에는) 부단히 기술력을 높이고 … 해외로 진출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5. 결론

2-4장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국어 방향보어 구문의 통사구조와 어순 생성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통사부(narrow syntax)>



<통사-음운 접합부(PF)>

게르만어파의 입자어와 중국어 방향보어를 비교하면, 둘은 통사·어순변화·의미 속성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게르만어파의 입자어는 준동사구나 동핵구조를 이루는데 중국어는 동핵구조를 이룬다. 방향보어가 부사수식을 받지 않으며, 상황상(situation aspect)으로의 문법화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어의 입자어에서 上류는 접어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上류는 동사에 붙어 어순을 유지하기도 하고 來류에 붙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중국어 방향보어 구문의 복합적인 어순들이 파생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말뭉치 검색을 통해 방향보어 구문자료를 어순과 논항구조에 따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둘째, 게르만어파 particle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중국어 방향보어와의 속성을 비교하였다. 셋째, 형식주의 방법론으로 방향보어 구문의 어순 분포 및 논항구조·의미를 설명하였다.

‘把’자문의 절대적 정보지위 고찰*

서진현**

<目 次>

1. 서론
2. 절대적 정보지위 위계
3. ‘把’자문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
4. ‘把’자문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5. 결론

1. 서론

현대중국어는 SVO형의 어순이 기본적인 문형이다. 그래서 SOV형의 ‘把’자문1)은 특수한 경우로 인식되어왔다. ‘把’자문은 어순의 변형도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把’자를 활용하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 글에서는 ‘把’자문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고찰함으로써 해당 문형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중국어 ‘把’자문의 정보구조를 고찰한 연구2)가 있으나 이는 상대적 정보지위 관점에서 주제와 초점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여, NP_2의 특성과 ‘把’자문이 왜 사용되는지는 다뤄지지는 않았다. 또한 절대적 정보지위 관점으로 현대중국어 명사구 실체(entity)에 대한 연구3)가 이루어졌지만, 중국어 언어현상 전체적인 범주에서 명사구 실체의 주어짐성(giveness)을 살펴본 것으로 명제(proposition)의 주어짐성은 다루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把’자문이라는 문장형식을 사용하고, ‘把’자 뒤의 명사(구)가 한정적 혹은 특정적이라는 특성이 절대적 정보지위 고찰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첫째, 명사구 실체와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담화에서 ‘把’자문이 사용될 때 공유될 수 있는 명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把‘자문을 사용하는 이유와 ’把‘자 뒤의 NP_2 성분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절대적 정보지위 위계

이 글에서는 지시체의 인지적 위계에 관한 연구4) 중에서도 Prince(1992)의 체계를 따르도록 한다. 그가 제시한 체계는 ‘청자 지식5)’과 ‘담화6)’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주어짐성을 판단하고 나아가 두 기준인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3227)
** 전북대학교

1) Sun & Givón(1985), 陸建明(2016), 鄧守信(2011), 김세미(2009)등 참조.

2) 김세미(2009), 陸建明(2016) 등.

3) 백은희(2009) 참조.

4) a. Chafe(1987)의 활성화 위계: 활성적 > 준(semi)-활성적 > 비활성적
b. Ariel(1988)의 접근가능성 위계: ∅ > herself > she > SHE > This > That > This hat > That hat > That/this hat we bought last year > Joan > Smith > The president > JoanSmith > Joan Smith, the president
c. Gundel et al.(1993)의 주어짐성 위계: 초점에 있음 (it) > 활성화 (that, this, this N) > 친숙 (that N) > 유일 확인가능 (the N) > 지시적 (비한정적 this N) > 유형 확인가능 (a N)

5) 청자-구/신의 기준은 화자가 가정하기에 명사구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청자의 머릿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지와 관련된

청자의 지식과 담화의 신/구를 나누어 분류하였다. 그래서 다른 체계와 비교할 때, 보다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지시체의 정보지위를 확정 지을 수 있다.

Prince(1992)가 제시한 청자/담화-구/신 위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Prince(1992)의 청자/담화-구/신 위계:
담화-구・청자-구[7] > 담화-신・청자-구[8] > 담화-신・청자-신[9]

청자의 지식체계와 담화 상황에서 해당 지시체가 '구(old)'인 경우에는 절대적 정보구조가 높은 위계를 갖고, 청자의 지식체계와 담화 상황에서 해당 지시체가 '신(new)'인 경우로 갈수록 절대적 정보구조가 낮은 위계를 갖는다.

최윤지(2016:33)는 '담화-구' 지시체의 주어짐성을 다시 거리와 의미적 관계에 따라 활성화와 준활성화 정도로 위계를 나누었다. 거리는 다시 화・청자와 실제 지시체의 물리적 거리와 지시체가 담화주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주제적 거리로 분류하고, 실제 지시체와 표현의 동일지시 여부를 통해 의미적 관계를 판별하여 활성화 위계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윤지(2016)의 절대적 정보지위 위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절대적 정보지위 위계:

담화-구[10]	>	담화-신・청자-구	>	청자-신[11]
활성화 > 준활성화				

이를 기준으로 담화에서 나타난 'NP₁+把+NP₂+VP'로 구성되는 '把'자문 명사구 실체와 명제의 절대적 정보구조를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정보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 단일 문장이 아닌 ≪家有兒女(第一部)≫[12]의 담화 속 '把'자문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3. '把'자문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

'NP_1+把+NP_2+VP'의 구조에서 NP_1과 NP_2의 표현 형식에 따른 '把'자문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

다. (Prince, 1992:300 참조)

6) 담화라는 기준은 화자가 가정하기에 해당 명사구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담화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지 아닌지와 관련된다. (Prince, 1992:300 참조)

7) '담화-구・청자-구'는 선행담화에서 이미 주어진 요소이며, 청자는 선행담화에서 제시되어 청자의 기억이나 지식에 편입되었거나 청자 본래의 지식체계에 장기기억으로 주어진 지시체를 의미한다.

8) '담화-신・청자-구'는 선행담화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나 정보가 청자의 장기기억에 존재하여 청자에게는 주어져 있지만, 담화에서는 새로운 실체를 말한다.

9) '담화-신・청자-신'은 선행담화에서 주어지지 않았고, 청자의 장기기억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지시체를 의미한다.

10) '청자-구'라는 요소는 '담화-구'일 수도, '담화-신'일 수도 있으나 '담화-구'라는 요소는 반드시 '청자-구'라는 요소로 대응되기 때문에 Prince(1992)의 '담화-구・청자-구' 대신 최윤지(2016)에 따라 '담화-구'로 통칭하기로 한다.

11) '담화-신'은 '청자-구'일 수도 '청자-신'일 수도 있지만 '청자-신'은 담화-신으로만 대응되기에 Prince(1992)의 '담화-신・청자-신' 대신 최윤지(2016)에 따라 '청자-신'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12) 실제 담화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家有兒女(第一部)≫의 예문을 사용하였다. 이 드라마의 시나리오는 그 시대적 배경이 현재이고, 중심인물들이 표준어를 사용하며, 일상적 대화로 이루어진다. 또한 드라마 방영 내용이 중국어 교육을 위한 책으로도 출판되어 있어 대화 내용을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분석 대상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家有兒女(第一部)≫의 담화 속에 나타난 'NP$_1$＋把＋NP$_2$＋VP'의 구조를 가진 '把'자문 중 NP$_1$과 NP$_2$의 표현 형식은 대명사, 원형명사(bare noun), 명사구, 영대명사(zero pronoun)형식으로 나타난다.

〈표1〉 명사구 실체 표현 형식별 절대적 정보지위

<table>
<tr><th rowspan="2"></th><th rowspan="2">대명사</th><th rowspan="2">원형명사</th><th colspan="3">명사구</th><th rowspan="2">영대명사</th></tr>
<tr><th>기본연합구</th><th>这＋N</th><th>那+(量)+N</th></tr>
<tr><td>NP$_1$</td><td rowspan="2">담화-구
(활성화)</td><td rowspan="2">담화-신・청자-구</td><td>담화-구
(활성화)</td><td>담화-구
(활성화/준활성화)</td><td>담화-구
(준활성화)</td><td>담화-구
(활성화)</td></tr>
<tr><td>NP$_2$</td><td>담화-구
(준활성화)</td><td>담화-신・청자-구</td><td>담화-구
(활성화)</td><td>・</td></tr>
</table>

'把'자문 명사구 실체 표현 형식에 따른 절대적 정보지위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대명사로 표현되는 NP$_1$과 NP$_2$는 모두 '담화-구'지위를 갖고 활성화 상태로 나타나고, 원형명사로 표현되는 NP$_1$과 NP$_2$는 모두 '담화-신・청자-구'의 지위를 갖는다. 기본명사구로 표현되는 NP$_1$은 '담화-구'지위를 띄며 활성화 상태인 반면 NP$_2$는 동일하게 '담화-구'지위이면서도 준활성화 상태이다. '这＋N'으로 표현되는 NP$_1$은 '담화-구'지위를 갖고 활성화와 준활성화 상태가 다 나타난다. 반면에 NP$_2$는 '담화-신・청자-구'의 지위를 갖는다. '那+(量)+N'형식으로 표현되는 NP$_1$과 NP$_2$는 '담화-구'라는 절대적 정보지위를 갖지만 각각 준활성화와 활성화의 지위를 갖는다. 영대명사로 표현되는 NP$_1$도 '담화-구'지위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활성화 상태이다.

4. '把'자문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刘月华・藩文娱・故韡(2008)는 '把'자문이란 어느 사물이나 사건 혹은 인물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 명령・ 서술・설명하고 해당 사물이나 사건 혹은 인물이 이미 어떤 변화나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把'자문에 대한 구조 및 기능적 특징[13]을 기반으로 'NP$_1$＋把＋NP$_2$＋VP' 형태가 갖는 명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把'자문의 명제]
a. 명제 1: VP를 거쳐 NP$_2$에 어떠한 변화나 결과가 생긴다.
b. 명제 2: 청자는 NP$_2$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c. 명제 3: NP$_1$은 동작 변화 혹은 동작으로 인한 결과의 유발자이다.

담화에서 '把'자문이 사용된다면, 화・청자 간에 이 세 가지 명제들이 공유되어 이를 기반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담화에 제시된 '把'자문 예문으로 이 각각의 명제가 갖는 절대적 정보지위는 무엇인지 고찰해 보기로 한다.

4.1 '명제1'의 절대적 정보지위

(1) 夏　雪：我们语文老师说了，如果要想写一種小动物啊，必须要仔细地观察。我呢，就準备把它**贴在我的卧室里**，要天天地观察，我一定要好好地描绘一下这個小老鼠。

13) 黃宣範 译(2008), 劉月華・藩文娛・故韡([2001]2007), 呂淑相([1980]2008), 吕福波([2011]2019) 참조.

예문(1)에서 '夏雪'는 동물을 관찰하기 위해 그 동물 그림을 거실에 붙이려 한다. 이 예문에서도 '它'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청자들은 모르고 있다. 즉 예문(1)은 '그 동물 그림을 X하게 하다.'라는 명제를 갖는다.

이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NP_2를 X하게 하다.'라는 명제는 청자들은 모르고 있고, 담화에서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자-신'의 정보지위를 갖는다.

4.2 '명제2'의 절대적 정보지위

'把'자문의 두 번째 명제는 '화・청자는 모두 NP_2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이다. 즉 달리 표현하면 '화・청자는 x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명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살펴보았을 때 원형명사라는 표현 형식만으로는 바로 그 지시체를 나타내는 한정적 용법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그 한정적이라는 성질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Firbas(1966)가 제시한 의사소통의 역동성(CD:Communicative Dynamism)은 문장의 각 요소가 의사소통을 추진하는데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문장요소가 지니는 CD값은 주어짐성과 대조적으로, 문장은 CD값이 낮은 성분에서 높은 CD 값을 갖는 성분 순서로 선형으로 구성된다.

(2) 夏　雨：而且还交男朋友！
　　刘　星：还把**男朋友**带家来！

(3) 胡一统：有道是"每逢佳节倍思亲"，我来接我兒子一起过一個团圆年。......哎哎哎，你是不是也想把**孩子**接走，一起聚一聚呀？
　　玛　丽：对呀！那當然了！

예문(2) '刘星'에서 제시된 원형명사 '男朋友'는 선행담화에서 제시되어 지칭하는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夏雨'가 언급한 그 '男朋友'를 '刘星'이 언급한 것으로 앞서 언급된 그 '男朋友'라는 것을 화・청자가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화・청자는 x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남자친구를 알고 있다.'는 명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문(3)에서 '胡一统'이 '玛丽'에게 언급한 '孩子'는 선행담화에서 제시된 '我兒子'가 아니다. 그러나 담화에 참여한 '胡一统'은 '刘星'의 친부이고, '玛丽'는 '夏雪'와 '夏雨'의 친모로 명절을 보내기 위해 각자의 아이들을 데리러 온 상황으로 예문(3) '胡一统'의 발화에서 '孩子'는 텍스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지만 상황적으로 지시체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 또한 '把'자문의 두 번째 명제인 '화・청자는 x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를 통해 그 '孩子'가 누구인지가 구체화된다. 그래서 '화・청자인 '胡一统'과 '玛丽'는 x가 그 아이인 것을 안다.'가 성립되어 '명제2'는 '담화-구'라는 정보지위를 갖는다.

예문(2-3)은 모두 'NP_1+把$+NP_2+VP$'순으로 구성된 문장으로 Firbas(1966)가 제시한 CD값에 따르면 NP_2는 NP_1보다 CD값이 높으나 VP보다는 CD값이 낮은 중간 정도의 CD값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문장의 어순으로 인하여 주어짐성이 '$NP_1 > NP_2 > VP$' 순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주어짐성이 높다는 것은 화・청자가 담화에 제시된 지시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도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체를 지칭하는지도 아는 것이다. 즉, 예문(2-3) 중 '男朋友', '孩子' 모두 원형명사 형식으로 제시되었으나 문장에서 '把'와 함께 NP_1 바로 뒤에 사용되어 비교적 높은 주어짐성을 지녀 해당 지시체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Li & Thompson(2008)도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에 위치한 명사구 실체는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

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대중국어 '把'자문에 사용되는 NP_1과 NP_2는 어순의 특수성으로 두 명사구 실체 모두 술어 앞에 위치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NP_1과 NP_2는 모두 한정적인 것으로 청자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

(4) 刚才我把**一個孩子**撞倒了。14)

예문(4)에서는 NP_2에 비한정 명사인 '一個孩子'가 사용되었다. 이 명사 실체의 정보지위는 '청자-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명제2'에서 볼 수 있듯이 '把'자문은 화・청자가 발화할 시 NP_2가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즉 화・청자는 '一個孩子'가 '我'가 부딪쳐 넘어지게 한 그 '孩子'를 가리키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一個孩子'라는 비한정을 나타내는 명사 실체라 하더라도 명제로 인하여 해당 '담화-구'라는 절대적 정보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문장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두 번째 명제인 '화・청자는 x가 무엇인지 안다.'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명제는 개념적으로만 x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지칭하는 특정 x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다. 이렇듯 두 번째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는 '담화-구'로 분석된다.

4.3 '명제3'의 절대적 정보지위

'把'자문의 세 번째 명제는 'NP_1은 동작 변화 혹은 동작으로 인한 결과의 유발자이다.'이다. NP_2를 VP를 통해 변화시키는 동작의 주체가 NP_1이라는 것이다. 예문을 통해 그 명제의 정보지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5) 刘　梅：哎哟, 这谁呀！**谁**把你这鼻子上抹这麼多果酱啊？
　　夏　雨：我忘了。

예문(5)의 '刘梅'의 담화에서는 '너의 코에 잼이 많이 묻어있고, 이 잼을 묻힌 사람은 x이다.'가 명제로 나타난다. 이 x에 해당하는 실체가 문장의 NP_1에 해당한다. 해당 예문에서 'NP_2를 VP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은 NP_1이다.'라는 세 번째 명제는 청자들이 그 변화를 유발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있고, 담화에서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자-신'의 정보지위를 지닌다.

5. 결론

이 글에서는 명사구 실체의 주어짐성과 명제의 주어짐성을 동일선상에 두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把'자문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고찰하였다.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고찰한 결과 표현 형식에 따라 그 절대적 정보지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동일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NP_1, NP_2의 각 위치에 따라 그 정보지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NP_2에 사용된 명사구 실체의 정보지위는 '담화-구'혹은 '담화-신・청자-구'지위를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현대중국어 '把'자문의 명제를 세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 중 'NP_2를 X하게 하다.'인 '명제1'과 'NP_2에 VP하게 한 사람은 x이다.'인 '명제3'은 모두 '청자-신'이라는 절대적 정보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청자는 NP_2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명제2'는 '담화-구'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명제2'로 인하여 '把'자 뒤의 NP_2가 한정성 혹은 특정성을 갖는다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었다. 즉, NP_2의 명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가 어떠하든지 '把'자문 NP_2의 한정성

14) 劉月華・藩文娛・故韡([2001]2007:734)에서 인용.

혹은 특정성은 '把'자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규명하였다.

특히 명제가 나타내는 정보를 화제나 초점 등 명제를 구성하는 부분의 역할에 따라 평가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통합된 단위의 명제의 주어짐성을 살펴 명사구 실체만을 보았을 때 확인할 수 없었던 '把'자문이라는 문장 형식을 사용하는데, '把' 뒤의 명사(구)가 한정적 혹은 특정적임을 고찰할 수 있었다.

汉韩零句对比研究

金美锦*

<目　录>

1. 关于零句
2. 使用零句的动因与条件
3. 汉韩非主谓型零句对比分析
4. 汉韩省略型零句对比分析
5. 汉韩零句的分布统计及功能

零句是一种常见的语言现象，不仅有助于语境中前后句子之间的衔接、连贯，还有助于突出新信息。因此，不论是在口语对话中，还是在书面语篇中，都存在零句现象。汉韩零句与句法、语义、语用等多方面密切相关，且较为复杂。目前汉韩学界对零句的性质、范围、类型等诸多理论问题尚未形成一致意见，严重制约了相关研究的进一步发展，汉韩学界对于汉韩语的零句对比研究方面涉及得较少，几乎是处于空白状态。为了对汉韩语言中的零句进行全面的对比研究，本文通过数据统计从整体上对汉韩零句进行多方面的对比，并着眼于二者在口语和书面语两种不同语体中的共性与个性，发掘整句突显和零句突显对语言分类的意义。

1. 关于零句

长期以来，在汉韩语言学领域，人们不断学习和借鉴国外的理论和方法，虽然取得了一定成果，但同时，由于语言类型的不同，汉韩语中的一些问题不能从国外理论中得到很好的解释，难免有些牵强。然而在传统观点的影响下，在分析汉韩语言学的相关问题时，我们往往难以摆脱印欧语的窠臼。以印欧语的眼光来看，零句是非完整句，在研究中向来不被重视。而根据已有研究，零句在汉韩语言中都是普遍存在的，在书面语和口语中都有出现，甚至与完整句相比，零句更自然，出现频率也较高。

汉语和韩语中都存在一定量的无法分出主谓的语言现象，需要以“零句”为视角从整体上进行审视。我们认为，非主谓句、省略句乃至隐含句的区分都是必要的，只有整体关照，才可能恰当解决二者长期存在的界限不清的问题。“零句(minor sentence)”的概念最早由美国语言学家布龙菲尔德(Leonard Bloomfield)在≪语言论≫(Language, 1933)中提出。布龙菲尔德把常规的句子形式(favorite sentence-forms)称为整句，其他形式的句子称为零句。[1]从布龙菲尔德对句子形式的定义可知：整句是一个完整句或一般的句子，至少包含主语和谓语；零句是一个非完整句或非一般的句子，与整句相反，不包含主语或谓语成分。这一概念为赵元任(1979)的≪汉语口语语法≫所继承，赵元任较为系统地对零句进行了界定：“句子可以从结构上分为整句和零句。(“零”是畸零、零碎的意思)整句有主语、谓语两部分，是连续话语中最常见的句型。零句没有主语—谓语形式。它最常见于对话以及说话和行动掺杂的场合。大多数零句是动词性词语或名词性词语。叹词是最地道的零句。”[2]从赵元任的论述可知，

* 흑룡강대학교

1) 杜小红. ≪语言论≫的零句观与汉语零句研究[J]. 广东外语外贸大学学报, 2018, (5)：35.

2) 赵元任. 汉语口语语法[M]. 北京：商务印书馆, 2015, 41-51.

零句是一种不能分析出主谓结构的句子。因此，本文采用"零句"这一术语，将汉韩两种语言中不能分析出主谓结构的句子统称为零句。

在汉韩语零句的相关研究中，因汉韩语言学者对零句的认识不同，因此对零句范围的确定也未能达成一致意见，主要集中于两个方面。第一，关于非主谓句，非主谓句有广义和狭义两种理解，广义的非主谓句包括省略句，狭义的非主谓句则不包括省略句。3)汉韩语言学界多数学者对非主谓句持狭义理解。第二，关于省略句，学界有广义和狭义之分，按广义的理解，省略句是指句法成分乃至句法成分中的成分有所省略的句子，按狭义的理解，省略句是指省略主语或谓语的句子。4)汉韩语言学界的相关研究多数涉及主语省略的问题。关于非主谓型零句范围的界定，本文持上述狭义的理解，即非主谓型零句不包含省略型零句。非主谓型零句是与语境无关或指向特定语境，表意清晰，无补成分的句子；省略型零句是离开上下文或者离开语境，表意不清，补法唯一的句子。关于省略型零句范围的界定，本文持上述狭义的理解，即省略主语或谓语的句子。关于隐含句，学界意见较为一致，都认为应将"隐含"与"省略"区分开，本文也持此观点。此外，因语法成分的性质不同、出现主语和谓语的性质不同，还可以再对零句进行一个更加详细的分类。具体的分类如下：

	名称	条件	分类
零句	非主谓型零句	与语境无关或指向特定语境，表意清晰，无补成分的句子	・名词性非主谓型零句 ・动词性非主谓型零句 ・形容词性非主谓型零句 ・叹词性非主谓型零句
	省略型零句	离开上下文或者离开语境，表意不清，补法唯一的句子	・主语省略型零句 主语承前省略型零句 主语蒙后省略型零句 情境语境省略型零句 ・谓语省略型零句 ・主谓省略型零句

〈表1〉零句的分类

如<表1>所示，本文将非主谓型零句再分为名词性非主谓型零句、动词性非主谓型零句、形容词性非主谓型零句、叹词性非主谓型零句；省略型零句再分为主语省略型零句、谓语省略型零句、主谓省略型零句，其中主语省略型零句再分为主语承前省略型零句、主语蒙后省略型零句、情境语境省略型零句。只有在分类明确的基础上，才能对汉韩零句对比作进一步的研究。

2. 使用零句的动因与条件

在语言交际过程中，人们在表达个人的思想和感情时，受经济性的驱使,经常试图以最少的语言来传递最多的信息。经济性所带来的必然结果就是某个语法成分的空缺。因此，人们在交际过程中产生的这类句子就是零句。为什么会出现零句这一语言现象？有何动因？

2.1 零句与省力原则

美国学者齐普夫(George Kingsley Zipf)提出一条指导人类行为的根本性原则——省力原则(the principle of least effort)。5) 省力原则的核心思想是以最小的代价换取最大的收益。他认为这条原则统领了所有个人或集体

3) 殷树林. 非主谓句名称的由来、范围和理论地位[J]. 辽宁师范大学学报，2019，(4)：89.

4) 金美锦，殷树林. 汉韩书面省略句比较研究——以中韩2019年新年贺词为例[J]. 韩中言语文化研究，2019，(54)：17.

行为, 包括语言和预想行为(the behavior of language and preconceptions)。他通过大量的数据统计进行个案分析, 发现“人类行为普遍遵循省力原则”, 即用最少的语言获得尽可能多的效果。作为人类行为重要组成部分的言语实践自然也遵循省力原则。6)

2.2 零句与经济原则

省力原则又称经济原则(the economy principle), 因为省略符合语言使用的经济原则。7)因此, 人们在语言交际过程中, 经常试图以最少的语言来传递最多的信息, 因为我们追求“经济性”。8)事实上,经济性原则不仅在语言演变中发挥作用, 也渗透到语言内部的各个层面。在Leech的会话修辞理论中,经济原则被视为语篇修辞的重要组成部分,9)它要求人们在不引起歧义的情况下尽量使用省略的表达方式,付出的成本低而得到的效率高,这是人类生活的普遍追求。10)语言作为一个信息传递系统,其内部也处处体现这种经济原则,那就是付出最少的编码努力而获得最成功的信息传递效果。经济性是生物体本身的内在需求。一个符合经济原则的高效语言系统对人类的生存发展无疑是至关重要的。11)

2.3 零句与Q-R 原则

为了保证言语交际的顺利进行, 说话人和听话人双方必须共同遵守一些基本原则, 即美国著名语言哲学家格赖斯(Grice)于1967年提出的合作原则(Cooperative principle), 这一原则是语用学学科中的主要研究理论之一。合作原则包括四个范畴：量准则(Quantity Maxim)、质准则(Quality Maxim)、关系准则(Relevant Maxim)和方式准则(Manner Maxim)。其中, Q原则(Quantity Principle)立足于听话人, 指尽量说足够的话, 即能说多少就说多少；R原则(Relation Principle)立足于说话人, 指言谈要提供必要的信息, 即不说多于所要求来说的话。12)美国耶鲁大学教授霍恩(Laurence Horn)明确地说“Q原则是把信息内容最大化的基于听话人的经济原则；R原则是把形式最小化的基于说话人的经济原则”。换句话说, 人们在话语交际中, 总是倾向于用最简单的话表达最充分的意思,因此遵循R原则,尽量用简单的无标记方式表达；但如果R原则不能完全表达的话,则起用Q原则,即用冗长、晦涩、特殊的有标记方式加以表达。13)

2.4 零句与信息结构

谈话的内容往往是交际双方长时间互动沟通而传递的信息, 因此其中传达的部分语义信息已被交际参与者共知。Peter Hagoort(2019)指出, 这些共知的信息常被称作“话题(topic)”, 此外的信息则是新增的关键信息, 常被称作“观点(comment)”。信息结构就是指一句话中话题信息和观点信息的组织方式, 由于在不同语言中说话者表

5) 陈伟英. 省略与省力[J]. 浙江大学学报, 2005, (6)：180.
6) 陈伟英. 汉语主语省略的认知语言研究[D]. 浙江大学博士学位论文, 2008：57.
7) 夏日光. 省略的认知语言学研究与翻译教学[D]. 西南大学硕士学位论文, 2010：22.
8) “经济性”功能在十六世纪Port-Royal语法学者的主张中涉及。J. C. Pariente(1985)认为, Port-Royal语法认为, 人们在谈话时, 不断重复相同的语法成分是很麻烦的, 因而创造出包括名为“代名词”和“副词”在内的的词语用于交际。(转引自박정희, 2013:51)
9) 已有的研究中对于本文的省略型零句研究多在修辞领域上进行了探讨。
10) 关于省略的经济性功能Pency& Emery(1963)涉及“Ellipsis is the omission of a word or words that are necessary to the grammatical analysis of the sentence but not necessary to its meaning.Ellipsis arises from the tendency of language toward brevity and conciseness.”(转引自박정희, 2013:52)
11) 张云秋, 周建设. 语法结构的经济原则──从汉语受事标记的过度使用谈起[J]. 外语研究, 2004, (6)：9.
12) 何自然, 冉永平. 新编语用学概论[M].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15, 67-69.
13) 何自然, 冉永平. 新编语用学概论[M].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10.

达核心成分的方式可能有所不同，因此在语法结构中，特定的位置、措辞方式、重读等都可以作为核心成分的标志。

2.5 零句与可及性理论

可及性理论(the Theory of Accessibility)是认知语言学中的重要理论之一。可及性(Accessibility)是指人们在语篇产生和理解过程中，从大脑记忆系统中提取某个语言或记忆单位的便捷或难易程度。Ariel(1990)将语言中包括专有名词、有定描述语、指示词语、代词以及零形代词等在内的指称词语视为可及性标示语(Accessibility Markers)，并根据可及性对其进行分类。一个指称词语，它所表达的信息越多，越是能确定无疑地指称某一实体，其可及性就越低；而一个指称词语，简略程度越高，其可及性就越高。[14)]

同时，又分别论述使用非主谓型零句以及省略型零句的条件。非主谓型零句的产生需要两个条件：(一)完结的语气，即较大的停顿；(二)符号条件，即必须以句终点号结句。省略型零句的产生需要四个条件：(一)要存在先行语；(二)可以还原，从上下或说话语境中容易找回；(三)非重读，即不是新信息；(四)省略受到句法环境的制约。

3. 汉韩非主谓型零句对比分析

本章为全面探讨汉语与韩语非主谓型零句使用的范围，分别考察了汉语与韩语的书面语体语料和口语语体语料。书面语体语料采自中国与韩国的宪法，即≪中华人民共和国宪法≫与≪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文在寅总统宪法修正案)≫；口语语体语料主要考察了中国话剧≪茶馆≫与韩国话剧≪삼각파도将(三角波浪)≫。同时，为了系统地分析汉语与韩语的非主谓型零句，我们将其分为名词性非主谓型零句、动词性非主谓型零句、形容词性非主谓型零句、叹词性非主谓型零句四类。

3.1 汉韩名词性非主谓型零句

本文通过分析汉语与韩语名词性非主谓型零句的用例，发现两种语言的名词性非主谓型零句有以下几个特点：(1)汉语与韩语的名词性非主谓型零句的结构分为两类：一是单核结构(NP)，二是多核结构(NP_1+ NP_2)；(2)汉语与韩语的名词性非主谓型零句是单句类型；(3)汉语与韩语的名词性非主谓型零句都相对独立使用；(4)一个名词性非主谓型零句在不同的语境中可能表现出不同的语用功能。此外，名词性非主谓型零句语用和修辞功能的发挥依赖于语境。从结构方面看，汉语与韩语的结构分为单核结构与多核结构，但具体的形式不同。汉语一般用“光杆名词”或“偏正结构”形式；韩语一般用“光杆名词”“职位、职责+后缀”“冠形词+名词”“冠形词+名词+助词+名词”。从语用功能方面看，汉语的名词性非主谓型零句有表示称呼对方、发泄被压抑感情的功能；韩语的名词性非主谓型零句有表示称呼对方、发泄被压抑感情的功能、强调不满、基督教祈祷结尾语等。

3.2 汉韩动词性非主谓型零句

本文通过分析书面语体中的汉语动词性非主谓型零句的用例，发现汉语的动词性非主谓型零句的几个特点：汉语的动词性非主谓型零句既出现在单句中，也出现在了分句中；汉语的动词性非主谓型零句都出现在句子的开头；从形式上看，汉语的动词性非主谓型零句都是述宾结构的形式；从语用上看，汉语的动词性非主谓型零句对针对社会大众表示宣布、禁止。从形式来看，汉语的动词性非主谓型零句是由“单个的光杆动词”或“动词性

14) 두염빙. 汉语的名词照应、人称代词照应与零形照应——以与韩国语的比较为中心[J]. 중국문학, 2012(70)：396.

短语”构成的，　韩语的动词性非主谓型零句是由“动词/形容词/名词+叙述型词尾”构成的；这两种语言的动词性非主谓型零句都出现在单句和分句，一般都出现在句子的开头。从语用上看，大部分汉韩语的动词性非主谓型零句表示肯定、赞同、否定、禁止等，礼貌用语一般都属于动词性非主谓型零句。

3.3 汉韩形容词性非主谓型零句

汉语形容词性非主谓型零句无论是在单句还是在分句中都具有以下几个特点：它一般可充当首句或位于句中，无论出现在哪个位置，都相对独立，不与前后的语言单位发生结构上的关系；它一般以“对”“好”“好吧”“好啦”等形容词或形容词短语的形式出现；一个形容词性非主谓型零句用在不同的场合可以表达不同的内容，它大部分用于应对，表示肯定、赞同，或不满意，以及话题的转换。在韩语研究中，이유미(2017)专门探讨了韩语的非主谓型零句，但是由于韩语语法的特点，韩语没有形容词性非主谓型零句。이유미(2017)认为，韩语的“좋아”“좋다”“좋지”“좋아요”“좋지요”“좋네요”等都是汉语的“好”或“好吧”的意思，但都属于“动词、形容词+陈述性后缀”结构的动词性非主谓型零句。

3.4 汉韩叹词性非主谓型零句

本文通过分析汉语与韩语叹词性非主谓型零句的用例，　发现两种语言的叹词性非主谓型零句的几个特点：(1)一般汉语与韩语的叹词性非主谓型零句多出现在话轮的开头；(2)汉语与韩语的叹词性非主谓型零句都只在口语语体中独立使用，不与前后的语言单位发生结构上的关系；(3)汉语与韩语的叹词性非主谓型零句是只有声音和内容，而没有意义；(4)汉语与韩语的叹词性非主谓型零句用在不同的场合可以表达不同的内容。

4. 汉韩省略型零句对比分析

本章旨在通过考察汉韩语的书面语体与口语语体，　全面探讨汉韩省略型零句使用的范围。书面语体方面的分析以中韩宪法为主，　分别为≪中华人民共和国宪法≫与≪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文在寅总统宪法修正案)≫；口语语体的分析语料为中国话剧≪茶馆≫与韩国话剧≪삼각파도(三角波浪)≫。同时，为了系统地分析省略型零句，再将其细分为主语省略型零句、谓语省略型零句、主谓省略型零句。

4.1 汉韩主语省略型零句

本文通过分析汉语与韩语书面语语料中出现的主语省略型零句，　发现两种语言的主语省略型零句的几个特点：(1)书面语语料中出现的汉语与韩语的主语省略型零句分为主语承前省略型零句和情境语境省略型零句，不出现主语蒙后省略型零句；(2)汉语与韩语的主语承前省略汉语与韩语的主语承前省略型零句比情境语境省略型零句的比率高；(3)汉语与韩语的主语承前省略型零句作为普遍的一个省略现象，不仅有助于语境中前后句子之间的衔接、连贯，还有助于突出新信息。本文通过分析在汉语与韩语口语语料中出现的主语省略型零句，归纳出两种语言的主语省略型零句的几个特点：(1)口语语料中出现的汉语与韩语的主语省略型零句分为主语承前省略型零句、主语蒙后省略型零句和情境语境省略型零句；(2)主语承前省略型零句的结构是“独立成分+主语承前省略型零句”；(3)主语蒙后省略型零句的结构是“主语蒙后省略型零句+独立成分”，就是前边分句主语蒙后边分句主语而省略；(4)陈述句、疑问句、命令句、请求句、感叹句中都出现了情境语境省略型零句。

4.2 汉韩谓语省略型零句

本文通过对汉语与韩语谓语省略型零句用例的详细分析, 发现两种语言的谓语省略型零句的几个特点：(1)两种语言的谓语省略型零句与主语省略型零句、主谓语省略型零句相比, 都是较为少见的省略型零句类型；(2)两种语言的谓语省略型零句都以单句和分句的类型出现；(3)两种语言的谓语省略型零句都是因情境语境明确而空缺谓语；(4)两种语言在表示疑问和应答的形式上, 多会出现谓语省略型零句。汉语与韩语的谓语省略型零句不同于谓语省略的情况。在汉语语料中, 没有出现动词单独省略的情况。一般都是动词和其他语法成分同时省略。而在韩语语料中, 出现了动词单独省略和动词和其他语法成分同时省略的情况。

4.3 汉韩主谓省略型零句

本文通过分析汉语与韩语主谓语省略型零句的用例, 发现两种语言的主谓语省略型零句的几个特点：(1)一般汉语与韩语的主谓语省略型零句都以单句和分句类型出现；(2)一般汉语与韩语的主谓语省略型零句都是因情境语境明确而空缺主语与谓语；(3)在表示感叹、疑问和应答时, 两种语言都会出现主谓语省略型零句。由此可知, 随着汉语与韩语语法结构的不同, 进而两种语言的主谓语省略型零句也表现为不同的形式。如, 在汉语的主谓省略型零句可以分为四种；(1)“X的X”结构, 一般表示感叹；(2)“什么X”结构, 一般表示不满；(3)“X的”结构, 一般表示应答；(4)“N”或“NP”结构, 一般表示疑问或应答。相反, 韩语中的主谓省略型零句可以分为两种；(1)“N”或“N+组词”结构, 一般表示提问或疑问；(2)“什么+N”结构, 一般表示不满。

5. 汉韩零句的分布统计及功能

5.1 汉韩零句使用频率的对比研究

在≪中华人民共和国宪法≫中, 零句所占比例为31%。从句子结构来看, 复句所占比例远远高于单句, 所占比例分别为95%、5%；从语言成分来看, 主语省略型零句的所占比为100%, 其中主语承前省略型零句占比98%, 远远高于情境语境省略型零句, 其占比仅为2%。≪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文在寅总统宪法修正案≫)中零句所占比例为35%。从句子结构来看, 复句所占比例仍高于单句, 分别占比为84%和16%；从语言成分来看, 主语省略型零句的所占比为100%, 其中主语承前省略型零句占比为81%, 情境语境省略型零句占比为19%。

中国话剧≪茶馆≫全文中, 零句所占比率为60%。与书面语语料类同, 从句子结构来看, 复句所占比例高于单句, 分别为54%和46%；从语言成分来看, 主语省略型零句的所占比为90%, 远远高于主谓省略型零句语所占比(8%), 而谓语省略型零句的所占比例最少, 仅为2%。然而, 在主语省略型零句中, 情境语境省略型零句所占比例最高, 其次为主语承前省略型零句, 主语蒙后省略型零句所占比例最少, 分别为：65%、27%、7%。韩国话剧≪삼각파도≫(≪三角波浪≫)全文当中, 零句的所占比例为63%。从句子结构来看, 仍然是复句(占比65%)形式高于单句(占比35%)；从语言成分来看, 主语省略型零句的所占比为90%, 远远高于主谓语省略型零句和谓语省略型零句, 其所占比分别为7%和3%；在主语省略型零句中, 情境语境省略型零句所占比例最高, 其次为主语承前省略型零句, 主语蒙后省略型零句所占比例最少, 所占比例分别为：84%、14%、2%。

5.2 汉韩零句的语用功能

本章对汉韩零句在不同语体中所体现的语用功能进行了剖析。零句在书面语体中主要具有经济功能、衔接功能及其简洁功能；在口语语体中主要具有经济功能、简洁功能、衔接功能、强调功能及回避功能。

综上所述, 汉韩书面语体和口语语体中都存在零句, 可以说零句在汉韩语言当中是一种较为普遍存在的语言现象。不过由于中韩两国在语言类型、文化、思维方式等方面存在差异, 因此零句现象也不尽相同。长期以来, 在汉韩语言学领域中, 零句被认为是一种非完整句, 其研究并未得到足够的关注, 但是, 由于种种原因, 与完整句相比, 零句更为自然, 出现频率也相对较高。因此, 零句应当与整句一样重要, 其理论地位应引起重视。这对于阐明汉韩语言对比研究、汉韩语言教学、汉韩语言人工智能翻译方面具有重要的意义。

参考文獻

1) 陈伟英.省略与省力[J]. 浙江大学学报, 2005, (6).
2) 陈伟英.汉语主语省略的认知语言研究[D]. 浙江大学博士学位论文, 2008.
3) 杜小红.≪语言论≫的零句观与汉语零句研究[J]. 广东外语外贸大学学报, 2018, (5).
4) 何自然, 冉永平. 新编语用学概论[M].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15.
5) 金美锦, 殷树林.汉韩书面省略句比较研究——以中韩2019年新年贺词为例[J].韩中言语文化研究, 2019, (54).
6) 夏日光. 省略的认知语言学研究与翻译教学[D]. 西南大学硕士学位论文, 2010.
7) 殷树林. 非主谓句名称的由来、范围和理论地位[J]. 辽宁师范大学学报, 2019,(4).
8) 张云秋, 周建设. 语法结构的经济原则——从汉语受事标记的过度使用谈起[J]. 外语研究, 2004,(6).
8) 赵元任. 汉语口语语法[M]. 北京：商务印书馆, 2015.
10) 두염빙.汉语的名词照应、人称代词照应与零形照应——以与韩国语的比较为中心[J]. 중국문학, 2012, (70).
11) 박청희. 현대 국어의 생략 현상 연구[D].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2) 이유미. 국어 소형발화 연구[D].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V+在+NL”句式研究*

— 以語義場景和意象圖式分析爲中心

明洋洋**

<目　录>

1. 引言
2. 空間内場景
3. 終點移動場景
4. 語義場景的意象圖式分析
5. 結語

1. 引言

現代漢語中介詞的作用在於引介, 包括引介場所、時間、方式、範圍等。介詞中“在”的使用頻率最高[1], “在”和場所名詞NL[2]結合起來構成的場所短語“在+NL”在句中可以有三種位置[3], 當以“V+在+NL”格式出現時, “在+NL”做場所補語, 用來補充說明V, [4]但是實際上不同的句子中“在+NL”的語義有所不同, 我們來看下面的例句。

(1) 他住在北京。
(2) 雨點落在地上。
(3) 這本書收藏在國家圖書館。[5]

例句(1)中“在北京”表示“住”這一動作或狀態[6]所發生的處所, 例句(2)“在地上”表示“雨點”(從天上)最終掉落

* 本論文收錄於≪中國語文學論集≫第112號
** 尚志大學校

1) 『現代漢語頻率詞典』(1986:492,658)中“在”是所有介詞中使用頻率最高的, 『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常用漢語1500高頻詞語表』(2009:107)把“在”排在第8位, 是介詞中使用頻率最高的。
2) 本文所敘述的N(noun)指名詞, L(location)指場所名詞, NL表示場所名詞短語。本文所論述的“V+在NL”句式中的NL包括三種格式。第一, 處所詞(+方位詞), 如“公司”、“家裡”等；第二, 一般名詞+方位詞, 如“桌子上”, “書包裡”等；第三, 方位詞, 如“前面”、“外”等。對於方位詞語和處所詞能否單獨分類, 學者們還是存在著意見上的分歧。本文爲了描述方便, 按照朱德熙(1982)的詞性分類方法, 即把處所詞、方位詞都看做獨立的詞類。處所詞包括地名(如中國、北京、長安街等)和可以看做是地方的機構名(如學校、公司、圖書館、電影院等)。方位詞可分爲單純方位詞(如上、下、前、後、裏、外等)、合成方位詞(如上邊、上面、上頭等)。
3) 即可以在主語前, 可以在主語和謂語之間, 還可以在謂語動詞之後, 本文的研究對象為第三種。
4) 關於“V+在+NL”結構中“在”的詞性以及“在+NL”的成分問題, 學界意見尚未得到統一。由於本文的研究重心在於整個句式的語義, 所以爲了便於論述, 本文同意黃伯榮・廖旭東([1991]2011), 北京大學中文系現代漢語教研室(1993), 金鉉哲(1999)和邢福義・汪國勝(2011)的意見, 把“在”看做介詞, “在+NL”爲動詞的補語。
5) 本文所引用的例句來源北京語言大學BCC語料庫(http://bcc.blcu.edu.cn/)和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https://http://ccl.pku.edu.cn), 另爲了說明描寫, 一部分例句爲作者編寫。
6) 之所以說“住”可以既表示發動作又可以表示狀態, 是因爲動詞有一定的活動性和時間性, 活動性是指這個動作要使人或事物

的處所, 是一個動態動作以後結束的處所, 例句(3)表示"書"被收藏的位置, 是一種靜態的處所。

前人對"V+在+NL"的語義研究並未得出一個統一的結論, 另外在實際教學現場, 也發現很多韓國的漢語學習者對"V+在+NL"句型和"在+NL+V"句型掌握情況不好, 容易混淆。真正掌握结构的語義才能正確使用, 所以對該結構還需要做一個更科學更全面的分析。

本文把"V+在+NL"按照語義類型劃分成幾種語義場景, 通過對語義場景的描寫, 推導出句式的語義特征, 然後用認知語言學的意象圖式和認知掃描方式對場景進行分析, 試圖對"V+在+NL"的語義進行更加全面和深入的理解。

2. 空間內場景

"在"表示"空間存在意"時, 空間可以是物理空間, 也可以是抽象空間。物理空間可以以"處所詞(+方位詞)"比如"家裡", 或"一般名詞+方位詞"比如"桌子上"的形式出現。抽象空間一般以"一般名詞+方位詞"比如"心裡"的形式出現。當"在"表示"存在"義時, "V+在+NL"表示"存在於某一空間", 根據V的語義特征不同, 又可以分爲動態型和靜態型, 下面我們來看一下。

2.1 動態型

在某一空間內, 發生動態事件, 這裏的動態指能夠動作能夠使相關語義論元產生位移的動作或行爲, 另外動詞帶有[+空間性], 即動作發生時需要一定的物理空間來實現。按照動作論元的語義類型, 可以分爲表示施事某動作發生於某處所和當事以動態呈現於某處所。下面我們來分別對這兩種情況做一下討論。

2.1.1 表示施事某動作發生於某處所

(8) 小孩們奔跑在山坡上, 揀拾著柴火。
(9) 一群鳥飛在昏暗的天空上。

2.1.2. 表示當事以動態呈現於某處所

(10) 白雲漂遊在藍天裏。
(11) 雪白的救護車開在崎嶇的山路上。

2.2 靜態型

事物以靜態的狀態呈現在某處所, 又可以分爲單純空間內靜態型和動作發生後靜態靜止型, 下面讓我們來具體看一下這兩種情況。

2.2.1 單純空間內靜態型

所謂單純空間內靜態型, 就是一種連續地靜態狀態存在於某處所。在這個處所內, 動作帶有很強的持續性, 但是動作涉及的論元不進行空間的位移。根據語義的不同可以分成"表示施事所在的處所"、"表示當事某狀態發生在某處所"和"處所即為動作主體"三種類型。

發生一些動態行爲；時間性是指要實現這個動詞需要一定的時間。

i. 表示施事所在的處所

(12) 平時我都住在工人宿舍裏。
(13) 我老早就等候在天安門城樓西側。

ii. 表示當事某狀態發生在某處所

(14) 趕上非典, 人人都憋在家裏。
(15) 他昏迷在病床上。
(16) 天然銀耳生長在深山峽穀。

iii. 處所表示動作主體

這時場所多表示人體感知器官, 比如"眼裏"的"眼"、"耳裏"的"耳"、"嘴上"的"嘴"等。人們通過眼睛看, 用耳聽, 用嘴說話, 可以說"眼"、"耳"、"嘴"是發出動作的主體, 通過"VP+在+NL"句式突出感知器官, 比如下面的例句。

(17) 她的努力我們都看在眼裏。
(18) …一天深夜, 接到秀東打來的越洋電話, 他告訴我 : "小波去世了……", 我聽在耳裏, 半天回不過神來…
(19) 還有些企業, 制度掛在牆上, 規章說在嘴上, 一遇障礙就執行不下去, "向管理要效益"成了一句空話。

當強調人的心理感知, 動詞和NL搭配時, 動詞爲人體感官動作, 處所可以不用對應的器官, 而用"心裏"來表示, 比如下面的例句。

(20) 她是修養太好, 才會只罵在心裏。
(21) 你給我的一切永遠都記在心裏, 不會消失。

例句(20)中處所NL"心裏"是"罵"動作發生的主體, 例句(21)中處所NL"心裏"是動作"記"發生的主體。處所詞已經通過容器隱喻機制, 使句子內涵的意義發生變化, 不再是單純表述生理感知, 而是強調人的心理感知, 還可以使用"聽在心裏"、"看在心裏"等。在這種情況下表示具體對象的受事一般不會用"VP+在+NL", 比如不會說"*電視機畫面看在眼裏", "*火車的聲音聽在耳裏"。

2.2.2 動作發生後靜態靜止型

在某一處所, 動作發生以後, 靜止存在場所。動作本身可以帶有持續性, 有時也可以是因爲動作行爲造成狀態的持續。句子表示施事發生動作後再靜止在某處所。

(22) 他坐在沙發上。
(23) 在樹邊, 他全身浸泡在水裏, 只留出口鼻呼吸, 讓金維保站在他的肩膀上, 兩人緊抱大樹等待救援。

3. 終點移動場景

"在"除了"存在"之意, 在某些動詞後具有到達意, 在這樣的句子裏"在"可以和"到"互換。陳昌來(2002)認爲,

北京話中“V・de・NP”中的“de”可能是“在”也可能是“到”, 所以“在”和“到”在語法意義上有共同性, 他還認爲“在”表示的是靜態位置, “到”表示動態的位置, 都是事物運動後所到達的位置。邵敬敏(2013)認爲“在”圖像的是接觸後的靜態, 而“到”凸顯的是接觸前的動態過程, 並且認爲在有“下降語義(如跌、跳)”的動詞句或方位結構是“名詞+上”的情況, “在”和“到”可以互換。本文同意陳昌來(2002)的意見, 即“在”和“到”在語法意義上有共同意, 都表示事物運動後所到達的位置, 二者的語義區別在於邵敬敏(2013)提到的凸顯意義不同。但是如果說二者互換情況即動詞“下降意義”或者處所爲“名詞+上”, 本文認爲這一論點需做進一步的考證, 比如下面的句子。

(24) 她把箱子拿在身邊。→ 她把箱子拿到身邊。
(25) 將女兒摟在懷裏。→ 將女兒摟到懷裏。
(26) 把洗淨的衣服晾在走廊。→ 把洗幹淨的衣服晾到走廊。

既然表示“到達”之意, 那麼產生位移時就需要終點和源點這兩個表示空間位移的兩個要素。有了源點和終點就會顯示出運動的軌跡, 源點是動作的出發點, 終點則是動作的到達點。[7]典型的位移可以用下面<圖 1>來表示。

源點 ————————→ **終點**

〈圖 1 : 源點和終點圖式〉[8]

“V+在+NL”句子中, 通過介詞“在”引出終點, 從運動軌跡來看, “終點”是最重要的。[9]所以終點移動型語義場景值得我們進行深入的研究。在“終點移動場景”中物理空間對動作的發生沒有限制性, 即句子不會凸顯動作發生時存在的處所, 只會凸顯動作結束後到達的處所。

3.1 表示施事通過動作到達某處所

(27) 他與朋友們相聚在鄉間的一間酒吧。
(28) 小白狗跳在她懷裏。
(29) 他一腳踢在茶幾邊上。

3.2 表示受事通過動作到達某處所

(30) 書放在桌子上。
(31) 世界全圖畫在羊皮紙上。
(32) 把照片掛在牆上。

3.3 表示當事通過動作到達某處所

(33) 雨落在樹上, 雨打在傘上, 砰砰地響。
(34) 下午的陽光直射在街道上。

7) 參考齊滬揚(2014:37-45)
8) 參考齊滬揚(2014:38)
9) 參考邵敬敏(2013:259-260)

(35) 飛機平穩地降落在太原機場。

3.4 表示工具通過動作到達某處所

(36) 凶手發狠地一刀砍在來不及爬起來的白雪潔頸中，白雪潔本能地用雙手護住頭。
(37) 市民和園藝工作者將鮮豔的彩旗和花朵點綴在道路兩旁。
(38) 晚上，沼澤地大雨傾盆，官兵們冒著冰涼的雨水，卻把自己的皮大衣蓋在水泥車上。

4. 語義場景的意象圖式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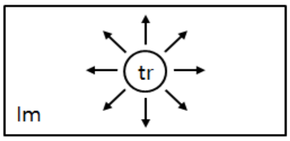
意象圖式(Image Schema)是認知語義學中重要的概念之一，最初是在Lakoff & Johnson (1980)概念隱喻理論中提出來的。Lakoff & Johnson(1980)列舉了一些意象圖式(Image Schema)，比如容器圖式(Container)、部分-整體圖式(Part-Whole)、中心-邊緣圖式(Center-Periphery)等。

4.1 空間內場景

首先空間內型情況，可以用容器圖式來表示，我們按照前文把空間場景分爲動態型和靜態型，再分別對其意象圖式和掃描方式進行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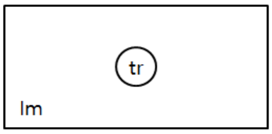
4.1.1. 動態型

先來看動態型，比如例句(8)小孩們奔跑在山坡上，揀拾著柴火。容器圖式可以用<圖 3>表示。“小孩們”看作射體“tr”，“山坡上”看做容器，“小朋友”奔跑的範圍在山坡，雖然是在山坡的表面，但是從動作的活動範圍來看，依然可以看做是一種容器。



〈圖 3：動態型容器圖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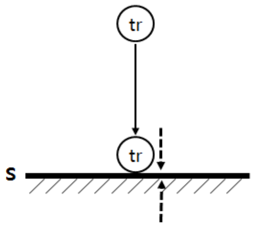
4.1.2. 靜態型



〈圖 4：靜態型容器圖式〉

4.2 終點移動場景

動作終點性表示施事、受事、當事或工具通過某動作達到某處所，所以可以用路徑圖式來表示。這時，射體“tr”通過自主動作，或外界力量位移到終點，終點可能是一個封閉空間，也可能是一個開放空間，射體只與該空間的表面“Surface”發生接觸(有時會通過表面進入物體，如“一腳踢在茶幾裏面”，但是也是通過桌子表面進入到桌子內部)，並向空間的表面施力，空間表面也與射體施力，互爲作用力與反作用力，這種關係可以用<圖 5>來表現。



〈圖 5：終點移動型路徑圖式〉

下面通過例句再來具體看一下終點移動場景的掃描方式。在第三章我們所分類的四種類型(表示施事、受事、當事、工具通過動作到達某處所)中，每個類型選取了一個例句做為代表句子來分析。

(29) 他一腳踢在茶幾邊上。(施事)
(30) 書放在桌子上。(受事)
(34) 下午的陽光直射在街道上。(當事)
(36) 凶手發狠地一刀砍在來不及爬起來的白雪潔頸部。(工具)

比如說例句(30)中的"腳"視爲"tr"，通過"踢"這一動作，使"腳"移動到"茶幾邊上"，然後對"茶幾"的表面施加一定的壓力，"茶幾"也對"腳"有反作用力，最後使"腳"的位置固定在"茶幾邊上"。例句(30)(34)(36)中的"書"、"陽光"、"刀"也是通過相應的動作"放"、"射"、"砍"， 使其位置固定在"桌子上"、"街道上"和"頸部"。終點移動型不能被理解為一個連續的事件， 原因是終點移動型的掃描方式為總括掃描， 張國憲(2009)認為"小猴子跳在馬背上"這個句子中，很難被認知為一個連續的時間，因為說話人對事件進行語言編碼時運用的是總括掃描，動作被視為一個有起點和終點的有界行為。本文認為"小猴子跳在馬背上"以及例句(28)-(39)的情況， 如果句子裏有表示"持續"的標示，如"慢慢"，"一點一點"等，這時說話人先進行了次第掃描，構建一個持續的動作狀態，比如"他在踢我"，"他在放書"，"陽光直射著"，"凶手在砍人"，這種次第掃描的時間可能很長，比如"他慢慢地踢在茶幾邊上"，"他慢慢地把書放在桌子上"等， 然後動作出現終點時， 進行了總括掃描。但是如果句子裏有"短時"標示，則說話人只進行總括掃描。

5. 結語

本文以"V+在+NL"句式的語義爲研究對象，通過對"V+在+NL"中"在"的"存在"意和"到達"意，把"V+在+NL"分爲"空間內場景"和"終點移動場景"。其中"空間內場景"又可以根據動詞的特征分爲動態型和靜態型。靜態型又可以細分爲"單純空間內靜態型"和"動作發生後靜態靜止型"。"終點移動場景"按照語義不同， 可以分爲施事、受事、當事和工具等通過動作到達某處所，並對每一種類型的語義進行詳細描寫，可以說這種分類要比以往的語義分類更加細致。在語義分析中，我們對"在"的語義進行了重新分析，然後對動詞V、"在"、場所NL以及動詞所涉及的論元相互之間的語義關系做重點分析， 而不只是單純地對動詞V和場所NL以及論元進行分析。我們發現"空間內場景"可以與"在+NL+V"句式互換，而"終點移動場景"與"在+NL+V"句式互換時受到制約，即只有與"動作"相關論元(施事、受事、發、當事、工具等)的處所和"動作"發生處所一致時才能互換。最後通過認知語言學的意象圖式和掃描方式對"V+在+NL"所呈現的語義進行深入描寫。和前人研究不同的是，本文認爲"V+在+NL"並不是都使用"路徑圖式"來解釋，其中的"終點移動場景"可以用路徑圖式說明，而"空間內場景"則可以用容器圖式說明，並且對不同的掃描方式也進行了細致的分析。

参考文獻

▹ 書籍詞典類
國家漢辦(2009),『國際漢語教學通用課程大綱』,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金鉉哲 外 譯(2004),『現代漢語虛詞用法辭典』, 서울: 成輔社.
呂叔湘([1980]2010)主編,『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李福印(2008),『認知語言學概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范　曉・張豫峰(2008),『語法理論纲要』, 上海: 上海譯文出版社.
北京大學中文系1955・1959級語言班([1982]2010)編,『現代漢語虛詞例釋』, 北京: 商務印書館.
北京大學中文系現代漢語教研室編(1993),『現代漢語』, 北京: 商務印書館.
北京語言學院語言教學研究所(1986),『現代漢語頻率詞典』,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徐朝華(1987),『爾雅今注』,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邵敬敏(2013),『漢語語法的動態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吳爲善(2011),『認知語言學與漢語研究』, 上海: 複旦大學出版社.
袁毓林(2010),『漢語配價語法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張　斌([2001]2013)主編,『現代漢語虛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齊滬揚(2014),『現代漢語現實空間的認知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朱德熙(1982),『語法講義』, 北京: 商務印書館.
曾傳祿(2014),『現代漢語位移空間的認知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陳昌來(2002),『介詞與引介功能』, 安徽: 安徽教育出版社.
許　慎(東漢)撰・段玉裁(清)注(1998),『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邢福義(2016),『漢語語法學』, 北京: 商務印書館.
______・汪國勝(2011),『現代漢語(第二版)』, 湖北: 華中師範大學出版社.
黃伯榮・廖旭東([1991]2011),『現代漢語(上冊)』,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ngacker(2013)著, 黃蓓(2016)譯,『認知語導論(上卷)』, 北京: 商務印書館.

▹ 學術論文類
金鉉哲(1999), <現代中國語의 賓語 問題 再認識>,『中國言語研究』第9卷, 1-29.
戴浩一(1975), On Two Functions of Place Adverbials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3, 154-179.
馬慶株(1988a), <自主動詞和非自主動詞>,『二十世紀現代語法論文精選』, 224-245, 北京: 商務印書館.
______(1988b), <時量賓語和動詞的類>,『二十世紀現代語法論文精選』, 255-265, 北京: 商務印書館.
范繼淹(1982), <論介詞短語“在+處所”>,『語言研究』總第2期, 71-86.
邵洪亮(2003), <“V在+L” 格式研究>, 上海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孫錫信(1991), <“V在L”格式的語法分布>,『語文論集(四)』, 99-111.
王　還(1957), <說“在”>,『中國語文』第2期, 15-26.
______(1980), <再說說“在”>,『語言教學與研究』第3期, 25-29.
王艾錄(1982), <“動詞+在+方位結構” 芻議>,『語文研究』總第5期, 89-94.
張國憲(2009), <“在+處所”構式的動詞量取值及其意義浮現>,『中國語文』第4期, 346-358.
崔希亮(2001), <空間方位場景的認知圖式與句法表現>,『中國語言學報』第10期, 34-49.
侯　敏(1992), <“在+處所”的位置與動詞分類>,『求是學刊』第6期, 87-92.
Langacker, R,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 Vol.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1年度 韓國中語中文學會 春季學術大會

4月 17日(土) 12:00~17:30

고전문학 분과

❖ 고전문학과 문화

고지영(제주대) ≪莊子≫ 글쓰기와 그 활용 연구

오상금(北京大學) ≪文選≫李善注引≪尚書≫考論

김하늬(서울대) 명말청초 雲間 지역 宋氏 일가 詞에 대한 소고
— 宋徵璧, 宋徵輿의 비애 표현을 중심으로

『莊子』 글쓰기와 그 활용 연구

고지영*

<目 次>

1. 서론
2. 『莊子』 글쓰기와 수사학
3. 『莊子』의 논리적 서술방식
4. 『莊子』 글쓰기의 현대적 활용
5. 결론

1. 서론

본고는 그동안 사상이나 문학 방면에서 연구되어 오던 『莊子』를 설득의 차원에서 분석하여 『장자』의 논리적 서술방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장자』 글쓰기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莊周의 저작 『장자』는 전국시대라는 혼란한 상황과 백가쟁명이라는 치열한 논쟁 속에서 저술된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에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보고자 자신의 뜻을 세우는 내용(立言)을 담는 것 외에도, 다른 제자백가나 식자층을 설득하는 서술방식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주가 『장자』를 저술할 당시에는 문・사・철을 통칭한 文이라는 개념은 있었으나 지금과 같은 문학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1] 때문에 그는 글을 쓰면서 문학, 사상, 논술 등의 구분을 두지 않았을 것이니 그의 글에 다양한 글쓰기 방식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자』의 사상을 밝히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고, 그의 문학성에 대해서도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만큼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설득의 글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 『장자』의 글쓰기 중에서도 설득의 글쓰기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莊子』 글쓰기와 수사학

『장자』 텍스트에 사용된 논리적 서술방식을 찾고 이것이 설득의 글쓰기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장자』 텍스트가 쓰여진 당시의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국시대에는 숱한 전쟁으로 인해 여러 제후국이 난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내세우는 志士들 역시도 이곳저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다. 즉 패권을 쥐게 된 권력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제자백가들의 유세를 원하였고, 난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志士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로 유세를 펼쳤던 것이다.

---

* 제주대학교

1) 문학이라는 것은 죽간과 비단 위에 문자로 적혀있어 文이라 일컫는다. 그 양식[法式]을 논하여 문학이라고 한다. 무릇 文理, 文字, 文辭도 다 文이라 한다. (文學者, 以有文字著於竹帛, 故謂之文. 論其法式, 謂之文學. 凡文理、文字、文辞, 皆稱文.) 章太炎, 『国故论衡』, 上海古籍出版社, 2003, p.49.

그 가운데 장주는 “우언의 글쓰기를 주축으로 하는 변증과 논설, 布陣의 글쓰기를 부정의 방식으로 활용하였다.”[2] 그렇다면 『장자』에서 우언은 단순히 문학적 효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제자백가들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 방법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자』에는 우언 외에도 중언, 치언이라는 다양한 글쓰기 방법이 동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와 평범한 사람들이 우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장주가 언어의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확언할 수 없는 道의 개념을 설명하고, 다시 이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이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 名과 實의 불일치를 겪었던 언어의 지체 상황이라던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논쟁의 상황 등이 장주의 언어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언어관이 투영된 것이 글쓰기이니만큼, 장주는 글을 쓰면서 언어와 실체가 멀어지는 것을 경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비유와 우언, 역설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로 나타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장자』 수사학으로 불리게 된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장주의 글이 설득의 단계를 밟으며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의 『수사학』(*Techne rhetorike*)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고대 수사학의 개념을 빌어올 필요가 있다. 서양의 고대 수사학은 문장의 수식과 관련된 현대의 수사학과는 다른 개념으로 그 핵심은 논증과 설득에 있었다. 즉, 꾸밈을 통해 문학적 효과를 거두는 수사법 차원이 아니라, 화자와 청중을 고려해 다양한 논증 방법을 동원하여 설득의 말하기 혹은 글쓰기를 하는 수사학을 말한다.[3] 이는 장주와 같은 제자백가들이 서로 논쟁하거나 저술 활동을 하면서 고려해야 했던 것들이며, 『장자』에서도 이러한 흔적들이 보이기에 본고에서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3. 『莊子』의 논리적 서술방식

1) 정감적 논거와 논리적 논거: 화자의 품성과 권위, 청자의 심적 상태, 내용 자체의 논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바로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 로고스(logos)이다.[4]

에토스는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의 품성과 권위를 말하는데, 이는 『장자』 우언에 장주 본인이 직접 등장하는 이유로도, 또 장주 대신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로도 볼 수 있다. 「소요유」 편에서 장주는 두 번 등장하는데, 두 차례 모두 혜시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장주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장주는 재상이라는 지위에까지 오른 혜시와 막역한 사이임을 드러내면서, 그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혜시와 장주의 대화 유형을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혜시가 명가의 대표 학자라 일컬어질 만큼 논변에 뛰어나다고 인정받고는 있지만, 그런 혜시가 가르침을 청하는 인물이 장주라는 것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장주는 동식물들을 예로 들거나 우언을 통해 혜시를 설득하는데, 이는 혜시로 대변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글쓰기를 한 것으로, 이로써 독자는 작자 즉, 장주의 품성을 짐작하게 되고, 훨씬 더 장주의 말에 친근감을 느끼고 설득의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한편 『장자』에는 공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역시도 화자의 권위에 기대어 설득의 말하기를 하는 것으

2) 김월회, 「稷下學宮과 戰國時代의 글쓰기─『荀子』와 『莊子』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제55집, 2008, p.5.

3) 수사학은 말을 잘하는 재주, 곧 말로써 남을 설득하는 기술을 뜻한다. 남을 설득시킬 때 비로소 화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수사법은 남을 설득하여 자신의 의도하는 바를 얻는 것 말고도 다른 기능과 임무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수사법은 말이나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능을 맡는다. (김욱동,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p.42)

4)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수사학/시학』, 숲, 2019, p.31 참고.

로 볼 수 있다. 즉, 야인으로 지내면서 이름조차 생경한 장주라는 사람이 아니라 유가의 스승이라 칭송받는 공자의 입을 빌린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기에 택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이는 『장자』에서 重言의 말하기이자, 에토스라는 설득의 요소로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주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하거나 소수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寓言을 때로는 독자를 꾸짖는 도구로, 또 때로는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이는 파토스 곧,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의 말하기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보통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말한다. 왜냐하면 차분한 감정 상태보다 흥분한 상태의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이는 「덕충부」와 「대종사」 편에서 유가의 스승이라 일컬어지는 공자나 재상의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들도 발뒤꿈치가 베이는 형벌을 받은 올자보다 못하다는 설정을 통해 드러난다.

마지막으로 로고스는 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또는 논거를 의미한다. 『장자』의 상당 부분은 우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언은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상황을 통해서 독자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글쓰기 방식이다. 로고스 즉, 내용 자체의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주는 역사적 예증과 허구적 예증을 통한 귀납의 논증 방식, 그리고 삼단 논법이나 생략 삼단 논법과 같은 연역의 방식을 『장자』에 구현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 귀납의 논증 방식: 역사적 예증법, 허구적 예증법

역사적 예증으로써 장주가 우언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제물론」 편에 등장하는 『춘추』에서도 보이며, 곤과 붕의 이야기를 믿음직스럽게 만드는 역할로 『제해』, 그리고 상나라 탕 임금과 신하 극의 대화를 「소요유」 편에 제시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사실 이 『제해』라는 책, 그리고 상나라 탕 임금과 신하 극의 대화는 어쩌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장주가 지어낸 허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주가 이를 역사적 사실의 예처럼 제시한 까닭에 있다. 장주는 역사적 예증이 설득에 훨씬 효과적이기에, 설령 허구일지라도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역사적 사실처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허구적 예증은 '비유'와 '우화'로 나뉘는데, '비유'는 "멀고 익숙하지 않은 논점을 독자 앞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비유를 통해 논점을 친숙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5] 「소요유」 편에서 위나라 왕에게 받은 박씨가 자랐는데 너무 커서 부수어 버렸다고 혜시가 말하자,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솜 빠는 데에 사용한 송나라 사람과 그 약으로 영주가 된 나그네에 비유하여 '작은 쓰임과 큰 쓰임'을 장주가 설명한 것이 그 예이다. 이 외에도 『장자』에 등장하는 동식물들은 모두 비유의 대상으로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화' 즉, 우언은 장주 스스로가 열에 아홉은 우언이라고 할 정도로 『장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술방식인데, 여기에서 우언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 교훈을 담고 있어야 허구적 예증의 하나로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바로 「제물론」 편의 '조삼모사' 우언처럼 말이다. 이 우언은 장주가 단순히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양행(兩行)'을 설명하고 이를 설득시키기 위해 원숭이 이야기 안에 하고자 하는 말을 담아 그 예증으로 사용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3) 연역의 논증 방식: 삼단 논법, 생략 삼단 논법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이루어진 삼단 논법은 논리학에서뿐만 아니라 수사학에서도 설득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령 『장자』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5) 魏园, 「莊子之道的诗化言说方式」, 华东师范大学博士學位論文, 2013, p.12 참고.

[대전제] 억지로 인의와 볍도에 맞는 말로 포악한 사람 앞에서 주장한다면, 이것은 남의 악행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있게 하는 것이니, 이를 일러 '남을 해치는 것'이라 한다.
[소전제] 남을 해치면 남도 반드시 반대로 그를 해칠 것이다.
[결　론] 그러니 너는 아마도 남들에게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6)]

위의 내용은「인간세」편에서 안회의 말에 공자가 한 말이다. 물론 장주는 이것은 대전제이고 저것은 소전제이며 따라서 결론은 이것이라고 구분하여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삼단 논법의 틀에 맞추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위의 글은 삼단 논법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너는 해를 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남을 해치면 남도 너를 해치기 때문이다'라는 공자의 말을 장주가 이처럼 삼단 논법으로 구성한 까닭은, 군주 앞에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어째서 해를 당하는 일이 되는지 모르는 안회를 설득해야 했기 때문이다.

『장자』에는 생략 삼단 논법이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적잖이 보인다. 생략 삼단 논법은 삼단 논법의 대전제, 소전제, 결론 중 하나가 생략된 채 제시되는 것을 일컫는다. 즉, 화자가 던진 단초를 바탕으로 청자가 생략된 부분을 메꾸면서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신들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인간들이야![7)]

이를 삼단 논법으로 구성하면 대전제는 생략되어 있고, 소전제는 '신들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거늘'이며, 결론은 '하물며 인간들은 더 모를 것이다'가 된다. 이는 "어떤 자질이 그것을 가질 법한 자에게도 없다면 그것을 가질 법하지 않은 자에게는 확실히 없을 것"[8)]이라는 의미를 생략 삼단 논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은 신보다 열등하다'라는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지만, 논리의 전개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으며 심지어 생략된 부분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략 삼단 논법이 "표현의 측면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가 생략되는 '불완전한' 삼단 논법이지만, 사유의 측면에서는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이어지는 진행 과정 모두를 밟는 '완전한' 삼단 논법"[9)]이고, 생략되는 부분은 쉽게 추론이 가능한 보편타당한 것이기 때문이다.[10)] 『장자』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리 전개를 찾아볼 수 있다.

옛날의 지극한 이들은 먼저 자기를 살핀 후에야 다른 사람을 살폈다.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어느 겨를에 포악한 사람이 행한 것에 이르겠느냐![11)]

이를 삼단 논법으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 전 제] 생략
[소전제 1] 옛날의 지극한 이들도 자신을 먼저 살핀 후에 남을 살폈다.
[소전제 2] 너는 아직 너 자신도 살피지 못하고 있다.
[결　　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살필 생각일랑 하지 마라.

---

6)『莊子・人間世』: 而强以仁義繩墨之言衒暴人之前者, 是以人惡有其美也, 命之曰菑人. 菑人者, 人必反菑之, 若殆爲人菑夫!
7) 아리스토텔레스, 앞의 책, p.211.
8)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p.211.
9) 박성창,『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17, p.64 참고.
10) 생략 삼단 논법을 사용한 주장이 논증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때, 숨겨진 전제가 생략 가능한지, 즉 보편타당한지를 살핀다. (김용규,『설득의 논리학』, 웅진지식하우스, 2020, p.75 참고)
11)『莊子・人間世』: 古之至人, 先存諸己而後存諸人. 所存於己者未定, 何暇至於暴人之所行!

비록 표현상으로는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지만, 독자는 어렵지 않게 생략된 대전제 '안회 너는 옛날의 지극한 이들보다 못한 존재다'를 유추해서 사고할 것이다.

이처럼 생략 삼단 논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청자 혹은 독자에게 생략된 부분을 복원하게 함으로써 논증의 구성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설득이라는 원래의 목표에 보다 잘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12] 또한 이러한 방법은 확언할 수 없는 道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추론의 방법이었을 것이며, 그러기에 『장자』에서 두루 활용된 것이라 볼 수 있다.

4.『莊子』 글쓰기의 현대적 활용

비유와 은유, 역설 등의 방법으로 표현되었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장주의 논리적 서술방식을 밝혀낼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고전 읽기의 방법을 제시해 볼 수도 있고, 대학 교양 고전 수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주의 글쓰기를 모범으로 삼아 청자나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설득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감춰진 설득의 말하기와 글쓰기를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장자』를 활용한 고전 리터러시 교육

「양생주」 편은 『장자‧내편』 중에서도 유독 편폭이 짧아 누락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이 난해하다고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를 장주가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본다면, 3장에서 살펴보았던 『장자』 글쓰기의 논리적 서술방식 가운데 하나인 '생략 삼단 논법'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적용하여 고전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수업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전 독해 시간에 교수자가 생략 삼단 논법으로 「양생주」 편을 풀이하는 과정을 학습자에게 보여주면서 「양생주」 편의 구성에 의도적인 생략이 있을 수 있음을 학습자에게 인지시킨다면, 학습자는 자구에 얽매여 고전을 읽는 방법에서 벗어나 장주의 논증 방법 찾기로 고전 읽기의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학습자 스스로가 생략된 부분을 자신의 논리로 메꿔서 삼단 논법으로 구성하였다면, 이로써 합리적 추론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체 맥락과의 관계에서 연결 지어 발표하게 하고 그 논증이 타당한지 검증하도록 한다면, 주체적 해석 능력까지 함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연후에 기존 학자들의 해석과 비교하여 자신의 해석을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할 것인지 입장을 나누어 토론하는 시간을 학습자에게 마련해 준다면, 학습자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함께 설득의 말하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상문 쓰기에서도 장주가 생략한 부분을 학습자의 추론과 상상력으로 채워 넣는다면, 장주의 문학적이면서 논리적인 글쓰기처럼 학습자도 논리성을 갖춘 글쓰기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장자』를 활용한 설득의 말하기

장주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라는 곳에서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고, 또 때로는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수시로 맞닥뜨리게 됨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장자』에 등장인물 간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장주가 각기 다른 설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독자의 상황과 관계를 고려한 독자 맞춤의 글쓰기로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글쓰기의 예는 『장자』 중에서도 「인간세」 편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기에 이를 중심 텍스트로 분석해 보려 한다.

장주는 「인간세」 편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자에게는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12) 박성창, 앞의 책, p.64-65 참고.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게 하고, 그러한 연후에 다시 또 대화를 통해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내게끔 유도하여야 함을 안회와 공자의 대화 방식을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보다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상대와 대화를 해야 할 때는 重言의 방식으로 전해야 함을 섭공자고와 공자의 대화를 통해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해력도 부족하고 다루기 힘든 자를 설득할 때는 이해하기 쉬운 우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것을 거백옥의 입을 빌어 제안한다.

또한 장주는 평가자와 다수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피평가자 즉, 평가 대상과 소수자를 다른 시선으로 대해야 함을 비유와 반전의 말하기로 설득한다. 즉, 평가 대상과 소수자에게 반전의 자질이 있음을 나무에 비유하는가 하면, 곱추 지리소와 미치광이 접여를 반전의 모습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여준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늘 어떤 관계 맺음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맺음은 예나 지금이나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설득의 과정에서 장주가 사용하였던 문답법, 중언과 우언, 비유와 반전의 말하기를 활용한다면, 관계와 설득의 상황에서 오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고에서『장자』글쓰기, 그중에서도 논리적 서술방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장주가 나름의 확고한 지식을 가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설득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설득 방법을 동원하여『장자』를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환상과 허구의 문학적 글쓰기라고까지 평가받았던『장자』에 나타난 우언, 중언, 비유, 역설, 초월 등의 글쓰기 방법이 장주의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된 서술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고대의 수사학의 개념을 기준으로『장자』의 논리적 서술방식을 분석한 결과,『장자』에는 서양의 고대의 수사학에서 말하는 정감적 논거와 논리적 논거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주는 이를 귀납과 연역의 논증 방식으로 구성하여 독자를 설득의 단계에 이르도록 안내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장자』의 논리 서술방식을 활용하여 대학에서의 교양 고전 수업을 구성한다면, 기존의 해독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고전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읽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학습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고전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시키는 수업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장자』의 논리 서술방식은 현대 사회에서 상대와 상황에 따라 다른 설득의 방법으로 대화를 구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장자』 글쓰기와 그 활용 연구’는 비단『장자』텍스트 하나에 그치지 않고, 다른 제자백가서 예컨대『맹자』,『묵자』등에도 이와 같은 서술과 설득 방법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고찰은 향후 다른 제자백가서의 독법과 활용 연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文选≫李善注引≪尚书≫考论

吴相锦*

<目　录>

1. 李善注引≪尚书≫析论
2. 李善注引≪尚书≫各家注考论
3. 李善广徵≪书≫文考
4. 结论

≪尚書≫，抛≪釈文≫所載為"本王之号令，右史所記。孔子刪録，断自唐虞下訖秦穆，典謨、訓誥、誓命之文"，是記録夏、商、周時期最早的歴史文献。由於其書早為人所重視，先秦諸子，尤其是儒家経典≪左伝≫≪礼記≫等多次引用。李善亦将其視為重要文献，因此他曾多次注引≪尚書≫以及相関文献。這裏，筆者以本人的研究為基礎，綜合前人的研究成果，対李善注引≪書≫的問題作一整体性的研究。

1. 李善注引≪尚书≫析论

(1) 李善注引≪尚書≫基本体例

在≪文選≫的三十九個文体類目裏，李善注引経部≪尚書≫相関文献，除了"辞""墓誌""難"類，在三十六個文体類当中皆有所見1)。他主要以"≪尚書≫曰"的形式，不引其篇名而注引≪尚書≫文，注引其各家注文形式主要作"≪尚書≫曰+某人曰"以及"某人≪尚書≫注（伝）曰"。然而在李善所引旧注之≪尚書≫文、或個別注釈，会出現不同形式的情況。如果前有≪尚書≫注，則後接作"孔安国≪尚書伝≫"，不作"孔安国曰"，或因二者出自≪尚書≫不同篇章之故。且抛筆者所考，就李善引≪尚書≫文作"≪尚書≫曰"1051条2)，作"≪尚書序≫"28条，另外"≪尚書≫曰+某人曰"形式即後加孔安国、鄭玄等人注釈177余条3)，即李善注引≪尚書≫本文者共1256条。

(2) 李善注引≪尚書≫底本考証

根抛史料所載4)，唐初今文、古文≪尚書≫单本亡佚，而古文孔伝，即所謂偽≪古文尚書≫本，成為主要

* 北京大学

1) 但就如各経文在個別作品会出現較頻繁的現象，這裏同様也存在，如在≪石闕銘≫，我們可以看到較多的≪尚書≫注文。

2) 由於旧注亦為李善所保留，因此其中包括旧注（如劉逵、王逸等注）所載≪尚書≫文。另外，"≪尚書≫曰+又曰"形式的≪尚書≫文多為不同篇章或同一篇章不同部分所出的注釈，因此分開計算。

3) 後加孔安国注者共167条，王粛注共2条，鄭玄注共6条，馬融注共2条。

4) ≪経典釈文≫云"平帝立≪古文≫，永嘉喪乱，衆家之書並滅亡，而古文孔伝始興，置博士。鄭氏亦置博士一人，近唯崇古文，馬、鄭、王注遂廃。今以孔氏為正，其≪舜典≫一篇仍用王粛本"，載"孔安国≪古文尚書伝≫十三巻"。≪隋志≫小序云"晋世秘府所存，有≪古文尚書≫経文，今無有伝者"，並載"≪古文尚書≫十三巻，漢臨淮太守孔安国伝"。≪旧唐書・経籍志≫載"≪古文尚書≫十三巻，孔安国伝"以及"≪古文尚書≫十巻，孔安国伝、范寧注"。≪新唐書・芸文志≫載"≪古文尚書≫孔安国伝，十三巻"。

通行本。那麼，李善徵引≪尚書≫文，当出自孔安国等人的注本，而拠≪隋志≫所云"至隋，孔、鄭並行，而鄭氏甚微。自余所存，無復師説"，正如斯波六郎、趙建成認為李善所拠≪尚書≫文出自孔氏伝本，李善将偽孔伝作為注引≪書≫之底本的可能性頗大。

而斯波六郎指出隋唐時期所謂的孔子伝本≪尚書≫大約有三種，即王粛注本、范甯注本、姚方興本。其中，姚方興所編≪古文尚書≫是以"隸古定"字体所写，隋唐広為流伝，陸徳明云"≪尚書≫之字，本為'隸古'。既是隸写古文，則不全為古字。今宋斉旧本及徐李等音所有古字蓋亦無幾穿鑿之徒，務欲立異。依傍字部改変経文，疑惑後生，不可承用"，而范寧曾将此以楷書（今字）改写。

雖然斯波六郎将比鄭注多出且独存於姚方興所呈奏之≪舜典≫当中"曰若稽古帝舜，曰重華，協与帝，濬哲文明，温恭允塞，玄徳升聞，乃命以位"二十八字，以及"帝乃徂落"的相関善注列出，但依拠其他注釈，他認為李善注所拠≪舜典≫除了姚方興本，也採用了王注本、范寧注本。拠筆者考察，依李善所引王粛≪尚書≫注部分　皆出自≪舜典≫，李善採用王注本之説当不誤。另外，筆者認為李善参考了姚方興本以及范寧注本，即在各本所録与≪文選≫作品所出現相同字詞上，徵引之。

那麼，在此前提下，筆者将所考的相関内容，挙例如下：

① 引古本≪尚書≫

如≪京都中・東京賦≫："堅冰作於履霜，尋木起於櫱栽。"善注："孔安国≪尚書伝≫曰：'用生櫱栽。'韋昭曰：'株生曰蘖。蘖与櫱古字同。'"奎本載為"孔安国≪尚書伝≫曰：'用生櫱栽'，韋昭曰：'株生曰蘖'，鄭玄≪礼記≫注曰：'栽，植也'。蘖与櫱古字同"。今≪盤庚上≫作"有用生蘖哉"，≪釈文≫云"蘖，五達反，本又作'櫱'，馬云：'顛木而肄生曰蘖'"。從≪釈文≫可知，李善引≪尚書≫恐引其古本。

② 引馬、鄭、王注本

如≪畋猟中・羽猟賦≫："昔者禹任益虞而上下和，草木茂。"善注："≪尚書≫，帝曰：'疇若予上下草木。'禹曰：'益哉。'帝曰：'汝作朕虞。'孔安国曰：'上謂山，下謂沢也。'"[5]正如王保国所提，此文出自≪舜典≫，奎本所載与今本合。≪正義≫曰"≪周礼≫'山虞、沢虞之官各掌其教'，知'上謂山，下謂沢'也"。又"馬、鄭、王本皆為'禹曰：益哉！'是字相近而彼誤耳"。那麼，李善或原以正文出"禹"，従鄭本作"禹曰：益（哉）"，又≪逸周書≫"先用有勧永有闕於上下"，孔晁注"上謂天，下謂地也"，即上下之分，如上謂天，那麼対応下謂地，然此処該依≪正義≫所言，上謂天，那麼対応下謂"沢"。

③ 合与今文≪尚書≫者

如≪七上・七啓八首≫："采英奇於仄陋，宣皇明於巌穴。"注："≪尚書≫曰：'明明揚側陋。'"集注本作"明明楊仄陋"，奎本作"明明揚仄陋"。又≪史論下・恩倖伝論≫："明揚幽仄。"注作"≪尚書≫曰：'明明揚仄陋'"。奎本等同。今≪堯典≫作"明明揚側陋"，孔疏云"側陋"者，"僻側浅陋之処"。対此，王保国云"将≪尚書≫原文随意改動，致使文義更難理解，不妥"，然梁章鉅云二字"同声通用"，又皮錫瑞載"劉毅≪論鄧太後≫注紀疏曰'顕揚仄陋'，邊譲≪章華賦≫曰'挙英奇於仄陋'，≪三国魏志≫曰'揚挙仄陋'"，与段玉裁並称恐今文≪尚書≫一作"仄陋"[6]。在正文同出"仄"字的情況下，注後並無二字"同"之語，且集注本亦作"仄"，筆者傾向於李善所見本作"仄"。

綜上所述，第一，李善徵引≪尚書≫多与≪釈文≫所載"本又作"字詞相合。這可能説明李善所引並非同於≪正義≫定本。第二，李善徵引≪尚書≫文，亦有同於馬、鄭、王注本所載之辞，那麼，李善在単注"≪尚書≫曰"部分，亦有参考各家注本的情況。第三，李善徵引≪尚書≫文，其字詞有与前人所考今文≪尚書≫相同者。首先李善徵引旧注有出自今文≪尚書≫的情況，然而李善徵引偽孔安国≪尚書≫伝，与今文≪尚書≫字詞相同，可能就是李善所見偽孔伝本与今文≪尚書≫所載相同的縁故。

---

5) 尤袤本同，然其中"禹曰：'益哉'"北宋本作"禹曰：'益'"，奎本"禹曰"作"僉曰"；"帝曰：'汝作朕虞。'"其中"汝"北宋本作"女"；孔安国"下謂沢也"，北宋本、奎章閣本等作"下謂地也"。

6) [清]皮錫瑞撰，≪今文尚書考証≫巻一，北京：中華書局，1989年，第35頁。

那麼，通過考察得知，李善徵引的是衛包改為今字之前的古文≪尚書≫本。斯波六郎認為李善本≪尚書≫乃是補充了姚方興≪舜典≫本的偽孔伝本（也可能是隸古定本），与唐代定本、≪正義≫本、現存隸古定≪尚書≫諸本並不完全相同，而且優於諸本。筆者承此說法，認為李善所引偽孔伝本多与唐初通行本有出入，因此李善有参考当時所見更早、更善之本的可能性。

這裏，筆者提出両種仮設：第一，李善或参考了当時所通行的所有古文≪尚書≫主流文本，因此作"≪尚書≫曰"的注釈当中，就如斯波六郎所說，多与≪正義≫、定本等版本出現異同，可能是由於其文多出自其他各家注本的縁故。李善注釈的主要目的就是囲繞≪文選≫作品"正文"而引其相関経文，且為其注解詞義，因此在作品字詞与甲人注本出現相同字詞時，会引用到甲本，如果作品出現的字詞与乙人注本有関，那麼会引用乙注本。而所参考本皆与正文文字異同時（例如≪文選≫作品出現字詞為今文≪尚書≫文），会標注"字同""字通""古同""古通"等語来明確表示其不同。第二，李善只是参考了隋朝所存的六朝通行偽孔伝本，而唐朝至宋、明、清朝後人在校勘及刊刻的過程当中対原注進行刪改，導致注釈出現古今文、与馬、鄭等注本所載字詞相同的情況。在刊刻時，往往後人以当時通行文本校対≪文選≫注本，従而失去注釈的原貌，特別在奎章閣本、明、贛、尤本都出現了明顕的現象。那麼，結合斯波六郎的說法，以及綜合以上両種意見，整体総結的話，筆者認為李善曾参考異於≪正義≫定本的東晋孔伝旧本，以及馬、鄭、王注本，孔伝所載的王粛注本、范甯注本、姚方興本。然而関於李善所見具体版本和文本種類，由於各注本、集解、義疏本早已亡佚，無法進行更深入的思考，因此難以草率下定論。

2. 李善注引≪尚书≫各家注考论

関於隋唐時期≪尚書≫各家注的存佚情況，目前可以通過≪経典釈文序録≫≪隋書・経籍志≫≪旧唐書・経籍志≫≪新唐書・芸文志≫等所載，来判断唐代各家≪尚書≫注本的流伝和存佚情況。拠考察，唐初古文、今文≪尚書≫已無単本流伝，隋唐史志目録主要記載其各家注本、集解本、義疏本。具体対李善注引≪尚書≫相関文献及各家注的問題，以及前人所考李善注引≪書≫之群書目録，総結如下：

汪师韩	斯波六郎	刘高尚	赵建成	吴相锦
孔安国 ≪尚书传≫	孔安国≪传≫ 173条	孔安国≪尚书传≫ （≪夏书≫， ≪洪范五行传≫）	孔安国≪尚书传≫ =伪≪古文尚书≫ ≪尚书序≫	孔安国 ≪尚书传≫
王肃≪尚书≫注	王肃注 2条	王肃≪尚书≫注本	王肃≪尚书≫注本	参考王肃 ≪尚书≫注
郑康成 ≪尚书≫注	郑玄注 4条	郑玄 ≪尚书注≫本	郑玄≪尚书≫注本	参考郑玄 ≪尚书≫注
马融≪尚书≫注	马融注1条 孔传、马、郑 並举1条	马融 ≪尚书≫注本	马融≪尚书≫注本	参考马融 ≪尚书≫注
欧阳≪尚书说≫		欧阳 ≪尚书说≫	转引自它书	出自 ≪说文解字≫
≪尚书大传≫ （伏生）		≪尚书≫、 伏生≪尚书大传≫		（伏生 ≪尚书大传≫）
郑元 ≪尚书大传≫注		郑玄 ≪尚书大传注≫本	郑玄 ≪尚书大传注≫本	当参考郑玄 ≪尚书大传≫注本
郑元 ≪尚书洪范 五行传≫		刘向≪尚书五行传 论≫、郑玄≪尚书 五行传注≫	刘向≪尚书洪范五 行传论≫	当参考刘向 ≪尚书洪范五行传≫

郑元 ≪五行传≫注				
≪夏书逸书≫ （≪魏都赋≫ 注）			≪逸夏书≫並非出 自其原书，张沿韦 说	出自 ≪说文解字≫
		其馀： ≪尚书逸篇≫	其馀：“旧注可能是 今文≪尚书≫” “尚书疏”为 顾彪≪尚书疏≫	≪尚书疏≫注疑出自 费彪≪尚书义疏≫

拠筆者考察：李善注引“≪尚書≫”文，主要以古孔安国≪尚書伝≫文為主（異於≪正義≫≪釈文≫底本，与≪釈文≫“本或作”所載字詞重合者頗多），以唐初所見偽孔伝、鄭玄（馬融）≪尚書≫注文等別本為次。而通過对李善所引≪尚書≫各家注的考察，発現李善注解≪文選≫正文時以孔安国≪尚書伝≫本（偽孔伝）為主，再以鄭玄、王粛、馬融為輔。而当時所見馬融、鄭玄、王粛注本今己散佚，未有全本流伝，因此李善注対保留各家注有着重要的文献価値。

那麼，拠以上考証，李善当直接参考過孔安国≪尚書伝≫本、鄭玄≪尚書≫注本、王粛≪尚書≫注本，而馬融≪尚書≫注与劉向≪尚書洪範五行伝≫注還載於其他文献。這裏，雖然不能否定李善従他書転引相関注釈的可能性，但是従当時存在单行本流行於世的情況来看，李善応当仍会利用原書来加以引用。且李善当查看過鄭玄≪尚書大伝≫注本，但是否查閲伏生之≪尚書大伝≫本則暫無従考察。另外，“欧陽≪尚書説≫”以及善注“≪夏書≫”注文有出自≪説文解字≫的可能。最後，李善注作“≪尚書疏≫”一条，有出自費彪≪尚書義疏≫的可能性，但亦難以定論。

最後，≪隋志≫对≪尚書≫経書之記載，還有：“≪集解尚書≫十一卷，李顒注”“≪集釈尚書≫十一卷，宋給事中姜道盛注”“≪古文尚書舜典≫一卷，晉予章太守范寧注。梁有≪尚書≫十卷，范寧注，亡”“≪尚書義疏≫三十卷，蕭■司徒蔡大宝撰”，≪経典釈文≫对此有載“范甯≪集解≫十卷”“姜道盛≪集解≫十卷”以及“梁国子助教江夏費彪作≪義疏≫行於世”之文。雖然我們不能完全否認李善曾参考当時所見之“集解”“義疏”本，但從李善注引≪論語≫各家注可能並非出自≪論語集解≫而是出自其各家单注本的考論這一情況，以及其他経本之考証，筆者更是傾向於認為李善注引各家注釈時，仍参考原書所載，再注入≪文選≫“臣善曰”文之中。

3. 李善广徵≪书≫文考

今≪文選≫注本引≪書≫，存在出自先秦典籍的情況。劉起釪先生云“先秦≪書≫篇篇名之可尋者，大概一百四十至一百五十篇左右”[7]，即≪左伝≫引≪書≫最多，共80多次、≪墨子≫47次、≪礼記≫43次、≪孟子≫38次、≪国語≫≪荀子≫各20多次、≪論語≫8次。那麼，李善所引先秦書籍之≪書≫文，是否有存遺的目的，或有其他縁由，我們且通過相関注釈来探其究竟。

(1) ≪漢書≫

李善引≪書≫出自≪漢書≫同文的情況有三条，這裡列舉其一：

≪郊廟・宋郊祀歌二首≫:“九官列序。”注：“≪漢書≫，劉向上疏曰：‘舜命九官，済済相譲’。応劭曰：‘≪尚書≫曰：禹作司空，棄后稷，契司徒，皐繇作士師，垂共工，益朕虞，伯夷秩宗，夔典楽，竜納言也。凡九官也。’”

7) 王寧、褚斌傑等著，≪十三経説略≫，北京：中華書局，2015年，第27-29頁。

李善在三処不同文類中对“九官”的注釈，皆注引此文[8]。≪前漢書≫巻三六載“舜命九官，濟濟相讓，和之至也”，顔師古注“≪尚書≫：‘禹作司空，棄後稷，契司徒，咎繇作士，垂共工，益朕虞，伯夷秩宗，夔典楽，竜納言。’凡九官也’”。≪群書治要≫載此，与師古注同[9]。按：今≪舜典≫記載相関内容，即“僉曰：‘伯禹作司空’”“帝曰：‘棄，黎民阻飢，汝後稷’”“帝曰：‘契…汝作司徒’”“帝曰：‘皐陶…汝作士’”“帝曰：‘垂，汝共工’”“益，汝作朕虞”“伯，汝作秩宗”“帝曰：‘夔，命汝典楽…命汝作納言’”。可知，注解“九官”，将≪尚書≫所引“九官”相関内容全部納入，内容龐雜繁多，因此李善通過応劭引≪尚書≫之≪漢書≫注文，对正文加以注釈。

(2) 徐広≪史記音義≫

≪銘・封燕然山銘≫:“鷹揚之校，螭虎之士，爰該六師。”注：“≪史記≫曰：‘武王乃作≪泰誓≫曰：勗哉夫子，尚桓桓，如虎如貔，如熊如羆。’徐広曰：‘此音訓並与上同也。’”又≪典引一首≫：“虎螭其師。”注：“虎螭，如虎如螭也。≪史記≫武王曰：‘勉哉夫子，如虎如羆，如豺如離。徐広曰：‘此音義訓並与‘螭’字同。’”

対≪封燕然山銘≫注文，王保国曾云“一是≪史記≫無上述文，二氏‘勖哉’句不出自≪泰誓≫”，又胡紹瑛引≪後漢書≫李賢注載此≪史記≫文以及徐広≪史記音義≫注。蓋≪史記≫載“勉哉夫子，尚桓桓，如虎如羆，如豺如離”，裴駰≪集解≫作“徐広曰：‘此訓与螭同’”[10]。按：今≪泰誓≫確無此文，≪牧誓≫作“勖哉夫子！尚桓桓，如虎如貔，如熊如羆”。蓋≪史記≫引此文，唯“勖哉”作“勉哉”。李善引此，将≪史記≫引≪書≫之句作注，主要是為注引徐広≪音義≫之“‘離’与‘螭’同”。

(3) ≪論語≫

≪書下・与陳伯之書≫：“朱鮪涉丁喋切，与喋同血於友於。”注：“≪尚書≫曰：‘孝乎。惟孝友於兄弟。’”然，≪閑居賦≫：“孝乎惟孝，友於兄弟，此亦拙者之為政也。”注：“≪論語≫，或謂孔子曰：‘子奚不為政？’子曰：≪書≫云：‘孝乎，惟孝友於兄弟，施於有政。’是亦為政，奚其為為政。包氏曰：‘孝乎惟孝，美大孝之辞也。友於兄弟，善於兄弟也。施，行也。所行有政道，即与為政同也。’”此乃≪論語・学而≫篇文，後“包（苞）氏”所注可見於今何晏≪集解≫。其中≪書≫文今≪君陳≫有之，孔伝云“言善父母者必友於兄弟，能施有政令”。奎本等無，尤本有，疑尤本所添之，或非原注。然而如若本注為李善遺注，入≪論語≫引≪書≫，或因“包氏”所注与孔伝相較更為詳細，因此注引之。

(4) ≪説文解字≫

≪公讌・晉武帝華林園集詩≫：“陶唐既謝，天歴在虞。”注：“≪説文解字≫　云：陶丘再成也，在濟陰。≪夏書≫曰：東至陶丘。陶丘有尭城，尭嘗居之，故号陶唐氏。”具体内容在本文“≪夏書≫”部分。

従李善注引≪漢書≫≪史記≫（≪論語≫）引≪尚書≫注釈可知，其他文献之各家注釈，与≪書≫各家注及其≪書≫原文相較，更符合、且便於注解正文。然注引≪説文解字≫所載許慎≪夏書≫注，或因其今文≪尚書≫在唐朝已逸，故而引之。

---

8) 另在≪永明十一年策秀才文五首≫：“九工開於黄序”与≪斉故安陸昭王碑文≫：“伊昔帝唐，九官咸事”。

9) [唐]魏征撰，≪群書治要≫巻十五，日本天明刻本，第6頁。

10) “按≪後漢書≫章懷注“如虎如羆，如豺如離。徐広曰‘此離音訓並与螭同也’。本書≪典引≫注与章懷注合。此誤蓋後人以今本≪泰誓≫改之”。（[清]胡紹煐，≪文選箋証≫巻三二，清聚学軒叢書本，第3頁）；≪後漢書・列伝≫巻七十下，李賢注：“≪史記≫曰：‘如虎如羆，如豺如離’，≪音義≫曰‘離与螭同。’”（中華書局1965年，第1379頁）；［漢］司馬遷撰；［南朝宋］裴駰集解；［唐］司馬貞索隠；［唐］張守節正義，≪史記・周本紀≫巻四，北京：中華書局，1982年，第124頁。

4. 结论

筆者対李善注引≪書≫，主要是從其所引≪書≫相関文献、古今孔伝文之別、鄭玄≪尚書≫注等各家注、旧注所載≪書≫文等問題進行考察。

李善注引≪尚書≫文在单注"≪尚書≫曰"時，雖以古孔安国≪尚書≫伝本為主，亦有参考馬融、鄭玄、王弼注本的現象。注引王肅注的情況，李善主要是依拠≪舜典≫採取王肅本之説；作"欧陽尚書説"者僅有一条，当是徴引≪説文≫所載；引作≪夏書≫的注釈有両条，一条為旧注即李善注張載所引≪国語≫韋昭注，另一条転引自≪説文≫；作劉向≪尚書五行説≫≪尚書疏≫各存一条，皆今已無從考察。另外，根拠相関文献的稽考可得知，李善徴引≪尚書≫文並非同於≪正義≫定本，即李善所引偽孔伝本多与唐初通行本有異，可能是参考了当時所見更早、更善之本。然而由於各注本、集解、義疏本早已亡佚，李善所見具体版本和文本種類，目前未能進行更深入的考訂工作。另外，李善徴引旧注所載≪書≫文時，亦有与前人所考訂為今文≪尚書≫字詞相同的情況。在李善広徴≪書≫文的問題上，即有将其転引自応劭≪漢書≫注、徐広≪史記音義≫、何晏≪論語集解≫以及≪説文≫的注釈，其主要原因在於原書已佚或比起≪書≫文及其各家注，史料所載更便於注解、切合正文。

≪文選≫李善注本就如一本百科全書，其博大精深的注釈提高了≪文選≫本身的価値，对我們了解文学作品、保留早期文献章句幫助甚大。由於経書原就被文人広泛接受、継承，对一般読書者来説最熟悉，因此与其引用較為生疏的著作，不如引用普遍熟知的文献，較容易被読者理解和接受。而這樣做多少出於将経典詞彙与正文融合為一，或将文集藉助徴引文献，提升文学作品与経典同等地位的意図。而李善傾向於引用儒家経典文献的特点十分突出，則有将自己所注釈的≪文選≫進行経典化，将其地位抬高到経典位置的作用。這種現象，反映出中国人重視文学作品，以経注文恰恰説明文学作品的地位有所提升，也是将它同視於経的観念的反映。因為他們認為文学作品会影響人們的意識形態，這也是中国古代詩教思想的継承。

명말청초 雲間 지역 宋氏 일가 詞에 대한 소고*

ㅡ 宋徵璧·宋徵輿의 비애 표현을 중심으로

김하늬**

<目　次>

1. 들어가며 - 雲間詞派의 성립과 송씨 일가
2. 사의 재발견과 비애에의 몰두
3. 송징벽·송징여 사의 비애 표현
4. 나오며

1. 들어가며 - 雲間詞派의 성립과 송씨 일가

본 연구자는 清代 詞的 흐름을 통해 강남 지식인의 의식 세계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왜 하필 청대에 들어 사가 부활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사는 명대에 이르러 망했다.(詞至於明, 而詞亡矣.)"(陳廷焯, ≪白雨齋詞話≫)라고 평가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明詞는 명청교체기에 이르러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 사의 부흥은 강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詞派들의 연이은 출현과 발전, 흡수와 통일 등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본 발표는 해당 연구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淸詞 부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雲間詞派의 사, 특히 운간사파 발전의 주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陳子龍에 비해 국내 연구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송씨 일가의 실제 사 작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명말청초에 雲間 지역(지금의 上海市 松江縣)에서 활동하였던 일련의 사인들은 이른바 운간사파로 분류된다. 운간사파의 발전에는 문인 결사인 幾社의 발전과 운간 지역의 명문 가문의 전통이 함께 작용했다. 위진 시기, 陸機·陸雲 형제를 대표로 하는 육씨 가문이 이 지역의 문학을 상징한 이래로, 다수의 과거 합격자와 풍족한 가산을 기반으로 한 명문 가문이 여럿 존재해왔는데,[1] 송의 멸망 이후 운간 지역으로 이주해 온 송씨 일가가 대표적인 예로 이들이 운간사파의 주축이 되었다. 더불어 명말에 극성한 문인 결사 역시 운간사파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崇政 2년(1629)에 운간 지역을 중심으로 幾社가 성립되고 이후 송씨 일가의 宋徵璧, 宋徵與 등이 幾社의 대표적인 일원으로서 幾社의 영수인 진자룡 등과 교류하였으니, 송씨 일가의 문학 활동은 가문, 종파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동시에, 그들이 소속된 지역의 문인 결사인 기사를 통해 바깥으로 확대되는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2]

운간사파의 영수는 기사 창립의 주축인 진자룡으로 평가되지만 사실상 운간사파의 詞作은 송씨 일가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3722)
본 발표는 <청대(清代) 사적(詞的) 흐름을 통해 본 강남 지식인의 의식 세계>라는 제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의 연구 진행 사항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 서울대학교

1) 명말청초 葉夢珠의 ≪閱世編≫ 권5 <門祚>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당시 운간 송강부 한 지역의 名門望族이 67가에 달하였다고 한다. 劉勇剛, ≪雲間派文學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8, 9쪽에서 재인용.

2) 운간사파의 성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劉勇剛의 위의 책과 이석형, <雲間詞派 詞學 研究>, 中國文學 47집, 2006; 신현석, 明末清初의 詞論 研究, 中國人文科學51집, 2012; 황영희, 雲間三子와 ≪幽蘭草≫에 수록된 詞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36집, 201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주축이 된 것은 이른바 '大小宋'으로 불린 송징벽과 송징여였다. 그 결과물이 대략 崇禎 8년에서 9년 사이에 雲間三子(진자룡, 이문, 송징여)가 창화하였던 작품들을 송징여가 정리한 ≪幽蘭草≫와 명의 멸망 이후인 1647년에 창화한 작품이 수록되었고 順治7년(1650)에 송징벽이 서문을 쓴 ≪倡和詩餘≫이다. 진자룡은 <幽蘭草序>에서 그가 송징여와 이문이 사를 짓는 것을 따라서 창화하였음을 밝혔으며,[3] 이문은 ≪又與臥子書≫에서 "봄날의 작품은 원문(송징여)에게서 시작되었다.(春令之作,始于辕文.)"라고 하였으니 사실상 이들의 창화는 송징여가 주도한 것이다. 또한 송징벽은 <倡和詩餘再序>에서 "병란이 일어난 뒤로 시골에서 은거하며 살았다. 이때 늦봄이 되어 동쪽 교외에서 친구들을 만나 서로 사로 겨루는 놀이를 하여 장기와 바둑을 대신하였다. 이에 열흘이 되지 않아서 각자 약간의 작품을 얻게 되었다. 후에 스스로 창화한 자로는 또 전자벽(錢穀)과 형님 자건(송존표), 아우 원생(宋敬輿), 원문(宋征輿)이 있었는데, 모두 고아한 곡조에 그들의 이별의 정을 부치고 깊은 정을 발하여 수려한 구절을 쓸 수 있었다."[4] 라고 하였으니, ≪倡和詩餘≫가 성립될 즈음의 모임은 송징벽이 주도한 것이며 송씨 일가가 뒤이어 참여함에 따라 확장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운간사파는 송징여와 송징벽을 비롯한 송씨 일가의 사 창작에 가까운 幾社의 일원들이 호응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창화시여≫는 작자 6인(陳子龍, 宋征璧, 宋征輿, 宋存標, 宋思玉, 錢穀) 중 넷이 宋家로, 송징벽・송존표 형제와 그들의 사촌 송징여뿐만 아니라 송존표의 아들 송사옥까지 뒤이어 창화에 참여하였으므로 운간사파의 확장과 발전에 송씨 일가가 미친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2. 사의 재발견과 비애에의 몰두

송대에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평가되는 사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고, 특히 명대의 詞는 정통문학인 詩와 통속문학으로서 원명대에 인기를 끌었던 曲 사이에서 쇠퇴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말청초 운간사파의 성립은 지식인들의 '사의 재발견'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시기 운간사파가 사 창작으로 회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일단은 왕조 말기 지식인들의 명 문학에 대한 반성과 幾社의 복고적 성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사는 "끊어진 학문[絶學]의 부흥의 기미를 안다"는 기치를 내걸고[5] 학문의 復古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영역에서 또한 마찬가지였다. 특히 명대에 曲化되고 俗化되면서 쇠퇴하였던 사의 경우, 사가 시, 곡이 있음에도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으므로 사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이에 운간사파는 婉弱한 풍격의 北宋의 사를 사의 正宗으로 삼아 그것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고,[6] 사의 '言情'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다만 운간사파의 실제 작품을 보면 이들이 표현한 情은 '환희'보다는 '비애'이며, 대체로 '규방 여인의 비애'로 한정된다.

남성 작자의 손으로 창작된 규방의 언어는 물론 여성의 언어 그대로는 아니며, 그들이 그려내는 비애 역시 여성의 비애 그대로일 수 없다. 결국 이는 여성 화자의 입을 빌려 말한 남성 작자 자신의 감정일 따

3) "내 친구인 이 선생(이문)과 송 선생(송징여)은 오늘날 최고의 문장가인데, 또 묘하게 재주가 있고 타고나길 음악에 정통하여 때로는 반고와 장형의 굉박한 자질과 매승과 소무의 大雅의 흥취를 굽혀 小詞를 지어 장기와 바둑을 대신하였다. 나는 한가한 날이면 매번 사냥을 보면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생겨 따라서 창화하는 일이 있었다. 송 선생이 그것을 모아서 간행하니 '유란초'라 하였다.(吾友李子、宋子, 當今文章之雄也. 又以妙有才情, 性通宮徵, 時屈其班張宏博之姿, 枚蘇大雅之致, 作爲小詞, 以當博奕. 余以暇日, 每懷見獵之心, 偶有屬和. 宋子彙而梓之, 曰幽蘭草.)"

4) 兵火以來, 荷鋤草間. 時値暮春, 邂逅友人於東郊, 相訂爲鬥詞之戲, 以代博弈. 曾不旬日, 各得若干首. 嗣自賡和者, 又有錢子子璧、家兄子建 、舍弟轅生、轅文. 皆能以淵調寄其離心, 深情發爲秀句.

5) 杜登春, ≪社事始末≫: '幾'란 絶學에는 부흥의 기미가 있으니 징조를 알아 신령스러움을 얻는다는 뜻이다.(幾者, 絕學有再興之幾, 而得知幾其神之義也.)

6) 예컨대 송씨 일가 운간사인의 사론 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송징벽이 <倡和詩餘序>에서 "자신이 송사에서 얻었다"고 한 7인은 歐陽修, 蘇軾, 秦觀, 張先, 賀鑄, 安幾道, 李淸照로 모두 북송인이다.

름이다. 사실 사에서 여성의 언어를 사용하여 여성의 용모와 감정을 묘사하는 것은 과거 연회에서 歌妓에게 불리기 위한 가사로 창작된 사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성의 비애를 노래하는 작품을 창작하고 그것이 근본이라 하는 운간사파의 주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명청교체기라는 시대적 특수성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또 그것이 사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송징벽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사는 詩餘인가? 나는 詩餘가 아니라 <九歌>와 <九變>이 변하여 그 음절이 달라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楚大夫가 말하기를 "쓸쓸하구나 스스로 가여워하네."라 하고 또 "스스로 가련해 함이 어찌 다하리오."라 하였으니, 이른바 "미인이 하나 있는데 마음이 편치 못하네."인 것이다. 사의 뜻은 '나 스스로를 가련히 여기는 것'에 있으며 '나 스스로를 가련히 여기는 것'은 규방의 미인의 심정과 비슷하다.[7]

송징벽은 사의 근본이 '私自憐'에 있다고 하면서 <楚辭·九辯>을 인용하는데 이 작품은 흔히 宋玉이 쓸쓸한 가을의 경치에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는 군주에 대한 감정을 기탁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송징벽이 말한 '私自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읽힐 수 있다. '私'에 집중하여 읽으면 드러내지 않고 '몰래', '혼자서' 비애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고, '自'에 집중하면 '스스로'를 가여워하는 '자기 연민'의 감정이다. 그리하여 송징벽이 말하는 사란 <초사>와 같은 '사대부적 자기 연민'의 표현이며, 대신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 정서가 유사한 규방 여인의 입을 빌려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읽을 수 있다.

운간사파가 주장한, 직접적으로가 아닌 기탁을 통한 우회적인 감정의 토로와 '환희'가 아닌 '비애'의 토로는 俗化되었던 明詞의 폐단을 극복하고 사의 雅化를 추구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여성적인 언어로 쓰인 그들의 작품들이 왕조가 교체되는 세기말적 상황의 혼란을 직접 목도하며 갈등하였던 운간사인들이 느꼈던 비애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코드(code)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8]

사실 사에 대한 운간사파의 태도는 다소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창화가 "鬪詞之戱"이며 사로써 "博奕을 대신"한 것이었다고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사로써 창화하는 행위가 유희에 불과하였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유란초≫와 ≪창화시여≫를 보면 대부분의 작품이 창화한 것이지만 그 내용에 상호 간의 소통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春遊, 春愁, 春寒, 楊花 등의 동일한 주제에 대해 각자의 감정을 노래하고 경쟁하는 식으로 창작되어 유희적인 목적인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초사>의 예를 들며 사의 기탁을 강조하는 이들의 주장은 그들이 창작한 규방의 노래를 그대로 읽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읽힌다. 사의 창작은 '놀이'일 뿐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기저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유란초≫와 ≪창화시여≫의 창화사들은 그것이 창작된 구체적인 배경이 제시되지 않고 창화하는 상호 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창작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이 작품들의 副題 또한 春遊, 閨詞, 秋閨, 杜鵑과 같이 아주 간단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을 뿐인데, 이는 아마도 함께 창화할 때 사의 주제로 제시된 것들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제의 형식은 명대에 유행하였던 ≪草堂詩餘≫[9]의 예를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草堂詩餘≫는 春景·夏

---

7) 宋徵璧, <倡和詩餘再序> : 詞者詩之餘乎? 予謂非詩之餘, 乃歌辯之變, 而殊其音節焉者也. 蓋楚大夫有云, '惆悵兮私自憐', 又曰'私自憐兮何極', 卽所謂'有一美人, 心不懌也.' 詞之旨本於私自憐, 而私自憐近於閨房婉孌.

8) 명청교체기 '여성'이 왕조 멸망의 상징으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한 Li, Wai-yee는 송징벽과 창화한 작품이며 ≪창화시여≫에 함께 수록된 진자룡의 <念奴嬌·和尙木春雪詠蘭>을 그 예로 들었다. Li, Wai-yee, *Women and National Trauma in Late Imperial Chinese Literature*, Boston: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4, 50-52쪽 참조.

9) ≪초당시여≫는 명대 간행본이 20여 종에 이를 만큼 자주 간행되어 ≪花間集≫과 함께 명대 간행된 사선집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정희, <명대 ≪草堂詩餘≫의 盛行과 周邦彦詞의 수용 양상 분석>, ≪中國語文論叢≫ 第55輯, 2012,

景·秋景·冬景의 사계와 節序·人事 등의 제재별로 작품을 분류하여 歌妓가 상황에 맞춰 적절한 노래를 골라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원본에는 없었던 '春思', '春恨'과 같은 류의 제목을 붙였는데 이 역시 가창자가 찾기 쉽게 하고 또 塡詞者가 사 창작을 학습할 때 주제별로 연습할 수 있게 한 것이다.10) ≪草堂詩餘≫의 경우, 이러한 제목들이 원 작품의 해석을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비판점이 되었는데, 이는 역으로 한정적인 해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즉, 작품 안에 다양한 의미를 감추어 두고서 역으로 이와 같은 전형적인 형태의 부제를 덧붙임으로써 의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던 <창화시여·재서>에서 송징벽은 창화 당시를 이야기하며 그가 병란이 일어나 시골에서 은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창화한 것임을 밝혔으며, 이 당시 모인 사인들이 고아한 곡조[淵調]에 그들의 이별의 심정[離心]을 기탁하였다고 말하였으니,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병란과 그로 인한 이별의 정서에 영향을 받은 채 사를 창작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다. 사의 모든 언어가 왕조 교체기 사대부의 시대적 비애를 상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자기 연민에 빠진 채 규방 여인의 한을 노래한 것은 사실인 것이다.

유희적으로 창작된 이 일련의 사들 중 실제로 창작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시대적 비애를 감추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이 <念奴嬌·春雪詠蘭>이다. 이 작품은 丁亥年(1647) 늦봄에 송징벽이 진자룡, 이문과 함께 송존표의 뜰에서 모였을 때 지은 것이며 이후 다른 운간사인들이 그들을 따라 창화하였다. 이 작품에서 명청교체기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분명하게 읽게 되는 것은 작품이 창작된 당시가 아닌, 이후에 덧붙여진 송징벽의 서문 덕분이다.

> 정해년 늦봄에 대준(진자룡), 서장(이문) 두 사람과 함께 자건(송존표)의 황폐한 뜰[荒圃]에 모였다. 이날 봄눈이 갑자기 그쳐 뜰의 난초에 꽃이 피었다. 대준이 나에게 上元의 글을 보여주었는데, 이윽고 높은 산봉우리에서 바라보고 맑은 물길을 내려다보며 瑗公(夏允彝)의 일을 탄식하였다. 서로 시문을 다 논하니 나는 이에 <염노교> 장조를 즉석으로 읊어 '陽春郢雪'의 말이 있었다. 다음날 아침 이어서 화답한 문장을 읽었는데 '공연히 금팔찌를 벗어 주는[空贈金跳脫]'데 이르니 그 뜻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적이 없다. 얼마 안 가 대준이 또 彭咸을 본받아 '상수 물결[湘水波瀾]'에서 '또 다시 깊은 계곡에 임하니[重臨幽澗]' 끝내 예언의 말이 되었다.11)

봄날 눈이 온 상황에서 난초에 대해 읊은 송징벽의 영물사와 그에 화답한 진자룡의 사는 단순히 <離騷> 속 난초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그린 것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송징벽이 후에 덧붙인 서문에 의하면 그것은 명의 멸망 후 자결한 夏允彝를 애도하는 상황에서 창작된 것이다. 또한 '空贈金跳脫'라는 진자룡의 詞句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팔찌를 벗어주고 떠난 여신의 이미지가 먼저 세상을 떠난 夏允彝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송징벽이 느꼈던 부끄러움은 따라 죽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의 부끄러움으로 읽을 수 있다. 게다가 송징벽은 그가 쓴 '湘水波瀾', '重臨幽澗'과 같은 구절을 후일에 있었던 진자룡의 투신의 예언으로 읽었으니 그들이 주고받은 사에 시대적 의미가 숨겨져 있으며, 사의 창화를 통해 이들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느낀 지식인의 비애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송씨 일가를 비롯한 운간사인들은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비애의 감정을 표현하기를 원하면서도 차마 그것을 완전히 드러낼 수 없었던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들이 사에 대해 보인 이중적인 태도는 당시 지식인의 불안정한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163쪽.

10) 자세한 내용은 張仲謨, ≪明詞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9쪽 참조.

11) 丁亥暮春，同大樽、舒章二子，集子建荒圃. 是日春雪乍霽，庭蘭放花. 大樽示予≪上元≫篇。已而眺崇崗，俯清流，感歎瑗公. 既相與極論詩文，予因即席賦≪念奴嬌≫長調，故有"陽春郢雪"之語。明旦接讀和章，至"空贈金跳脫"，未嘗不愧其意也。乃未幾而大樽亦效彭鹹，則"湘水波瀾"，"重臨幽澗"，竟若爲讖云.

렇기에 이들이 사를 택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이 시기 지식인들에게는 한낱 '詩餘'라는 사에 대한 낮은 평가가 오히려 단순히 유희를 위해 창작하였다는 핑계를 가능하게 하여 숨겨진 비애를 토로할 수단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12)]

3. 송징벽·송징여 사의 비애 표현

송징벽과 송징여로 대표되는 송씨 일가의 운간사인들은 표현에 차이는 있지만 사풍은 비슷한 경향을 보여, 대개 규방의 여인의 비애를 다루거나 나그네의 향수, 혹은 閒愁를 다룬다. 이들의 비애 표현의 특징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계적 시간의 활용

≪유란초≫와 ≪창화시여≫의 창화사들은 대개 변화의 과도기에 있는 경계적 시간을 배경으로 한다. 예컨대 밤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황혼이나 아침으로 넘어가기 전 새벽, 혹은 다음 해로 넘어가는 除夕과 같은 시간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계절적 정서이다. 특히 ≪창화시여≫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이 '봄'에 관해서 노래하는데, 송징벽의 경우 ≪창화시여≫에 수록된 36수 중 '春'이라는 글자가 사용된 작품이 20수이며, 송징여는 34수 중 29수다. 여기에 '春'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봄과 관련된 소재가 등장한 것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져 대부분의 작품이 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창화시여≫의 작품들이 창작된 시기가 暮春이기 때문이며, 사계를 주제로 작품을 수록한 ≪초당시여≫의 체제를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傷春, 혹은 惜春은 전형적인 사의 소재였는데 특히 규방 여인의 한과 자주 연결되는 소재이므로 규방 여인의 묘사를 통해 비애를 기탁하고자 했던 운간사인이 그것을 소재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송징여의 경우 李雯과의 창화의 영향으로≪유란초≫에 수록된 작품 중 가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秋'라는 글자가 등장하는 작품이 22수로 ≪유란초≫에서 '春'을 언급한 작품 수 22수와 동일하다. <초사> 이래로 悲秋의 정서 또한 고전 시가의 전통적 제재로 자리 잡았고 이는 자신의 처지를 가여워하는 사대부적 비애와 연결되는데 송징여의 사에서는 수척하고 병태적인 인물 형상, 쇠퇴를 재촉하는 風雨의 자연현상과 결합하여 비극적인 면모를 부각시킨다.

봄과 가을은 극단의 뜨거움과 차가움으로 향해가는 과도기적 계절이며, 生命 현상에서 보면 각각 성장과 쇠퇴로써, 생명의 전성기와 죽음으로 가는 중간에 놓인 계절이라는 점에서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경계적 시간이라 볼 수 있다. 봄, 가을을 비롯한 경계적 시간의 한가운데 놓인 작자는 변화를 원하지 않음에도 변화를 맞이해야 하며, 오래된 한은 새로운 한으로 대체되어 비애는 그치지 않는다.[13)] 이는 당시 왕조

---

12) 다만 이것이 운간 사인의 모든 사를 기탁으로 읽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니, 실제로 운간사파의 '기탁'에 집착하여 작품을 오독하는 경우도 있다. 송징여의 <蝶戀花·秋閨>의 경우 譚獻의≪篋中詞≫에서 "슬프면서 충후하다.(悱惻忠厚)"라고 하였고, 王國維의 ≪人間詞話≫에서도 "홍을 기탁한 것이 심오하고 묘하다.(可謂寄興深微)"라고 하여 기탁이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 사의 "신식 비단옷 다 버려버리고, 도리어 옛 봄 적삼 찾아서 입네.(新樣羅衣渾棄卻, 猶尋舊日春衫著.)"라는 표현을 청조에서 벼슬하게 된 송징여의 옛 왕조에 대한 미련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명의 멸망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이 작품의 해석에 대한 논란과 자세한 고증에 대해서는 劉勇剛, 앞의 책, 193-197쪽을 참조.) 본디 문학 유파의 이론과 실제 결과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탁을 강조하는 운간사인의 이론은 실제 결과물과는 별개로 '사'라는 체제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그들의 유희를 옹호하는 수단이 되며, 결과적으로 이전의 사의 흐름을 부정하고 새로운 흐름을 조성함으로써 문단에서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3) 12번 각주에서 본 "신식 비단옷 다 버려버리고, 도리어 옛 봄 적삼 찾아서 입네.(新樣羅衣渾棄卻, 猶尋舊日春衫著.)"라는 표현 역시 계절의 변화를 거부하는 행위로, 구 왕조에 대한 미련을 기탁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쇠퇴해가는 시대 사회 상황 속에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정서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교체기라는 경계적 시대 상황에 놓인 운간사인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영물사를 통한 비애의 토로

명대는 사가 극성하였던 송대에 비해 영물사 창작이 부진하였는데,14) 명말청초에 이르러 운간사인에 의해 영물사 창작이 활발해졌다. 이는 영물이 하나의 주제를 두고 여러 사람이 창작을 하여 경쟁하는 운간사인의 창작방식과 잘 맞았고, 운간사인이 추구하였던 기탁을 통한 감정 표현에도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송씨 일가 운간사인이 영물사의 소재로 택한 사물로는 낙엽, 해당화, 紅葉, 버들, 눈, 매화, 楊花, 베개, 반딧불, 파초, 버들개지, 난초, 낙화, 우미인화, 두견, 제비 등이 있다. 이중 매화나 버들꽃, 해당화와 같은 소재는 송대에도 많이 사용된 것이지만 난초, 우미인화는 명대 들어서 유독 부각된 것이다.15) 난초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香草美人의 이미지로 인하여, 우미인화는 虞美人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본뜬 이름 때문에 사인들이 역사에서 느낀 비애를 의탁하는데 사용되었다.

송씨 일가 운간사인의 영물사의 특징 중 하나는 낙엽이나 낙화, 양화, 눈, 반딧불 등 유약한 이미지의 사물을 택하여 바람의 힘을 빌려야만 움직일 수 있으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상황을 자주 노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알 수 없는 이유-혹은 시대적 원인으로도 읽힐 수 있는 이유-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게 된 무력한 인물의 형상과 연결되어 비애를 부각시킨다.

(3) 체제의 구분에 따른 활용 - 小令의 여운과 長調의 확장성

북송사를 사의 정통으로 평가한 운간 사인의 사는 북송사인들이 주로 사용하였고 완약 풍격이 많았던 소령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화시여≫에는 비교적 길이가 긴 중조와 장조가 포함되어 있는데,17) 이들은 소령과 장조의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를 창작하였다. 길이가 짧은 소령은 감정을 일일이 직접적으로 토로하기보다는 景을 통해 정서를 압축적으로, 또 은근하게 표현하여 餘韻이 남도록 한 반면,18) 장조는 ‘규방의 정’이라는 한정된 정서에서 벗어나 사대부적 비애를 표현하여 운간사파 사의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19)

---

14) 송대 영물사의 작자가 447인이고 이중 10수 이상을 창작한 작자가 82인인데 반해, 명대 영물사를 창작한 작가는 366인이며, 5수 이상 창작한 작자가 64인 뿐인데(董靜怡, <明代詠物詞研究>, 南京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21-24쪽.) ≪전청사≫에 수록된 송징벽의 사 56수 중 5수가 분명한 영물사이니 비교적 영물사를 활발하게 창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송징여의 경우에는 더욱 활발하게 창작하였으니 ≪유란초≫48수만 보아도 이 중 15수를 영물사로 볼 수 있다. (단, 영물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이 통계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운간사인 중 순국한 진자룡은 明人으로 분류되지만, 청 왕조에서 관직을 지낸 송씨 일가는 淸人으로 분류되어 위 논문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15) 위의 논문에 의하면 창작된 작품 수로 봤을 때 난초는 명대 영물사 식물류 소재 중 11위에 해당되지만 송대에는 17위였고, 우미인화는 명대 식물류 소재 중 6위이지만 송대에는 1수도 없다. 위의 논문, 16쪽 참조.

16) ≪유란초≫전체 145수 중 소령은 121수이며, ≪창화시여≫ 전체 175수 중 소령은 127수이다. 李桂芹・彭玉平, <明淸之際唱和詞集與≪花間≫餘波——從明天啟至淸順治年間>, 社會科學家, 2008년 第4期.(總第132期), 138쪽.

17) 송징벽은 <倡和詩餘序>에서 辛棄疾이나 陸游 같은 일부 남송사인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무리의 사[我輩之詞]’라고 표현하여 남송사를 부분적으로 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18) 예를 들어 송씨 일가가 모두 창작한 <宴桃源> 사패는 총 33자의 單調인데, “꿈을 꾸는 듯, 꿈을 꾸는 듯(如夢. 如夢.)” 구를 전후하여 앞에서는 아득한 풍경을 제시하여 몽롱한 느낌을 준 뒤, 마지막 구에서 갑작스럽게 현실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무력한 정서를 표현하며 여운을 남겼다.

19) 앞에서 언급한 송징벽, 송징여의 <念奴嬌・春雪詠蘭>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송징벽의 <二郎神・淸明感舊>는 寒食과 관련된 옛 전고를 활용하면서 銅雀臺, 漢篆秦碑, 石馬, 이끼가 침범한 宮路 등의 경물을 나열함으로써 망국의 역사에서 느끼는 비애를 표현하였다.

4. 나오며

지금까지 왕조교체기 송씨 일가를 중심으로 한 운간사인의 사를 ‘비애’의 기탁과 표현이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실 운간사파의 발전에 송징벽·송징여를 비롯한 송씨 일가의 창화가 미친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박한 편인데, 이는 항청에 투신한 진자룡과 달리 송징여와 송징벽이 청 왕조에서 관직을 지내며 안정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사에 왕조 교체에 따른 비분강개의 감정이 격렬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주로 규방의 정을 다루어 주제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간 사파 이후 청대 강남 사단이 양선 사파 등에 의하여 시대적 비애를 사를 통해 격렬하게 토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규방의 정’이라는 협소한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전에 송씨 일가를 비롯한 운간사인들이 ‘자기연민’을 중심으로 한 비애의 정서를 사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사에의 기탁을 통해 시대적 비애를 우회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오금성 등, ≪明末·清初社會의 照明≫,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서울: 월인, 2003.
唐圭璋, ≪詞話叢編≫, 臺北: 廣文書局, 1967.
劉勇剛, ≪雲間派文學研究≫, 北京: 中華書局, 2008.
葉嘉瑩, ≪清詞叢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8.
姚蓉, ≪明末雲間三子研究≫,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4.
張仲謨, ≪明詞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陳子龍 等, ≪雲間三子新詩合稿幽蘭草倡和詩餘≫,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2000.
Li, Wai-yee, *Women and National Trauma in Late Imperial Chinese Literature*, Bost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4.

신현석, <明末清初의 詞論 研究>, ≪中國人文科學≫ 51집, 2012.
이석형, <雲間詞派 詞學 研究>, ≪中國文學≫ 47집, 2006.
이윤석, <明末의 江南 ‘士人'과 文社活動>, ≪東洋史學研究≫ 57집, 1997.
황영희, <雲間三子와 ≪幽蘭草≫에 수록된 詞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36집, 2015.
董靜怡, <明代詠物詞研究>, 南京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莫立民, <“大小宋”與明末清初雲間詞派的勃興>, ≪安徽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6년 第1期.
肖慶偉, <論雲間宋氏家族詞人與≪倡和詩餘≫>, ≪福建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년 第3期.
李桂芹·彭玉平, <明清之際唱和詞集與≪花間≫餘波——從明天啟至清順治年間>, ≪社會科學家≫, 2008년 第4期(總第132期).
松浦友久, <中國古典詩における‘春秋’と‘夏冬’>, ≪中國詩文論叢≫ 제1집, 1986.